2019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 기획·연구과제 2

인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및 사례조사 -

2019. 12.

IFAC 인천문화재단

【 연 구 참 여 자 】

1. 연구 참여자

1)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 발제)

2) 예술감상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 윤종필 (컬렉티브 커뮤니티 스튜디오 525 대표)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 발제)

3) 시민문화교육 관련 사례조사 : 최현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4) 예술감상교육 관련 사례조사 : 인하대학교 및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재학생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8명〉
이윤선(미술), 김은호(연극), 정민지(연극), 임지원(연극), 이유경(영화), 이연제(연극), 이예지(연극), 임지영(디자인), 정다슬(연극), 한명희(미술), 임하경(연극), 김아영(연극), 김경빈(영화), 김인혜(연극), 주가현(미술), 김봉기(연극), 정유리(연극), 백선희(공예), 김환희(연극), 이기준(연극), 김배정(연극), 이현주(연극), 박소영(연극), 신진아(연극), 오지현(디자인), 이은주(연극), 최운정(연극), 최은혜(영화)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2명〉
박정미(음악), 손서연(연극)

5)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운영 : 임원시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과장)

6) 연구보고서 정리 :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2.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위원

No.	성 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비고
1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kswtor@inha.ac.kr	위원장
2	윤종필	컬렉티브 커뮤니티 스튜디오 525 대표	studio525@naver.com	간사
3	김태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indian@ice.go.kr	
4	류수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mynamecat@inha.ac.kr	
5	이현정	(전) 미추홀구청 교육혁신팀 주무관	coconani@korea.kr	
6	이화정	극단 아토 대표	lucy9145@naver.com	
7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	k3119839@naver.com	
8	전철원	인천독립영화협회 대표	lovefmoon@hanmail.net	
9	최금예	인천자바르떼 교육위원장	jinri14@naver.com	
10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yhc@ii.re.kr	

Ⅰ. 연구개요 및 추진방법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문화정책 기획·연구

나. 내　　용 : 인천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및 사례조사 -

다. 세부내용

〈문헌조사〉

○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사례조사〉

○ 국내외 예술감상교육 및 시민문화교육 사례조사

○ 인천 지역 예술감상교육 및 시민문화교육시행기관 목록 작업

2. 추진배경

(1) 지속적인 '예술향유자' 양성 -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고찰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정규교과 범위를 넘기 어려워 다양성에 한계가 있고 기대효과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술실기교육'이거나 '창의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예술체험교육' 등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기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계로 인해 '예술작품'이 생성된 배경을 이해하거나 예술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비평점 시각을 키우는 등의 '예술향유자' 양성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 측면에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예술향유자'로 성장하도록 '예술감상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삶 속에서 예술을 스스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고, 예술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에 '예술감상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예술감상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함.

(2)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시민’ 양성 : ‘시민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고찰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시민 대상 생활문화프로그램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예술실기교육’이나 ‘인성교육’의 한계에 갇혀 있으며, ‘문화시민’ 양성에 대한 목표의식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2018년에 발표된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1]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한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2]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교육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올해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의제로 선택하게 됨.

○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전략과제 중 위 논의와 연결되는 주제는 두 가지이며, 이에 관해서는 세부 연구 및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2-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한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 3-1-1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천’은 인천 시민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나가는 데 필요한 ‘세계시민교육’의 측면에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이 높은 시대적 과제임.

○ 문화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체득해 나가야 할 이슈는 ‘문화예술’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시민문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시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쌓고, 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춘 ‘문화시민’으로의 자존감을 높여 나가는데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민문화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시민문화교육’을 시행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 ‘시민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함.

---

1) ‘인천문화에술교육계획(2018~2022)’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한 인천시의 법정계획임.
2018년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음.

2) ‘인천문화에술교육계획(2018~2022)’의 <전략 2 :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생태계 구축> 과제 중 “2-2. 인천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의 세부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3. 추진방법

(1) 예술감상교육 : 국내외 사례조사 시행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계)

○ 인천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예술감상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예술감상교육'의 시행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수강생들이 문화예술교육개론 수업의 중간과제 형태로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제출된 사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 학생들이 제출한 사례조사 중 우수한 내용은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서 윤종필 대표가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발표 시행

(2) 시민문화교육 :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연계 논의 진행

○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 시민문화교육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발제를 들어보고, 이에 대해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 세미나 종료 후 위원 상호 토론을 통해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커리큘럼에 대한 방향성 도출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서 김상원 교수가 '시민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발표 시행

○ 자료조사원이 국내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조사를 시행

(3) 보고서 정리

○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도출

○ 사례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예술감상교육 및 시민문화교육 추진방향 도출

4. 보고서 내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등장

○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시민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고찰

나.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개념

○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다.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

○ 추진개요

○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결과 분석

○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결과 세부내용

라. 시민문화교육 사례조사

○ 시민문화교육 사례조사결과 분석

○ 시민문화교육 사례조사 세부내용

Ⅱ.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1.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등장

○ 유엔(UN)은 2015년 9월에 개최된 제70차 UN총회에서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새천년개발목표(MDGs)[3]에 이어 2030년까지 시행할 새로운 국제사회 실천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4]를 채택함.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5]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 3)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목표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쉽 구축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목표이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는 인간존엄성, 사회적 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이라 할 수 있음. [6]

【그림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새천년개발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4) 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 UN 새천년개발목표 홈페이지 : www.un.org/millenniumgolas
6) 이상열 · 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7]

(목표 1) 빈곤 퇴치 (목표 2) 기아 종식 (목표 3) 건강과 행복한 삶(웰빙)
(목표 4) 양질의 교육 (목표 5) 양성평등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7) 깨끗한 에너지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목표 10) 불평등 완화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커뮤니티)
(목표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 생태계(수중 생물) (목표 15) 육상 생태계(육지 생물)
(목표 16) 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 (목표 17)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4번째 목표인 SDG4(양질의 교육)는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교육 2030'으로 구체화됨. '교육 2030'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다루었던 교육 목표에 비해 평생학습 관점에서 교육의 접근성 확대, 포용성과 형평성, 양질의 교육과 학습 성과를 강조하는 목표이며, 이행주도기관은 유네스코임. 2015년 11월에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SDG4-교육2030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됨.

○ 2015년에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교육이슈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2012년에 유엔이 주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임. GEFI는 2012년 제67차 유엔 총회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고자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임. GEFI 지원국 그룹은 국내외 교육발전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무대에서 교육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은 2014년 8월에 GEFI 지원국 그룹에 가입함.

○ 2012년에 UN에서 주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은 2000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기초교육 보급확대)' 선언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8가지 중 교육 관련 2가지(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교육개발목표 달성 지원 및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높이고자 출범하였음. [8]

---

7) 정부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 http://www.ncsd.go.kr
8)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4.8.28.「우리나라,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의 3대 목표는 ① 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 ② 양질의 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이며, 달성방법으로는 ① 더 광범위하고 진취적인 교육 비전을 Post-2015 개발의제에 반영,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및 교육에 초점을 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③ 교육재정 격차의 해소 및 필요를 고려하여 현명한 재정 배분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음.

○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도입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세계시민'이라 하며, 이러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이라 하며, 최근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관용과 이해를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 [9]

○ '세계시민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의 새로운 국제 교육의제로 부상하였으며, 2030년까지 유네스코 및 유엔의 교육발전목표에 반영됨.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이후 유네스코는 SDG4의 선도기관(Lead Agency)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을 시행하고 있음. [10]

○ 2000년 5월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00 세계교육포럼(WEF)에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6개의 목표-유아교육의 확대, 무상 초등의무교육 보급, 젊은이와 성인의 학습과 기술 습득 촉진, 성인 문화교육 증진, 2005년까지 성균등, 2015년까지 성 평등 달성, 교육의 질 향상-를 명시한 '모두를 위한 교육 : 다카르 실행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 fo Education for All)'을 채택한 바 있음.

○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은 2000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교육 목표(Post-EFA)를 설정함.

---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www.unesco.or.kr

10)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은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불리는 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회의임.

○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전 지구적 교육의제로 5개의 핵심주제가 논의됨.

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s to education)

2) 형평성(Equity in education)

3) 포용성(Inclusive education)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5)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즉,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어떤 학습자도 교육접근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교육성취를 제한하는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고, 모두의 삶에 연계된 교육으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어떤 학습자도 교육접근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Transforming life through education)'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에 시행하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함께 '세계시민교육(GCED)'을 새롭게 제안함. [11]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세계적 이슈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뜻하며,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인권 존중, 사회정의, 다양성, 비차별,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지식, 스킬을 익히고 이를 강화하여 학습자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12]

○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주창된 '인천 선언'은 "양질의 교육은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통해 지역의 쟁점 혹은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고,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능, 태도, 가치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2014년 (일본의) 아이치-나고야에

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블로그 : http://blog.unesco.or.kr/220377377180
12)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홈페이지 : https://www.gcedclearinghouse.org/about

서 열린 '유네스코 ESD 세계교육대회'에서 ESD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 GAP)'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교육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음.

○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국제이해교육, 유럽식 시민교육과 개발교육, 환경교육 등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왔으며,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시민 의식', '상호 의존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인권, 평화, 정의 및 공정성'과 같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며 다양한 문화 및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보편적 인류 공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가는 교육임.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전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성,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세계시민 교육과 연관되어 주로 논의되는 개념은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세계화된 사회, 시민 의식, 세계적 문제의 해결,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 평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의 정의에 상호 적용될 수 있음. [13]

2.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고찰 [14]

윤종필 (컬렉티브 커뮤니티 스튜디오 525 대표)

(1) 예술감상교육이란 무엇인가 : DBAE에 대한 인식 재고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인천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논의를 함. 우선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그중 인천문화예술교육 기본 계획에 적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교육으로써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천문화예술교육의 의제로 부각됨.

13) 이희용, 『세계시민교과서』, 라의눈
14)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 발표한 윤종필 CCS525 대표의 발제문을 재정리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목표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이행해야 하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음. 총 17개의 목표와 그에 따른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빈곤 종식, 굶주림 종결, 건강과 웰빙, 질적인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시후 행동, 수중 생물, 육지 생물,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등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과제'로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모든 항목을 지금 당장 연구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항목부터 연구와 실행의 단계로 실천을 해나가기로 논의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천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래교육이자 세계 시민교육으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이 높고 시대적 과제임이 틀림없음.

○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단어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표현임. 사전에 '미술감상교육' 이라는 말은 존재하나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미술감상교육'의 뜻을 "(미술)예술 활동에 관련된 교육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론적인 접근은 물론 실천적인 접근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이르고 있어 '미술'이라는 용어를 '예술'이라는 용어와 등치시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예술감상교육'을 검색해 보면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감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공모사업'에는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참여하고 있어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됨.

○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시민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기초적인 교육의 방법론을 문화교육으로써의 '예술감상교육'을 논의함. 여기서 제시되어 논의된 교육이론은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학문기초미술교육)[15]임.

○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활동하였던 미술교육 사조인 '이해중심 미술교육'에서 활용됨. 이 미술교육 사조에는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와 미적교육, 사회 중심 미술교육, 미술치료, 보람 있는 여가를 위한 미술교육, 우뇌 계발을 강조하는 미술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등이 포함됨.

(2) 예술감상교육 :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읽어내기

○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학문기초미술교육)는 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술교육으로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의 네 영역에 기초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에 접근함. 그리고 DBAE의 목적은 생활환경 속에서 미술 작품을 만들고 보고 감상하는 시각적 능력을 키워 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며 미술의 본질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말함. 즉, 학습을 통하여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세련된 교양인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교양인은 미술작품의 질을 높이고 자연현상을 즐기며,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하여 환경을 자신에 맞게 적절히 이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함.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DBAE가 지향하는 목적에 있다. 이는 곧 문화교육으로써의 예술감상교육이자, 시민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가설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꾸물꾸물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네예술대학의 개설 교과목 중에 한신대 공주형 교수가 강의하는 〈명화의 사회사〉라는 과목이 있음. 강의 내용은 고대 미술부터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명화 혹은 명작들을 중심으로 여성, 결혼, 광고 등 다양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각 사회상을 읽어 보는 작업들임.

○ 시대별로 예술 혹은 미술작품을 보고 작품 구성이나 내용을 읽어 내는 행위는 "미술(예술)감상"에 속함. 시대별로 수많은 예술작품들 중에 우리가 '명화'나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음. 다시 말해 '명화'나 '명작'에는 시대상이나 시대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임. 즉, 미술작품이 가지는 조형성, 제작기법과 원리, 이미지와 상징을 읽는 미술(예술)감상을 넘어 시대를 읽어 내는 키워드들을 통해 사회사를 읽

15) DBAE 이론에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전개방식이 있음.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에서는 이 중 펠드먼(E.B.Feldman) 미술비평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와 고찰을 진행함.

어 내는 작업이 겸행되는 것. 더 나아가 〈명화의 사회사〉 강의는 '명화'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사'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나,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의"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예술감상교육을 통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함.

○ 미술사 강의가 단순히 미술사 이해로만 끝나지 않고 작품이 제작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고찰하고 시대상을 연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즉, 미술(예술)감상교육이 시민문화예술교육으로 연구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인천문화재단과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 관·학 협력으로 우선 이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 찾는 작업을 시작함. 예술감상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는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 〈문화예술교육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과제의 형식으로 제시함. 그리고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문화예술교육 개론〉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과제를 제시하였음.

○ 다만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는 '감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중시되는 향유자의 자발성에 반하여 '수동적 자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하였듯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용어가 정립되기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예술감상교육'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와 같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인천문화예술교육의 의제를 채택하였음. 또한 예술감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작은 한 걸음 떼기를 시작하였음.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긴 호흡의 지속성과 집중이 필요함. 인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연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논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할 것임.

3. 시민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고찰 16)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1) '문화'란 무엇인가 : 공유된 가치

○ '시민문화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서양에서 '문화' 개념의 어원은 고대 라틴어 'cultūra'로 귀결됨. 'cultūra'란 '전답의 관리'를 뜻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란 개념사적으로 '경작하다(Cultivate)', 즉 자연의 가공과 관련되어 있음. 17) 즉,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을 '문화(Culture)'로 이해할 수 있음. 철학에서 '자연(Nature)'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상태'를 말함. '자연(Nature)'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라는 뜻으로 쓰임을 고려할 때, '사람이 손댄 것'을 뜻하는 '문화(Culture)'와 대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는 '태도', '규범',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감안할 때, '문화'를 '공유된 믿음',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로 해석할 수 있음. 빈슨(Vinson, 1978)은 '사람의 손'을 거쳐 '가치'가 발생하므로, '가치는 문화에 따라 규정된다'고 설명.18)

○ '가치'는 '최종적 존재상태가 다른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지속적 신념'을 말하며,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있음. '절대적 가치'는 '종교적 신념' 등이 있음. '절대적 가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규정하는데,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말함. 이념이나 민족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또는 궁극적 가치, 우리가 공유하고 그 가치를 문화화, 관습화, 습관화시키는 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 19)

○ 로키치(Rokeach, 1973)는 '가치'를 최종적인 상태가 다른 것보다 좋다고 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하면서 '가치 시스템(value system)'을 설명함. '가치 시스템(value system)'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속적으로 조직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문화교육', '문화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

16)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 발표한 김상원 교수의 발제문을 재정리함.
17) 김화임(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p.37.
18) C. Joseph Clawson & Donald E. Vinson, 『Human Values: a Historical and Interdisciplinary Analysis』, 1978
19)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1973

○ 로키치는 ‘가치의 유형’을 범주화시킴. ‘궁극적 가치’는 ‘존재의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말하며, ‘도구적 가치’는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라고 정의함. 예를 들어서 ‘행복’을 궁극적 가치로 설정할 때, ‘근면’은 행복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음. 보통 ‘바람직한 가치’가 있고 ‘바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바람직한 가치’의 경우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도 되고 생활지침도 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 ‘바라는 가치’를 계속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됨.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발생하게 됨. 다양한 가치 중에서 ‘궁극적 가치’,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2) ‘궁극적 가치’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

○ ‘지속가능성’ 개념은 독일 산림학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70년대임. 1968년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결성된 로마클럽(Club of Rome)은 1972년에 ‘이전의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담긴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1975년에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 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고,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IUCN)에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채택하면서 국제기구 공식문서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함. [20]

○ UN은 1983년에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를 설립하고 '변화를 위한 지구적 의제'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부룬트란트 주도 하에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표된 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21]는 인구, 식량, 생물 종 보전, 에너지 산업 도시화, 평화 등의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자원기반을 지속시킬 새로운 경제 발전 형태를 요구하였음.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하여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20) 김화임(2016), 『독일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p.187~188.
21)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불리우기도 함.

○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전세계 국가들의 과제로 떠올랐고, 1992년 UN이 주최한 리우회담에서 178개 국가들이 「의제 21(Agenda 21)」에 서명하면서 생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의 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조건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름. [22]

○ 이와 같이 유엔(UN)은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설정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인식하고 모든 분야에 적용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므로 유엔(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고찰해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5가지 원칙(5P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5가지 원칙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목표 17개와 분야별로 대응됨.[23]

1. People(인간) : 빈곤과 기아의 종식, 존엄과 평등 속에 잠재력 실현 보장
2. Planet(지구)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구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응
3. Prosperity(번영) :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 · 사회 · 기술의 진보
4. Peace(평화) :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5. Partnership(협력) : 국제협력 및 연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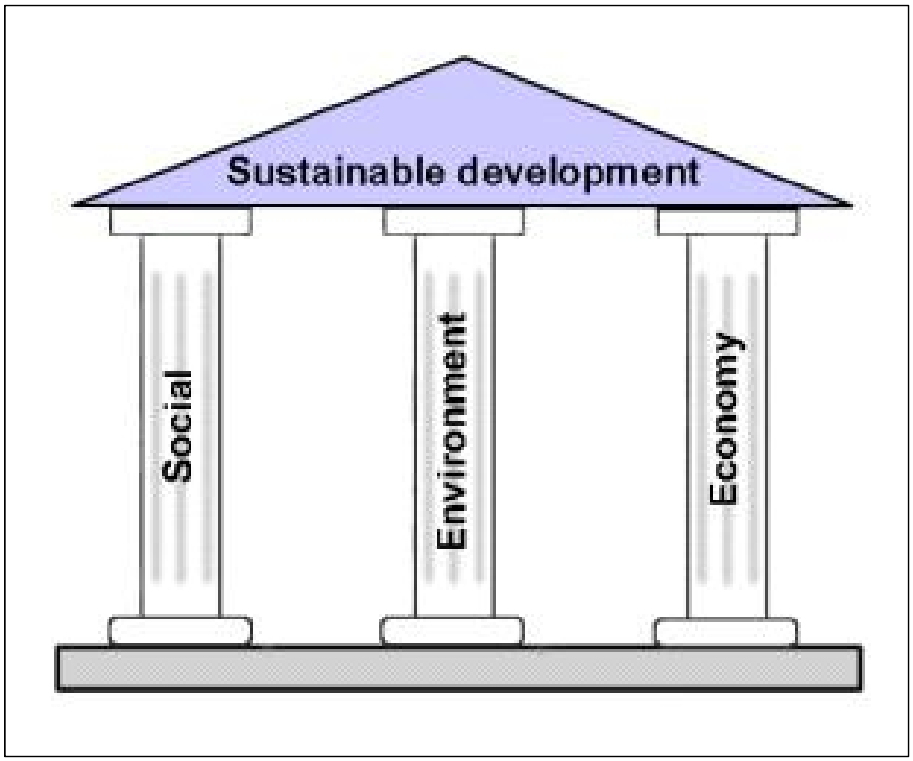
【그림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2) 김화임(2016), 『독일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p.187~188.
23) 환경부(20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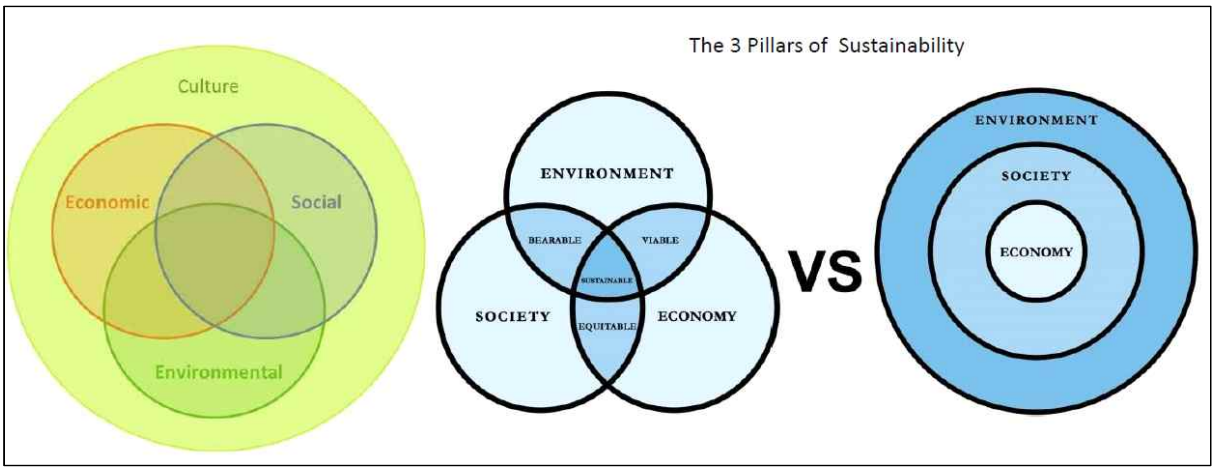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5가지 원칙

【그림 4】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의 5가지 원칙(5Ps)과 17개의 목표

○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3 Pillars of Sustainability)’를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생태적 가치(Environment)’, 둘째 ‘사회적 가치(Society)’, 셋째 ‘경제적 가치(Economy)’로 구분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은 1992년 리오회담에서 178개 국가 정상들이 ‘의제21’에 서명함으로써 생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의 결합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 조건으로 공식화함.



【그림 5】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 (3 Pillars of Sustainability)



【그림 6】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

○ 가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 5의 가운데 - 약한 지속가능성, 오른쪽 - 강한 지속가능성)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가치 우선순위를 고려함에 있어, '강한 지속가능성' 모델 측면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1번, 사회적 가치가 2번, 경제적 가치가 3번임.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사업의 방향과 예산의 범주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 이론의 내용임.

○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생활 속에서 이것을 철저히 실천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려면 지속가능모델에 의거하여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예 : 환경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책 등)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과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일상생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해 나가는 '문화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교육'이 필요함.

(3)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의 상관관계

○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 사회 편입, 환경 조화 등 3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이 개발되었음.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 1987년)라고도 알려진 「우리들 공동의 미래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을 지역, 국가 및 글로벌 개발 전략에 사용할 세 가지 차원으로 포함시켰음. 1992년 리우정상회담은 이 세 개의 기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통합시켜 발표함.

○ 이러한 세 가지 차원만으로는 현재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제의식하에, 유네스코와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개발로 형성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에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게 됨. '지속가능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됨.

○ 유엔 회원국들은 1992년 리우회담(UN환경회담)에서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의제 21(Agenda 21)'을 승인함. 이후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로 발전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원래 '지방의제 21'은 생태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며 문화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나, 해가 가면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문화적 발전을 통합하게 되면서 '지방의제21'에서도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짐.

○ 2004년에 스페인 빌바오에서 UN 193개 회원국 중 140개 회원국의 1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가 참가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설립됨. UCLG는 이 회의에서 '문화의제 21(Culture 21 : Agenda 21 for Culture)'을 채택함.

○ '문화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문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문화, 시민권, 지속가능성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국제문서임. '문화'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네 번째 요소(네번째 기둥 : Fourth pillar)로 확장하는 계기가 됨. [24]

○ '문화의제 21'에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음. 첫째, 우리가 지속가능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역문화정책을 강화시켜야 하며, 둘째, 기초 단위로써 문화통합을 해야 하고, 셋째, 공공기획을 할 때에는 지역 문화 정책에서 공공기업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며, 넷째, '우리는 문화가 포함된 미래'라는 공동 성명서로써 발표하게 됨.

○ '문화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지속가능한 문화'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질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음. [25]

○ 2015년 3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지속가능 도시에서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시·지방 정부 대표들이 '문화의제 21 실천계획(Culture 21 : Actions)'을 채택함.

---

24) '문화의제 21' 홈페이지 : http://www.agenda21culture.net /
보고서 'Cultur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25) 마뉴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Castells Manuel, 『Rise of the Network Society』

○ ‘문화의제 21 실천계획’은 2004년에 채택된 ‘문화의제 21’을 보완하기 위해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음. ‘문화의제 21 실천계획’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담고 있음. 이 계획을 통해 설정한 가치는 ① 문화, 권리 그리고 시민권,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요인, ③ 지방정부의 특별한 책무로 요약됨. [26]

○ ‘지속가능한 문화’를 통해서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을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춘다는 것을 뜻함. ‘문화’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조직된 우리 삶의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술의 활동, 생산, 그것을 수용하는 것들이 바로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예술’과 ‘문화’가 ‘생태학적 지향의 문제’를 다루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예술가와 각각의 예술적 행위에 달려 있음.

No.	과제명	내용
1	**문화권** Cultural Rights	● 「지역 문화 정책은 분명히 문화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등 총 10개 과제
2	**문화유산, 다양성, 창조성** Heritage, diversity, and creativity	● ‘지방정부는 문화적 책임성을 다 하는 수준에서 문화예산 확보’ 등 총 9개 과제
3	**문화와 교육** Culture and education	● ‘지방정부는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지역정책을 가져야 함’ 등 총 9개 과제
4	**문화와 환경** Culture and environment	●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지역환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5	**문화와 경제** Culture and economy	● ‘지역경제 개발전략은 문화경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6	**문화, 형평성, 사회적 포용** Culture,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 ‘지역 사회정책’은 문화이슈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등 총12개 과제
7	**문화, 도시계획, 공공 공간** Culture, urban planning, and public space	● ‘지역도시계획은 문화이슈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8	**문화, 정보, 지식** Culture, information, and knowledge	● ‘법률은 예술적 표현, 의견개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문화다양성과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9	**문화 거버넌스** Governance of culture	● ‘지방정부는 문화의제21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실행해야 함. 등 총 11개 과제

【표 4】「문화의제21 실천계획」에 명시된 9대 과제

26) ‘문화의제 21’ 홈페이지 : http://www.agenda21culture.net / 보고서 ‘Agenda 21 for Culture’

(4)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문화적 과제 - ‘문화권’의 정립

○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화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차적 의무가 지구의 생태환경에 대한 보존 및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태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생활 방식,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구조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문화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생태학적 문화정책 또는 생태지향적 문화정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생태지향적 문화정책은 첫째, 생태적 사고방식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둘째, 합리적이고 좋은 삶에 관한 질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셋째, 문화적 실천에서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생존을 위한 가능성을 지향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양적 성공에 앞서 질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도시, 기관, 개인의 문화정책이 모두 여기에 해당됨. [27]

○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 과제는 국가가 다양한 ‘문화적 권리’, 즉 ‘문화권’을 보장해서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임. 이는 문화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 사항임. ‘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의사 활동, 표현, 일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국가는 시민사회영역과 시민들의 자율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침해 받는 ‘문화적 권리’를 국가의 개입으로 보장해야 함. ‘문화권’의 정립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문화적 권리’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음. ‘문화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영역에 해당되면서도 인간의 의사와 활동, 표현, 일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

27) Bernd Wagner, 34-37

【그림 7】'문화를 위한 의제 21'의 연혁 (출처 : www.agenda21culture.net)

○ ‘문화권’은 인간의 감성과 표현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함. ‘문화권’은 인권 분야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사회의 인권발전의 선진성, 국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됨. ‘문화권’은 다른 개인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와 신념의 자유, 결사와 교육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5)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

○ 독일의 문화정책에서 ‘예술’과 ‘문화’는 ‘자유’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에 기여하고, 비판적 담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음.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와 연대의 기본 가치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대, 계몽주의와 휴머니즘에 기반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 예술과 문화의 생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발전을 촉진함.

○ 독일 문화정책은 이러한 기조 하에 ‘모두를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 : Culture for everyone)’ 즉,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예술’과 ‘문화’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독일 사회 통합의 기본 요소이자 이민 사회를 통합시키는 엔진임.

(6)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전환

○ 최근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서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문화의 민주화’ 정책은 예술을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의 생산’에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수동적 관람’에서 벗어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미

래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소비 습관과 생활 습관을 재고하도록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임.

(7) 독일의 정치교육

○ 생활습관을 고쳐나가도록 가치 측면에서 교육하는 것이 문화교육이자 정치교육임. 문화교육과 정치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교육임.

○ 독일은 '정치교육'과' 소통교육'과 '환경교육',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문화교육' 체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기본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독일은 학교, 직업, 학교 밖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며,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 '정치교육'은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됨. 에버트는 "민주주의자 없이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독재체제를 역사적 경험으로 해보니 '민주주의'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며,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교육'을 시작함.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 교육'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 교육, 정치 참여 교육, 정치 교육 교재 발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교육'을 연방 주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정치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음. 독일의 '정치교육'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조성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 고양이 기본 목표임. 즉,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 방식과 태도를 교육하여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8) 사회정책으로서의 독일 문화정책

○ 독일은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세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과제로서의 문화정책을 말하고 있음. 독일 문화정책으로 결정을 위한 세 가지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공성'은 부족한 재정에도 문화기관과 문화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임. 두 번째, '시민성'은 이러한 모든 결정이 시민으로부터 근거한다는 것이고,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부분임. '문화 민주화'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문화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음. 세 번째, '경제성'은 공적 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추구하고, 일자리 관점에서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는 부분임. 문화정책은 경제와 연결되어야 하며, 경제적 행위는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임. [28]

○ 독일은 문화정책을 하나의 사회정책으로 보고 있음. 즉, 문화정책은 먼저 사회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임. 독일 문화정책의 지향점은 4K로 구분됨. [29]

1) 소통(Kommunikation) 2) 협업(Kooperation) 3) 조정(Koordination)
4) 합의(Konsenfindung)

○ BUND(독일환경보호연맹)과 독일 문화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맥락에서 환경 및 문화 교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함. '환경교육'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문화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말함.

○ BUND(독일환경보호연맹), BUNDjugend(독일환경보호청소년연맹) 및 독일 문화 위원회는 '환경 교육' 및 '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 미래에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 토론을 자극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화 교육' 및 '환경 교육'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 및 홍보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음.

---

28) Dieter Kramer 1996
29) Scheytt 2003

(9) 펠드먼의 미술비평이론 DBAE : '예술교육'의 도구화

○ '지속가능발전'을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고, 이러한 문화교육 실천을 위해 예술을 도구적으로 보자는 제안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E.B.펠드만(Edmund Burke Feldman)의 'DBAE 교육이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DBAE 교육이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술교육의 도구화'라는 개념임.

○ 펠드먼은 비평가가 자기의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의 종류로 형식주의(Forma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도구주의(Instrumentalism) 세 가지를 제시함. 형식주의 비평은 미술작품에서 시각요소들 사이의 형식적 조직의 통합된 성질을 예술적 우수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 표현주의 비평은 작품의 우수성을 예술의 이념과 감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비평. 도구주의 비평은 예술이 어떤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심리적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도구라고 인식하는 비평을 말함. 형식주의자들은 미에 관심을 가졌고, 표현주의자들은 깊이, 전달효과, 어떤 목적을 위한 미술의 효과에 관심을 가졌다면, 도구주의자들은 미술이 사회적 기관의 필요에 기여하기 원하였고, 인간의 이익을 더 증가시킬 주장을 위한 도구로 쓰이길 바람. 도구주의는 미술을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식하고, 작품에 드러난 사상과 감정이 가져다줄 결과에 관심을 가짐. 도구주의자들은 비평에 있어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 비평가로 하여금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실용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계되는 미술의 가치를 강조함. 펠드먼은 도구주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필요가 있는 비평 철학임을 주장하였음. [30]

○ 펠드먼의 도구주의적 비평관점에 입각하여 '예술교육의 도구화'를 이해할 수 있음. '예술교육'이 학교에서 다른 교과목들을 더 재미있게 만들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되면서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등 '예술교육'이 다른 교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임. 즉, 예술교육이 학습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Greene, 2001)

---

30) 한아름(2012),「펠드먼(E.B.Feldman) 미술비평 이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p. ⅹⅹ~ⅹⅹⅰ.

○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는 “과학은 우리에게 생각의 질서를 부여하고, 도덕은 행동의 질서를 부여하며,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것, 들리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예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함.

○ ‘DBAE 교육이념’의 목표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첫 번째, ‘skills and making’, 만들고 만지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 두 번째 ‘historical knowledge’,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부분,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네 번째, ‘critical judgement’,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부분을 말함. 여기에서 핵심은 학생들이 예술가나 예술비평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모든 시민이 예술가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는 없으며, 예술가들의 비판적인 사고능력이나 예술가들이 세상을 보는 독특한 관점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시민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예술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차별되는 요소로 둘 필요가 있음.

○ 펠드만의 DBAE교육이념에 대해서는 1960년대 만들어져서 1970년대에 폐기된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DBAE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DBAE가 작품의 외형을 파악하는 것에만 기여한다는 점,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점, 미술작품이 생산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미술작품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이러한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에 영미권에서는 ‘DBAE교육이념’이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관점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음.

○ DBAE교육이념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게티 센터(J. Paul Getty Center)를 들 수 있음. 게티 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DBAE를 주요한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미술사, 미술 비평, 미학, 미술 제작의 4가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 게티 센터의 비평교육(크리티시즘 : criticism)은 비판적인 관점, 미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생산과 관련된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건전한 문화시민 양성’임.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구성원들이 '문화 시민'의 양성이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임. 그러나 '문화 시민'은 단시일 내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님. '문화시민'은 시민들의 참여와 표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에 두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문화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 발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예술감상교육'이란 단어는 아직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할 것인지 DBAE를 그대로 쓸 것인지 용어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 DBAE를 쓰면 특정 장르 교육(미술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시민문화교육' 또는 '예술로 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을 제안함.

○ '예술로 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은 '예술'을 도구로 해서 '문화교육'을 하겠다는 뜻을 내포함. 다양한 범주에서 '예술'을 활용하여 '시민교육'을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

Ⅲ.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개념

1) 시민문화교육의 등장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적 흐름 [31]

○ 2003년,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등장 및 교육부와 협의 시작

-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시작
- 2003년 7월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양 부처 공동으로 상정함.
- 2004년 1월,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간보고 및 04년 추진계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시킴.

○ 2004년, 문화부 예술국 내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 2004년 11월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정식으로 설치됨.
-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04.11.25.)

○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2006년 8월 특수법인 전환)

- 2005년 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 평가 그리고 각 역할 주체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됨.
  (문화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발의를 준비하면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법정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안에 담겨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됨.
- 2006년 8월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특수법인’으로 전환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해산함)

31) 홍애령·송미숙(2015),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한국무용연구』, 33권 1호, pp.170-171. 재정리

○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약칭 문화예술교육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享有) 역량 강화라는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제안되었음. [32]
- 2003년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상정
- 2004년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선정과 시범사업 및 정책 워크숍, 공청회를 통한 사업추진 평가를 시행
-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2월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민병두 의원 등 13인이 발의[33]) 2005. 12. 29.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제정)하여, 2006. 6. 30.부터 시행됨.

○ 2007년 6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발표

- 문화관광부는 2007년 6월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발표함. (2007.06.28.) [34]
- 본 계획은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정책비전 하에서 6개월 동안 정책 수요자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①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③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④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의 4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동 내용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추진방안을 수립함. [35]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5개년 법정 계획으로 발표된 이 계획은,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이 수립한 5개년 계획 (2003~2008)에서 '예술학습 강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예술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계획을 참고하여 수립됨.

○ 2008~2009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격 시행

-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둠.

---

3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검토보고서(200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p.3. 재정리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www.assembly.go.kr)
33) 민병두, 김재홍, 김태홍,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계진, 이광철, 이미경, 이은영, 정병국, 정청래, 한명숙
34) 문화관광부(200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p.4.
35) 문화관광부(2007.6.28.), 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발표」

- 2009년에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둠.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을 통해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킴으로써 16개 시·도의 92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천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2010년, '서울어젠다'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본격적인 활성화
-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한 성과물 '서울 어젠다(Seoul Agenda)'가 채택됨.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용어 정립]**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제2조)
- **[기본 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음. (제3조)
-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의2)
- **[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제6조)

- **[위원회 및 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규정함. (제8조 및 제9조)
- **[전담기관 설립]**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학교의 장이 학교문화예술(제14조)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15조 ~ 제19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1조 ~ 제24조, 제26조) 더불어 학교시설의 일부와 폐교를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
-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제27조 ~ 제32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주요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과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자격인증제도 부분임. 자격인증제도는 이후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로 구분하여 시행됨.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협력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 아래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됨.

(3)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전개[36)]

○ 2009년 이전,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생성된 것은 문화예술교육 도입과 관련된 초기 구상의 정책적 맥락과 관련이 있음.

- 2003년 7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추진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이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됨.
- 문화관광부는 2003년 12월 〈2004년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내용,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진행

○ '문화예술교육'은 장르 중심 예술실기교육, 개인 지향적 예술교육을 벗어나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제에 대응하는 예술교육을 추진하고자 했음.

-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사회의 문제적 상황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2004년 문화정책비전서로 발간된 「창의한국」에 잘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전체 27개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한 「창의한국」은 문화국가 구현을 위해 문화시민 육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인력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창의한국」은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문화향유능력, 이해와 소통능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적(private) 생활영역에 안주하는 대중들을 공적(public) 관심영역으로 이끌어내어 이들을 문화시민으로 만듦으로써 문화사회, 나아가 문화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함.

○ 2004년, 「창의한국」에서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 향상'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비전 설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 문화예술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2005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시범사업) 실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군인, 교정시설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의 사업 진행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pp.21-25.

○ 2006년, 본격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작, 노인·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시, 복권기금으로 각각 15억 원, 12.25억 원 예산 지원 책정

○ 2007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문화관광부, 2007),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생활권 내 문화시설, 유휴공간 활용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의 추진과제 제안

○ 2007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체 예산 74억 원(복권기금)

○ 2008년,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전환(총 66.56억 원),'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주최 사업으로 추진

○ 2010년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양적(量的)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책(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학교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대상 사회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양적(量的)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質的) 성숙을 도모할 필요가 제기됨.
-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의 효과를 검토할 시점에 이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체계 전반(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문화시민'과 연관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됨.

○ 2010년 이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양적(量的) 성장과 질적(質的)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지만 아직까지는 양적 성장에 가까움.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시민'을 대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향이 강함.
- 취약계층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측면이 있음
- 2010년,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 아젠다'에서 '지역/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을 기존 학생 및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

- 2010년 정책 단위 사업으로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범주가 생성되어 ①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 ②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이 이루어짐.
-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시범사업: 해당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을 독려하고자 32개 문화의집, 36개 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300여명 수혜
-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사업: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주거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학습, 창작할 수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 형성 지원,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10개 단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1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②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지역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노리단', '공공미술프리즘', '문화로놀이짱', '장애인 극단 판' 등 총 4개 단체 선정, 735명 수혜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3개 단체 지원, 277명 수혜

○ 2012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실시: '광명문화의집' 등 총 8개 생활/행정시설 선정

○ 2013년,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재편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으로 진행됨

(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①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과 ‘예술문화’의 차이[37]

- 1962년에 결성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의하여 정의된 ‘예술문화’의 개념은 문화적 예술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에 목표를 두는 것인데 반해, ‘문화예술’의 개념은 이와는 다른 의미, 다시 말하자면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을 포괄적인 ‘문화’의 개념 안에서 이해하는 것임. 즉, 이 두 개념은 ‘예술’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문화’에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로서, 이에 따른 지향점이나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편적 기능과 향수가 강조되는 ‘문화예술교육’ [38]

-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와 ‘예술’의 합성어로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만나는 지점에 ‘문화예술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화교육’이나 ‘예술교육’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모두 병렬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문화예술교육’은 미적인 교육, 여가교육, 매체교육, 문화적 교육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교육이 아니며, 이러한 교육 영역들이 특정한 지향, 곧 개인의 미적, 창의적, 성찰적, 소통적 역량들을 북돋워 줌으로써 개인 자신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지향 속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예술의 역량은 특정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욕구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술적 표현교육, 예술적 향유교육 모두를 포함함.
-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든지 원하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 교육의 과정에 필요·적절한 지식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것이 주요과제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에 따르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37) 민경훈(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예술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p.15.
38) 민경훈(2013), 동 연구, p.17.

하위범주임.[39]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시설(제2조제3호)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제2조제4호)와 각종 시설 및 단체(제24조)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임.
-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

○ ‘사회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독립된 범주를 형성한 시기는 2010년을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40]

- 2010년에 ①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 ②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 실시
- 2011년에는 ①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②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2013년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이 추진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41]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사업”, 곧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음

○ 시민은 한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 개인, 공공의 개인을 의미하며, 사고와 행동의 준거가 귀속집단이나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주체적인 개인을 의미함. 또한, 주체적 개인이 사적(私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公的) 세계로 진입한 공공의 개인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는 전자(前者)[주체적 개인]보다 후자(後者)[공공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주체적 개인’과 ‘공공의 개인’은 상보적 관계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시민’뿐 아니라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문화시민’은 ‘주체적인 공공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타자와

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p.21.
4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동 연구, p.21.
4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동 연구, pp.25-26.

공감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함.

- 시민성 개발에 한정하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함.

○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시민을 위한 교육(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일반과 같으면서 다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취약계층, 일반 시민 모두를 포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있음.
- 다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비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자율성과 공동체성이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체계에서 더욱 내재화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이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시민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의 집합(集合)이라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직접적으로 문화시민 육성을 목표로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의미를 지님.

- 문화적 감수성 개발, 주체적 개인의 형성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함.
- 공동체 참여를 통하여 공공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42)]

○ **주체성과 자율성**

-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공동체를 위한 전제 조건임
- 스스로 판단하여 공공영역에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존재로 사사로운 영역에 한정된 개인이 아님
- 자율성이 없는 존재의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군집(群集)임
- 주체적이고 자율적 (문화)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익숙한 것(가정, 학교, 직장, 규범, 제도 등)과의 비판적 거리 유지하기
  둘째, 귀속(歸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셋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4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동 연구, pp.26-28.

○ **공동체성과 공공성**

- 공공의 개인을 세분화해서 보면 ①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 ② 공공성, ③ 공공선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참여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의 (문화)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낯선 것들(모르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사는 지역 등)을 공감을 통해 상상하기
  둘째,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적(公的) 영역에서 협력하기
- 시민성은 주체적 개인이 공적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내재화하는 과정(결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과 '공적 영역'이 분리될 수 없음
- 한국사회에서 시민성 논의는 '자율적 개인'보다 '공동체'에 훨씬 강조점을 두고 있음 개인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임
  자율적이지 못한 개인, 주체적이지 못한 개인이 구성하는 집단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군집체(群集體)로 공공성을 지니기 어려움
- 공동체가 아닌 군집체에 속한 개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더라도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함
- 하지만 공동체를 형성하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극복한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음

○ **문화적 감수성**

- 문화예술을 통한 주체성과 공공성 함양은 다른 영역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화적 감수성임. 주체성과 공공성은 (문화)시민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문화예술 영역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님
- 문화적 또는 미적 감수성을 지닌 시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첫째, 예술작품의 감상(참여),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적(美的) 감수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기
  일상의 문화적 표현은 재현(representation)과 전복(subversion)을 동시에 의미
  익숙한 것(일상)을 문화예술을 통해 표현하기(재현), 익숙한 것(일상)을 문화예술을 통해 낯설게 하기(전복)는 주체적 시민형성의 조건이 됨
  둘째, 예술작품의 감상(참여),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공유된 문화적 감각 익히기

문화적 표현은 익숙한 사람은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보편성을 획득 문화예술 활동(실천)의 보편성은 공공의 시민형성의 조건이 됨

④ 문화예술교육, 시민성, 문화감수성의 관계[43]

○ **문화예술과 시민성**

- 시민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예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시민성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 자율적인 개인이 공적 담론구조에 참여하기 시작한 매개물이 문화예술이었음.
- "박물관, 도서관, 열람실, 극장, 연구회, 살롱 등에서 각각 형성되는 문예 공론장"에서 시민성이 형성됨.
- 문예 공론장은 공적인 개인이 "스스로를 훈련하는 자기계몽적 과정으로 궁정사회가 기반하는 문화권력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해체하는 자각적 정보교환의 장"임.
- 근대사회 초기에 문예 공론장의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은, 이전 시대와 다르게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이후 공공영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시민성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기 시작함.
- 현재는 문화예술이 시민성/공공성과 다시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는 감정과 마음이 강조되는데 이 같은 논의는 문화예술과 직간접으로 연결됨.
- '감정노동'이란 말이 유행하는 데서 보듯이 감정이 중요한 사회(학)적 설명요인임.
- 감정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주장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과정과 결과는 그것의 감정적 차원이 규명될 때 항상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임.
-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공동선이라는 이성적인 요인뿐 아니라 타자와 공유하는 집합감정이 중요함을 인식한 결과임.
- 최근에는 '마음'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미국의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파머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

  "우리의 모든 앎의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곳이고, 지식이 보다 인간적으

4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동 연구, pp.28-30.

로 충실해질 수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연금술은 고통을 공동체로, 갈등을 창조의 에너지로 그리고 긴장을 공공선을 향한 출구로 바꿔낼 수도 있”음

- 문화예술은 미적인 경험을 통하여 감정과 마음, 특히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조정하는 기능을 지님
- 다른 경험과 달리 문화예술 경험은 ‘미’와 관련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음
- 감동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성을 지님
- 감동의 경험은 문화적 감성을, 문화적 감성은 시민성의 두 가지 축인 주체성과 공공성을 발현시킴
- 자신의 일상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또는 예술적 구조에 따라 표현하게 됨
- 문화적 감성은 개인적이면서 타자와 공감하는 것이기에 타자와 공감하는 상상력을 제공함

○ **문화예술교육과 시민성, 문화 감수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인 주체성, 공공성,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예술의 일반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문화적 감수성을 통한 주체적이고 공적(公的) 시민의 육성은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체의 영역임
- 시민성과 문화적 감수성은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교육’이 개입할 때 상호작용이 활발해짐
- 교육일반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know what),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임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와 비교하여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배움과 익힘)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
- 지속성은 ‘반복’이 아니라 배움의 누적(學)과 익힘의 일상화(習)를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함
- 지속성은 학습 패러다임이 표준적이든 성찰적이든 관계없이 교육의 기본임
- 지속성은 일정한 시간 내의 지속성뿐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계속해서 진행됨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교육과 비교하여 경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상과 분리되기 어려움
- 문화예술 경험은 일상의 구체성에서 진행되기에 문화예술교육은 익숙한 것을 성찰하게 되는 특성을 지님
- 일상의 구체성과 성찰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감수성을 발현시킴
-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단위에서 수용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주체성 형성과 관련됨
-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교육과 비교하여 '함께 하기'(연극, 합창, 공동제작) 과정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임

⑤ 문화예술교육의 역량[44)]

○ 문화관광부는 2004년 예술정책연구 보고서 '예술의 힘'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량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음(민경훈, 2013: 17).

○ 민경훈(2013)은 문화예술교육의 역량을 6가지로 정리함.

- 기능만을 강조하는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들이 서로 연계되는 통합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게 함.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이라는 포괄적 개념 아래 다양한 예술적 표현양식의 경험을 통하여 문화예술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문화예술교육은 지식문화시대로 전환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단순 전문기능인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문화자본의 형성과, 더 나아가 국가 인적 자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함.
-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여건 개선 및 청소년의 주체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야 함.
-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함.
-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확대에 따라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즐김으로써 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4) 민경훈(2013), 동 연구, pp.17-18.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추진배경 [4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산과 수혜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부터는 연간 1천원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예산은 3.2배, 수혜자 수는 1.9배가 증가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정 대상 중심의 공급식 지원 구조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는 정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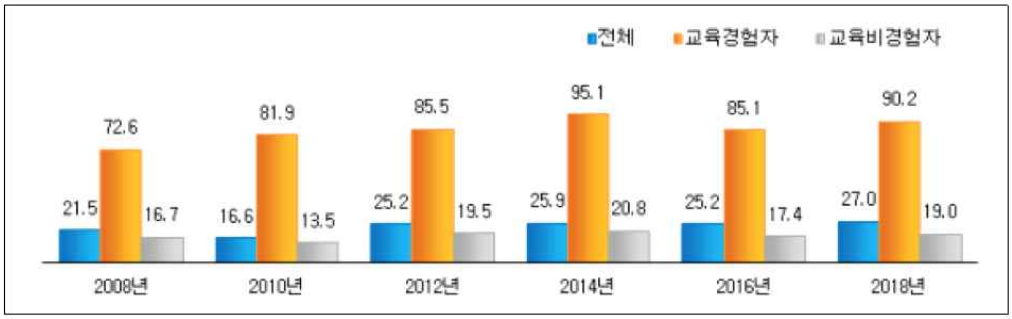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율과 참여 의향 모두 2008년에 2018년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육경험자의 경우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의향이 교육비 경험자에 비해 4배 정도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문화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제한 요인으로는 관심 프로그램 부족(41.1%), 시간 부족(25.8%), 경제적 부담(11.4%) 순으로 조사됨(2012년 기준).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경험율	8.6%	9.2%	8.7%	6.9%	10.6%	11.2%
참여 의향	21.5%	16.6%	25.2%	25.9%	25.2	27.0

【표 6】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율과 참여 의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 p.13



【그림 8】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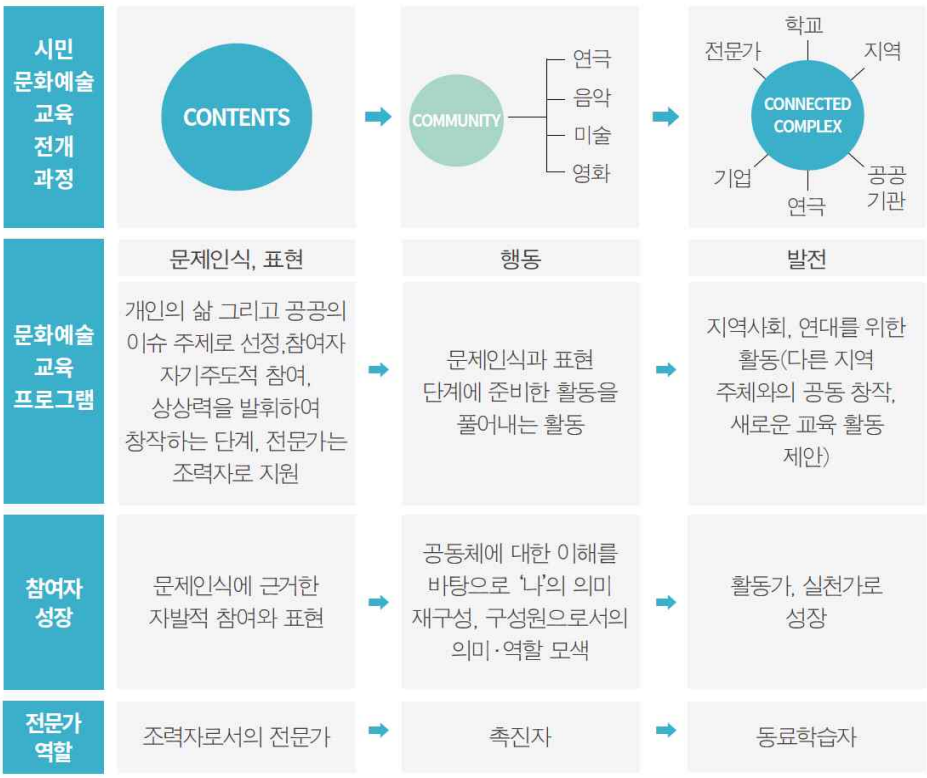
4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12-13.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대상의 확대와 지원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역할의 변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인 흥미 혹은 특정 프로그램(contents)에만 집중하는 기존 문화예술교육과 비교할 때, 개인을 넘어 공동체(community)의 의미를 찾게 되고, 공동체 혹은 더 넓은 사회와의 연계(connected complex)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개됨.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콘텐츠에서 공동체로, 또 더 넓은 사회와의 연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참여시민은 단순한 문화 향유자를 넘어 보조자와 실천가로 성장하고, 전문가는 조력자에서 동료 학습자로 성장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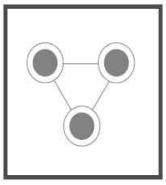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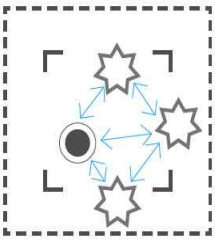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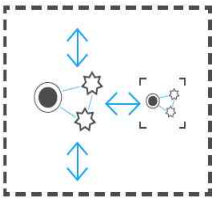


【그림 9】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과정(3Cs), 프로그램, 참여자 및 전문가 역할의 변화

출처: 강인애, 이광준, 이영범, 장대철(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연계 사업성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여기서는「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5. 재인용함.

○ 네트워크형 거점 공간

- 시민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콘텐츠 중심의 활동에서 공동체 중심의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시 프로그램형 공간에서 플랫폼형 공간, 네트워크형 공간으로 변화함. 공간운영주체가 기획자에서 시민과 지역단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간의 성격 또한 교육의 장에서 협력의 장으로 확장됨.
-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일방적일 경우 공간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바뀌고 학습자가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면 공간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개방적인 커뮤니티형 공간으로 발전하게 됨(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6: 16).
- 교수자가 동료학습자가 되고 참여자가 실천가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간 역시 다양한 주체와 가치가 서로 연계되고 공간을 통해 협력과 공유가 가능해지는 네트워크형 공간으로 진화함.

구분	프로그램형 공간	플랫폼형 공간	네트워크형 공간
	콘텐츠(Contents) 중심	커뮤니티(Community) 중심	연계(Connection) 중심
공간유형			
공간성격	교육장 (공간전용)	사업장 (공간개방)	협력장 (공간연계)
공간운영 주체	기획자	기획자 참여자(시민)	기획자 참여자(시민) 지역단체
프로그램 성격	사용자 학습형 프로그램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사용자 주도형 프로그램
참고	전문가/기획자	(시민)참여자	지역 / 사업단체

【그림 10】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공간분석

출처: 강인애, 이광준, 이영범, 장대철(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연계 사업성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여기서는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6. 재인용함.

○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시도[4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개의 사회적기업과 12개의 시민문화공간을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과정을 병행하였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에 따르면, 3년 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는 새로운 지원 방식의 시도와 운영 주체의 인식 변화임.

2.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 '예술교육'인가, '문화교육'인가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임.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 언급된 '예술교육' 및 '문화교육'의의 정의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고찰해 보아야 함.

○ '예술교육'은 일반적으로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과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 2가지로 나뉨. '예술을 위한 교육'은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예술 그 자체의 전문성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는 '예술지향적' 의미의 교육임.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과 창조적 가능성을 개발해 미적 경험을 갖게 하고, 예술적 표현과 감상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교육을 뜻함. 반면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을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가치로 보는 것으로, 예술을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함. [47]

각각의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예술을 위한 교육'은 '예술창작자(전문가)'를 위한 교육이고,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향유자'를 위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은 '예술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4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13-14.
47) 임연철.박정배(2013), 『예술경영』, 커뮤니케이션북스, p.131.

제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경험과 인식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음. [48]

○ '문화교육'은 독일 문화정책에서 쓰이는 용어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길러주는 교육임. '문화교육'은 삶의 양식, 즉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3세계 이주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감수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문화교육'은 예술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교육'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49]

○ 김세훈(2004)의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에 대해 기존의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필요성에 맞게 새롭게 재규정된 개념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50] 또한, 양현미(2004)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이념으로서 문화교육을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다만 기존의 예술교육이 갖는 장르 중심적 또는 장르 이기주의적 사고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교육방법을 수용하는 개념으로 기술함. 결론적으로 위 두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을 '일반 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독력을 기르는 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함. [51]

○ 양현미(2004)의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임연철·박정배(2013)에 기술된 '예술교육'의 정의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은 '예술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있고,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52]은 '일반 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독력을 계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음. [53]

---

48) 양현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p.
4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1994, 문화연대, 강정숙(독일 뮌헨 교육연구소 정책조정실장) 초청 문화연대 간담회, 2003. 10. 9.
50) 김세훈(200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개요 p.1.
51) 김세훈(2004)의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는 양현미(2004)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화됨.
52) 허버트 리드(Herbert Read)(1943),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53) 양현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

○ 양현미(2004)의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위와 같이 정의하면서도 이를 명확한 개념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힘. '문화예술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표현이며, 해외에서는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예술교육' 대신 '문화예술교육'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예술실기 중심의 기존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화연대의 문제제기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54]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위가 '장르 예술'을 지칭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문화예술교육'은 사실상 '예술교육'에 가까운 용어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당시 문화연대의 문제제기는 '예술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문화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해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2) '예술감상교육'의 정의

○ 윤종필 대표가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서 제시한 '예술감상교육'의 개념은 '예술향유자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원래 예술사조나 예술창작기법에 대한 교육은 '예술가(예술창작자)'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에 해당했음. 하지만 산업화를 거쳐 '문화의 민주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예술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예술가나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에서 모든 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확산됨.

○ 국내에서 지난 20여 년간 붐을 일으킨 서양미술작품 해설교육이나 각종 인문학교육은 이제 예술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점점 그 범위를 넓혀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의 사조와 창작경향, 더 나아가 창작기법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예술창작자(예술전공자)'의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교육이던 '예술을 위한 교육'이 이제는 '일반 시민의 예술적 교양을 넓히기 위한 교육', 즉,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술가들과 소수의 귀족 및 엘리트들에게만 허용되던 '예술적 표현과 감상의 즐거

54) 양현미(2004), 동 연구, p.4~5.

움'은, 산업화 이후 다수의 대중들이 경제개발로 인한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면서 더 이상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음.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공연장들이 관객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예술작품'의 감상을 위한 각종 교육이 보편화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상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의식수준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면서 '예술감상능력'이 '문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예술감상교육'은 '예술작품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통해 문화시민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인식수준을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예술체험을 통해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한 '예술을 통한 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3) '시민문화교육'의 정의

○ 양현미(2004)의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일반 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독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개인의 인격형성과 능력개발의 범주에 국한시키는 한계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을 '창의력'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 · 중 ·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심적으로 수립 · 진행되고 있고,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며, 평생학습으로서 성인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은 미진한 상황임.

○ 김상원 교수가 제안한 '시민문화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문화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삶의 양식으로 문화화시키는 교육'으로 저의할 수 있음. 이는 양현미(2004)의 연구에서 '문화교육'에 대해 '삶의 양식, 즉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감수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것과 맞닿아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의 범위를 보다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김상원 교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로 UN에서 발표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상정하자고 제안하면서, 해당 목표에서 제시한 17개의 핵심목표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수불가결한 삶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삶의 양식’으로 체득화하는 과정, 즉 ‘문화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시민문화교육’이라고 제안함. 즉, ‘문화시민으로써 받아들여야할 궁극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예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해석함. 또한, ‘시민문화교육’의 이행방법으로 ‘궁극적 가치’를 체득화하는 과정, 즉 ‘문화화’를 위해 ‘예술’을 도구화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이는 예술을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예술을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가치로 보는 ‘예술을 통한 교육’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김상원 교수가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문화교육’의 정의는 ‘예술을 통한 시민의 문화화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

Ⅳ.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

1.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인천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대진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개론' 수업의 중간과제로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감상교육' 관련 사례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회를 추진함. 발표한 학생 중 우수사례 3팀에 대해서는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함.

(2)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 내용 요약

No.	소속	발표자	지역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1	인하 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원	이윤선(미술) 김은호(연극) 정민지(연극)	한국 (서울)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일반 시민 및 전공자 등
				㈜아트앤스터디	아트앤스터디 〈예술분야 교양강좌〉 '한국 대중음악사' '클래식, 시대를 듣다'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말과활 아카데미	말과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메두사의 웃음으로 3기 - 여성적 글쓰기는 가능한가?' '낙인찍힌 몸을 넘어서: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읽기'	
2		임지원(연극) 이유경(영화) 이연제(연극)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Drama Class - The Cloth of Dreams : using poetry	저학년 학생
			미국 (텍사스 주 댈라스 시)	SPARK!	SPARK! Summer Camp Build It	청소년 (7~17세)
			영국 (브리스톨)	Brunel Institute	SS Great Britain Trust's project	어린이 및 청소년
			영국 (이스트 미들랜드)	The Spark Arts for Children	The Spark Arts for Children	어린이 및 청소년

No.	소속	발표자	지역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3	대진 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원	박정미(음악) 손서연(연극)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Looking for Change〉	초등학생
4	인하 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원	이예지(연극) 임지영(디자인) 정다슬(연극)	한국 (서울)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2〉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일반인
5		한명희(미술) 임하경(연극) 김아영(연극)	한국	EBS	EBS 인문학 특강 〈거인의 문학, 괴테〉	일반인
			싱가포르	싱가포르 미술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Think contemporary!〉	초등학생, 유치원생
6		김경빈(영화) 김인혜(연극) 주가현(미술)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The Picture in Focus project	중,고등학생
			한국 (전국)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팀	찾아가는 영화관	문화소외계층
			한국 (수원)	수원문화재단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유치부 및 초등학생
7		김봉기(연극) 정유리(연극) 백선희(공예)	한국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감상	직장인, 어린이, 청소년
8		김환희(연극) 이기준(연극)	한국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술관)	수상한 미술관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초등학교 1-3학년 (8세-10세)
9		김배정(연극) 이현주(연극) 박소영(연극)	한국 (서울)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관객참여형 어린이 연극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	초등학생
10		신진아(연극) 오지현(디자인)	한국 (서울)	(주)H&K컨설팅-민간단체	아르떼 노르말 〈리더와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일반인
			한국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 〈유럽 사람들 그림으로 톺아보다〉	일반시민, 대학(원)생 등
11		이은주(연극) 최운정(연극) 최은혜(영화)	한국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영화 리터러시수업 〈모던 타임즈 - 기술과 문명〉	초등학생 및 중학생

【표 8】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 시행내용 요약

2.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결과 분석

(1) 예술감상교육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및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국내외 사례조사를 시행하였음.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교육의 주제와 방법론에 대해 학생들 간에 이해의 편차가 커서 '예술감상교육'에 대한 사례조사결과 또한 범위와 주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음.

○ 사례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음.

1)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예술작품의 사조와 경향, 창작기법을 이해함.
2)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이 제작된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함.
3)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함.
4) 예술작품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배양함.

○ 위의 4가지에 대해 내용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면, 1번 유형은 '예술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고, 2~4번 유형은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볼 수 있음. 1번 유형은 전통적 개념의 '예술이해교육'에 해당하며, 2번과 3번 유형이 윤종필 대표가 제안한 '예술감상교육'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4번 유형은 '예술창작에 대한 체험을 통해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에 해당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술감상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1번 '예술작품의 사조와 경향을 이해하는 교육'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5가지임. 주로 미술작품 감상,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그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고민해 보는 형태의 교육.

○ 2번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분류된 사례는 3가지임. 영국 브리넬 인스티튜트의 〈SS 대영제국호 프로젝트〉는 영국의 유명한 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배의 역사에 담긴 시대상을 이해해 보는 프로그램임. EBS 인문학 특강 〈거인의 문학, 괴테〉는 독일 괴테의 문학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담긴 그 시대 독일의 모습과 당시 독일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상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임. 영화 리터러시 수업 〈모던 타임즈 - 기술과 문

명〉은 찰리 채플린이 제작과 주연을 맡은 영화 〈모던 타임즈〉 작품을 보면서 산업화 이후 위기를 겪는 인간성의 모습을 영화의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No.	구분	팀번호	프로그램명
1	예술작품의 사조와 경향 이해	1번팀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 〈그림속 오페라〉,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아트앤스터디 '예술분야 교양강좌' : 〈한국 대중음악사〉, 〈클래식, 시대를 듣다〉,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4번팀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6번팀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
		7번팀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감상〉
		10번팀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 〈유럽 사람들 그림으로 톺아보다〉
2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	2번팀	영국 브루넬 인스티튜트 〈SS Great Britain Trust's project〉
		5번팀	EBS 인문학 특강 〈거인의 문학, 괴테〉
		11번팀	영화 리터러시수업 〈모던 타임즈 - 기술과 문명〉
3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	1번팀	말과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메두사의 웃음으로 3기 - 여성적 글쓰기는 가능한가?〉 〈낙인 찍힌 몸을 넘어서: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읽기〉
		2번팀	호주 NSW 〈Drama Class - The Cloth of Dreams〉
		5번팀	싱가포르 미술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Think contemporary!〉
		6번팀	영국 내셔널 갤러리 〈The Picture in Focus project〉
4	예술창작과정 참여 또는 예술체험을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배양	2번팀	미국 달라스 〈SPARK! Summer Camp Build It〉
			영국 〈어린이축제 The Spark Arts for Children〉
		3번팀	영국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Looking for Change〉
		6번팀	수원문화재단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8번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수상한 미술관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9번팀	서울문화재단 관객참여형 어린이 연극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
		10번팀	아르떼 노르말 〈리더와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표 9】 예술감상교육의 유형에 따른 사례조사 내용 구분

○ 3번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분류된 사례는 4가지임. '말과활 아카데미'의 인문학강좌는 인간다운 삶의 길을 묻는 인문주의 정신에 근거를 둔 인문, 사회, 비평 이론 강좌를 시행하고 있음. 〈메두사의 웃음으로-여성〉는 엘렌 식수(Helene Cixous), 뤼스 이리가레(Lucs Irigaray),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 차학경(車學慶) 등의 관련 이론을 경유한 후 다양한 텍스트로 여성적 읽기와 쓰기를 시도하면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 여부를 함께 탐색하는 프로그램. 〈낙인찍힌 몸-인권〉은 흑인, 유대인,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이 어떻게 낙인찍히고 인종화되어 왔는지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함께 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 만연한 혐오, 차별 현상을 성찰해보는 프로그램.

○ 호주 NSW 〈Drama Class - The Cloth of Dreams〉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교육부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시행하는 '창의 예술(Creative Arts)' 수업에 대한 내용임. '창의 예술(Creative Arts)' 수업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으며, 그 중 연극수업(Drama Class)에 대한 사례조사를 시행한 내용. 연극수업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대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번 사례조사에서는 이중 Stage 3 단계(초등학교 5~6학년)에서 시행되는 연극수업 〈The Cloth of Dreams : using poetry〉에 대해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유명한 시 〈Cloth of Heavens(하늘나라의 옷)〉을 소재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보서 직접 공연을 해보고 함께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임.

○ 싱가포르 미술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Think contemporary!〉는 미술관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술품을 창작하고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일련의 예술 창작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예술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예술가와 향유자로 성장하게 되는 프로그램. 또한, 미술전시 감상과 더불어 싱가포르 학생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예술 창작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고,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인식하는 계기가 됨.

○ 영국 내셔널 갤러리 〈The Picture in Focus project〉의 사례는 고대 미술작품을 통해 10대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 영국의 자선단체 '스트레이트 토킹'은 10대 어머니들과 젊은 아버지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 청소년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이 단체는 10대의 임신과 일찍 부모가 되어서 겪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와 각종 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 단체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Titian의 미술작품 'Diana and Callisto'을 감상하면서 10대 임신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역사적 회화가 현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음.

○ 4번 '예술창작과정 참여 또는 예술체험을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분류된 사례는 6가지임.

○ 미국 달라스 〈SPARK! Summer Camp Build It〉는 청소년들이 팝 아트 조각상, 3D 동물을 만들고, 스트링 아트에 손을 대고 도시 전체를 짓는 체험을 하게 됨. 독립된 구조물을 설계해 보는 교육으로, 청년년들이 건축물을 체험하고 창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어린이축제 The Spark Arts for Children〉는 매년 열리는 축제, 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작품에서 청중, 참여자, 창조자로서 자신의 기술, 열정,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Looking for Change〉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스스로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 발현을 돕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

○ 수원문화재단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는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을 각색해 보는 연극 놀이프로그램.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독서 활동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연극놀이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협업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프로그램.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시행한 〈 수상한 미술관 -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는 평면의 미술작품을 공간화하여 입체적인 바라보는 시작을 기를 수 있는 건축 미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하나의 미술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까지 구현해보며 입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알아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나'와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서울문화재단 관객참여형 어린이 연극 -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는 어린이들이 연극의 참여자가 되어 직접 극을 이끌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직접 예술가가 되어 공연 속에서 느꼈던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창작활동을 하게 됨. 어린이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작품으로, 아이들이 관람객이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가 되는 프로그램.

○ 아르떼 노르말 〈리더와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은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감상하며 영화 속 리더들의 진정성,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감성 리더십 역량 및 영향력을 직접 관찰하며 감상하고, 성찰하며, 공감하는 프로그램.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성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명의 리더가 발휘하는 감성 리더십을 고찰하여 현업에서의 적용 포인트를 실습해보는 교육.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인천문화재단이 관학 협력프로그램으로 공동 시행한 이번 '예술감상교육' 사례를 통해, '예술감상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은 1번 유형의 '예술이해교육'이나 4번 유형의 '예술체험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2번 유형의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이나 3번 유형의 '예술감상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은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보다 많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3. 예술감상교육 사례조사결과 세부내용

1) 이윤선(미술), 김은호(연극), 정민지(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1. 운영기관 : 예술의전당
2. 프로그램명 :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3. 교육내용 :
   - ❍ '그림 속 오페라' : 유명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오페라를 함께 감상하며 해설
   - ❍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 로코코에서 후기 인상주의까지 미술 사조 해설
4. 교육목표
   - ❍ 〈그림 속 오페라〉 :
   - 시대와 장르를 막론하고 뛰어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동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미술과 오페라를 교차 감상하면서 배울 수 있음.
   - ❍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 연대기적, 단편적인 미술사적 지식 그 너머를 배우는 과정으로, 하나의 예술사조가 어떤 동기와 배경을 수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줌.
5. 프로그램 특장점
   - ❍ 〈그림 속 오페라〉
     - 오페라가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상과 예술 사조 중 미술과의 관련성에 주목
     - 각 강의마다 한 편의 그림과 한 편의 오페라를 선정해서 두 작품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는지, 두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에 어떤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 ❍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 예술과 철학, 논리학, 기호학, 언어학, 역사 등 다양한 인문분야를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서양예술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시도
6. 교육장르 : 미술, 음악
7. 교육대상 : 일반 시민, 전공자, 대학생 등

8. 교육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

9. 교육기간 : 주1회, 총 12강 (매주 수요일, 목요일)

10. 참고사이트 : http://www.sac.or.kr/SacHome/academy/academy

11. 기관소개

❍ 예술의전당은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1) 교　　양 : 인문, 공연&음악감상

2) 실　　기 : 미술실기, 서화

3) 전문인력 : 문화예술 전문인력

4) 어 린 이 : 어린이미술, 어린이여름예술학교, 어린이서화

5) 영　　재 : 음악영재, 미술영재

12. 세부교육내용

❍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 〈그림 속 오페라〉 (수요일 오전)

회차	날짜	주제
1강	9/4	보쉬 '쾌락의 정원' vs 모차르트 '돈 조반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
2강	9/18	다 빈치 '모나리자' vs 구노 '파우스트': 영원한 구원
3강	9/25	뒤러 '자화상' vs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자아의 발견
4강	10/2	카라바조 '살로메' vs R.슈트라우스 '살로메': 치명적 유혹
5강	10/16	반 다이크 '찰스 1세의 초상' vs 벨리니 '청교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6강	10/23	베르메르 '편지 쓰는 여자' vs 차이콥스키 '오네긴': 한없이 투명한 순수
7강	10/30	앵그르 '그랑 오달리스크' vs 비제 '진주조개잡이': 환상 속의 낙원
8강	11/6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vs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혁명의 불길
9강	11/13	마네 '올랭피아' vs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길을 잘못 든 여인
10강	11/20	뭉크 '절규' vs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기괴한 이야기
11강	11/27	고갱 '이아 오라나 마리아' vs 푸치니 '투란도트': 먼 나라의 공주님
12강	12/4	클림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vs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장미향기 나는 종말

강사 소개: 전원경

연세대학교 졸업. 월간〈객석〉의 음악 및 무용 담당 기자 역임

1997년에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예술비평과 예술경영 석사

2013년에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문화정책학 박사

저서『예술, 역사를 만들다』,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등

❍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목요일 오전)

회차	날짜	주제
1강	9/5	로코코Ⅰ; 정의
2강	9/19	로코코Ⅱ; 이념
3강	9/26	신고전주의; 혁명과 예술
4강	10/10	낭만주의Ⅰ; 파토스
5강	10/17	낭만주의Ⅱ; 이성과 감성
6강	10/24	사실주의Ⅰ; 실증주의
7강	10/31	사실주의Ⅱ; 이념의 죽음
8강	11/7	사실주의Ⅲ; 사진기의 문제
9강	11/14	인상주의Ⅰ; 주체의 소멸
10강	11/21	인상주의Ⅱ; 베르그송
11강	11/28	인상주의Ⅲ; 예술의 승리
12강	12/5	후기인상주의 ; 현대의 여명

강사 소개: 조중걸

미국 예일대학원에서 서양예술사와 수리철학 공부. 시카고 대학 강사, 토론토대학 교수 역임

저서『열정적 고전읽기시리즈』(총 10권),『 형이상학적 해명 시리즈(총5권) -고대예술, 중세예술, 근대예술1,2(세종학술대상) 등

(2) 아트앤스터디 〈한국 대중음악사〉, 〈클래식, 시대를 듣다〉,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1. 운영기관 : ㈜아트앤스터디
2. 프로그램명 : 음악 분야 교양 강좌 〈한국대중음악사〉, 〈클래식, 시대를 듣다〉
   미술 분야 교양 강좌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3. 교육내용 :
   - 〈한국 대중음악사〉
     : 한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의 삶과 문화를 이해
   - 〈클래식, 시대를 듣다〉
     : 클래식을 통하여 유럽의 장려한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클래식의 진정한 세계를 성찰하는 기회 제공. 300여 년의 클래식 역사를 당대의 정치, 사상, 문학, 예술, 도시 문화 등과 함께 총체적으로 고찰
     : 클래식을 통해 단순한 음악이 아닌, '시대'를 듣는 강의
   -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 합리성, 과학의 폭력성을 해부하는 강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의 '재현' 개념은 '시간의 개입'에 의해 파괴됨.
     재현을 파괴하는 예술적 시도들을 살펴보는 강의
4. 교육목표
   -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터넷을 토대로 하여 일상에서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네티즌에게 재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6. 교육장르 : 음악 & 미술
7. 교육대상 : 일반 시민, 비전공자, 전공자, 대학생
8. 교육장소 : 온라인 (아트앤스터디 홈페이지)
9. 교육기간 : 〈한국 대중음악사〉 총 16강(16교시), 6시간 08분
   〈클래식, 시대를 듣다〉 총 8강(38교시), 15시간 31분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총 4강(16교시), 8시간 13분
10. 참고사이트 : http://www.artnstudy.com/

11. 기관소개

❍ (주)아트앤스터디는 인문학.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인문학 포털 아트앤스터디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업. [55]

❍ 지난 2001년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철학, 미학, 문학, 영화, 미술, 건축, 사진, 역사 등 인문학과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수준 높은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계의 명망 있는 교수진이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음.

❍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터넷을 토대로 하여 일상에서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네티즌에게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2. 세부교육내용

❍ **〈한국 대중음악사〉**

: 한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

회차	주제
1강	노래 속 도시(1) - 대중가요와 도시
2강	노래 속 도시(2) - 서구로부터 들어온 근대화, 근대화와 동반된 식민지화
3강	노래 속 도시(3) - 근대화의 꿈: 일본에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
4강	노래 속 도시(4) - 소녀, 수동적 여성상의 변형태
5강	노래 속 도시(5) - 1980년대 정태춘의 독특함: 고뇌와 긴장감
6강	대중가요 속의 사물들(1) - 대중가요 속의 사물들
7강	대중가요 속의 사물들(2) - 도시와 서양 이미지의 식물들 증가, 사랑의 비유로서의 장미
8강	대중가요 속의 사물들(3) - 나무와 열차
9강	대중가요 속의 사물들(4) - 민중가요 속의 사물들이 보이는 다양성
10강	노래 속의 여자(1) - 대중가요에서 여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1강	노래 속의 여자(2) - 1980년대 트롯노래의 특징
12강	노래 속의 여자(3) - 변화하는 남성, 지속되는 여성
13강	노래 속의 여자(4) - 소녀, 수동적 여성상의 변형태
14강	노래 속의 여자(5) -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 양희은의 등장
15강	노래 속의 여자(6) - 새로운 여성상의 허와 실
16강	노래 속의 여자(7) - 분노하는 여성상과 언더의 가능성

강사소개 :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 성공회대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논문「1920년대 대중화논쟁 연구」로

55) 아트앤스터디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 : http://www.artnstudy.com/biz/CInfo.asp

석사학위 취득. 1980년대 극단 연우무대, 최초의 노래운동 단체 '새벽' 회원, [노래]의 동인, 민족극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의 마당극과 민중가요를 발로 찾아다니는 등 진보적 예술문화운동 및 비평활동을 해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연극과 마당극, 대중가요, 북한 공연예술 등을 주제로 다수의 저서 출간. 현재 성공회대 겸임교수.

❍ 〈클래식, 시대를 듣다〉

- '클래식'은 역사이며, 시대가 압축되어 있는 '역사의 장'
- 클래식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악이 입체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선 환영, 혹은 비밀'을 경험하는 것
- 갖가지 악기들이 어우러진 조화로움 속에는 당대의 가치관과 풍토, 열망, 문화, 그리고 그에 치열하게 반응했던 음악가의 희열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

회차	주제
1강	**바흐,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꿈** 1교시 - 중세의 가을, 그 내면 풍경 2교시 - 300년 전의 유럽 3교시 - 비발디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 4교시 - 바흐의 생애와 음악 I 5교시 - 바흐의 생애와 음악 II
2강	**개인의 탄생과 혁명의 음악** 1교시 - 모차르트, 개인의 탄생 I 2교시 - 모차르트, 개인의 탄생 II 3교시 - 베토벤, 고뇌를 넘어 환희로 4교시 - 베토벤, 혁명의 시대와 음악의 혁명 5교시 - 베토벤, 불멸성의 기이한 연주
3강	**슈베르트 - 좌절된 꿈과 내적 망명** 1교시 - 비더마이어 시대와 유럽 시민사회 2교시 - 슈베르트와 낭만주의 3교시 - 19세기 낭만주의의 특징 4교시 - 슈베르트 이후, 음악의 풍경 I : 쇼팽과 리스트 5교시 - 슈베르트 이후, 음악의 풍경 II : 감정의 리얼리즘
4강	**민족주의 시대의 예술가들 - 차이콥스키를 중심으로** 1교시 -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대립

회차	주제
	2교시 - 음악적 변방의 민족주의와 낭만, 필란드의 시벨리우스와 노르웨이의 그리그 3교시 - 장영주, zigeunerweisen, 그리그, 시벨리우스 4교시 - 러시아와 차이코프스키 5교시 - 민족적인 음악이 세계적인 음악으로 인정받는 이유
5강	**제국의 역습 - 브람스 대 바그너** 1교시 - 19세기 중엽의 사회상과 음악 I 2교시 - 19세기 중엽의 사회상과 음악 II 3교시 - 베르디 4교시 - 바그너 5교시 - 브람스
6강	**근대 유럽의 붕괴 - 말러와 세기말 비엔나** **: 근대 유럽사회의 붕괴와 세기말의 음악 - 말러** 1교시 - 말러, 아르누보의 풍경들 2교시 - 말러, 세기말과 오리엔탈리즘 3교시 - 유럽 시민사회의 붕괴 4교시 - 말러, 세기말, 벨 에포크
7강	**세계대전,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관통한 예술가들** **: 세계대전과 나치즘이 음악에 미친 영향들** 1교시 - 파괴된 시대의 파괴된 언어 : 나치 I 2교시 - 파괴된 시대의 파괴된 언어 : 나치 II 3교시 - 스탈린 시대의 예술가 :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4교시 - 쇼스타코비치, 실험의 연속
8강	**현대 세계의 불안과 현대음악 : 20세기 불안한 현대사회의 반영** 1교시 - 20세기 중엽 이후의 음악 2교시 - 현대의 불안과 불만 3교시 - 비동시성에서 동시성의 세계로 4교시 - 애이불비(哀而不悲), 그 연대를 위하여 I : 디아스포라 5교시 - 애이불비, 그 연대를 위하여 II : 한국음악가들과 국악에 관해

강사소개 : 정윤수 (문화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문화사회학을 전공. 문화비평지 [계간 리뷰]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논설위원 및 문화스포츠 담당 편집위원(2003년), 인문예술단체 '풀로엮은집'의 사무국장(2005년), 서울시 문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

축구 칼럼니스트이자 문화평론가인 그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씨네21],

[월간 음악] 등에 오랫동안 클래식을 포함한 인문 예술 전반에 걸쳐 비평과 칼럼을 써 옴. 성공회대학교 및 여러 기관과 교육 단체에서 10년 이상 클래식 강좌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 〈근대의 시선, 시선 속 근대〉

근대의 시선, 근대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지닌 폭력성을 고찰하는 강의 근대의 이면으로서의 이성의 폭력성을 성찰해 보는 내용

회차	주제
1강	세 스페인인: 중세의 가을과 근대성이라는 에피스테메 1교시 - 어떻게 중세의 통합적이며 정태적인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엘 보스코] 2교시 - 어떻게 한 인간은 인식론적 붕괴에 복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3교시 - 이를 대체할 인식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벨라스케스]-1 4교시 - 이를 대체할 인식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벨라스케스]-2
2강	국가의 시선과 개인의 내면 — 바로크 1교시 - 근대 인식론으로서의 치아로스큐로(chiaroscuro)와 대위법 [카라바지오 & 바하] 2교시 - 개인의 내면의 발견 [렘브란트] 3교시 - 국가의 시선과 정치의 탄생 [마키아벨리]-1 4교시 - 국가의 시선과 정치의 탄생 [마키아벨리]-2
3강	혁명과 시 — 낭만주의적 진실과 사실주의적 진실 1교시 - 혁명의 낭만성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고야 & 베토벤] 2교시 - 사실주의는 사실적인가? [쿠르베] 3교시 - 낭만적 재현과 사실적 허구 [횔덜린]-1 4교시 - 낭만적 재현과 사실적 허구 [횔덜린]-2
4강	사실과 재현, 그 불가능성 1교시 -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불가능한 결합 [마네 & 마르크스] 2교시 - 낭만적 진실의 불가능한 추구 [모네 & 니체] 3교시 - 사실과 재현을 넘어? [다다]-1 4교시 - 사실과 재현을 넘어? [다다]-2

강사소개 : 오경환 (성신여대 교수)

해밀턴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마쳤다. 2009년부터 성신여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편으로 팟캐스트 “살롱 안드로메다: small talk 인문학”을 꾸려가고 있음. 『가난의 과학: 19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풍경』의 저자이며 함께 쓴 책으로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등이 있음.

(3) 말과활 아카데미

1. 운영기관 : 말과활 아카데미
2. 프로그램명 : 〈메두사의 웃음으로 3기-여성적 글쓰기는 가능한가?〉,
   〈낙인찍힌 몸을 넘어서: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읽기〉
3. 교육내용 :
   - 〈메두사의 웃음으로 3기〉 : 문학작품을 읽고 직접 글을 써보는 프로그램
   - 〈낙인찍힌 몸〉 :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보면서 인종에 대한 성찰을 하는 강의
4. 교육목표
   - 인간다운 삶의 길을 묻는 인문주의 정신에 근거를 둔 인문. 사회, 비평 이론과 창작, 언어, 영화와 회화 등 예술이론과 실기 강좌 등을 기획하고 실행
5. 프로그램 특장점
   - 〈메두사의 웃음으로-여성〉: 정의하기도, 틀에 가두거나 정형화할 수도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존재할 여성적 글쓰기에 관한 강좌로 높은 동시대성이 특장점
   - 엘렌 식수(Helene Cixous), 뤼스 이리가레(Lucs Irigaray), 모니크 위티그(Monique Wittig), 차학경(車學慶) 등의 관련 이론을 경유한 후 다양한 텍스트로 여성적 읽기와 쓰기를 시도하면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 여부를 함께 탐색함.
   - 〈낙인찍힌 몸-인권〉: 흑인, 유대인,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이 어떻게 낙인찍히고 인종화되어 왔는지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함께 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곳곳에 만연한 혐오, 차별 현상을 성찰해보는 기회 제공
6. 교육장르 : 인문학
7. 교육대상 : 일반 시민, 전공자, 대학생 등
8.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36, 3층
9. 교육기간 :
   - 〈메두사의 웃음으로 3기〉 : 2019.10.16. ~ 12.18. (매주 수요일)
   - 〈낙인찍힌 몸〉 : 2019.9.9. ~ 10.14. (매주 수요일)
10. 참고사이트 : http://wordnbow.net/
11. 기관소개
    - 〈말과활 아카데미〉는 인문 비평지 〈말과활〉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56]
    - 인간다운 삶의 길을 묻는 인문주의 정신에 근거를 둔 인문 · 사회, 비평 이론과

56) 말과활 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소개글 : http://wordnbow.net/?page_id=24

창작, 언어, 영화와 회화 등 예술 이론과 실기 강좌 등을 기획 · 실행하고 있음.

12. 세부교육내용

❍ 〈메두사의 웃음으로-여성〉

- 현재 글쓰기의 여성적 실천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실천을 이론화할 수도, 그것을 가두고 정형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불가능은 지속될 것이다.
- 이것이 여성적 글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 중심적 체제를 지배하는 담론을 넘어설 것이다.
- 여성적 글쓰기는 철학적-이론적 지배에 종속된 영토가 아닌, 그 이외의 곳에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Hélène Cixous, 「Sorties」에서).
- 정의하기도, 틀에 가두거나 정형화할 수도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존재할 여성적 글쓰기에 관한 열린 강의.

〈1강 오염된 언어와 슬픔의 식민지〉

읽기: 오드리 로드, 「생존을 위해 이어가는 기도」와 그웬돌린 브룩스, 「키치네트 빌딩」

쓰기: 존재하기와 생존하기

〈2강 그 언어와 여성의 언어〉

읽기: 타와다 요코, 『목욕탕』 쓰기: 실패의 의지로 자유롭게

〈3강 내파하는 세계〉

읽기: 샬럿 퍼킨스 길먼, 「누런 벽지」 쓰기: 모종의 파열과 결락의 순간

〈4강 연결되는 악몽〉

읽기: 조이스 캐럴 오츠, 「흉가」 쓰기: 돈을 꾸듯 꿈을 꾸는

〈5강 중간 합평〉

〈6강 정체성의 콜라주〉

읽기: 차학경, 『딕테』 쓰기: 훼손하고 오염시키거나 덮어 쓰기

〈7강 은유의 은유로서의 존재〉

읽기: 옥타비아 버틀러, 「특사」 쓰기: 누가 인간인가?

〈8강 세계의 탄생을 목격하는 사랑〉

읽기: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쓰기: 그리고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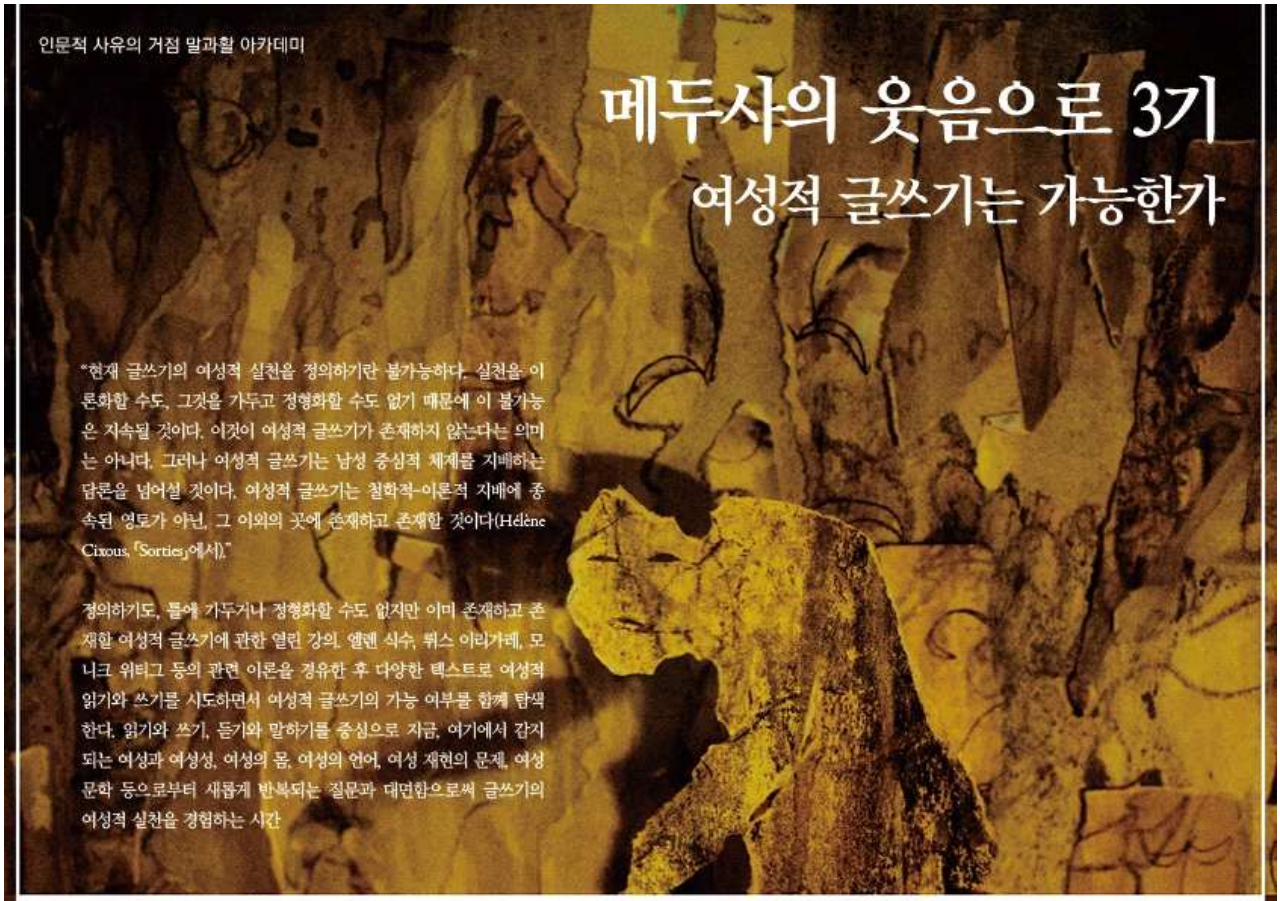
〈9강 여성적 운명의 공간〉

읽기: 도리스 레싱, 「19호실로 가다」와 「방」 쓰기: 창조적 산실 / 폐쇄적 무덤

〈10강 합평〉

강사 소개: 김지승

비영리 단체의 매체 기획자, 에디터 겸 필자로 일하며 아이,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 워크숍 기획과 교육을 진행해 옴. 저서로 『인간의 두 얼굴』, 『아홉 개의 발자국』(공저), 『왓더북』(공저), 『감정 노트북』, 『100세 수업』 등이 있음.



1강 오염된 언어와 슬픔의 식민지
읽기: 오드리 로드, 「생존을 위해 이어가는 기도」, 그웬돌린 브룩스, 「키치네트 빌딩」
쓰기: 존재하기와 생존하기

2강 그 언어와 여성의 언어
읽기: 타와다 요코, 「목욕탕」
쓰기: 실패의 의지로 자유롭게

3강 내파하는 세계
읽기: 샬럿 퍼킨스 길먼, 「누런 벽지」
쓰기: 모종의 파열과 결락의 순간

4강 연결되는 악몽
읽기: 조이스 캐럴 오츠, 「흉가」
쓰기: 돈을 꾸듯 꿈을 꾸는

5강 중간 합평

6강 정체성의 콜라주
읽기: 차학경, 「딕테」
쓰기: 훼손하고 오염시키거나 덮어 쓰기

7강 은유의 은유로서의 존재
읽기: 옥타비아 버틀러, 「특사」
쓰기: 누가 인간인가?

8강 세계의 탄생을 목격하는 사랑
읽기: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쓰기: 그리고 에도

9강 여성적 운명의 공간
읽기: 도리스 레싱, 「19호실로 가다」와 「방」
쓰기: 창조적 산실 / 폐쇄적 무덤

10강 합평

강사: 김지승
비영리 단체의 매체 기획자, 에디터 겸 필자로 일하며 아이,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 워크숍 기획과 교육을 진행해 왔다. 저서로 『인간의 두 얼굴』, 『아홉 개의 발자국』(공저), 『왓더북』(공저), 『감정 노트북』, 『100세 수업』 등이 있다.

일 정: 10.16 - 12.18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장 소: 말과활아카데미 (마포구 성지길 36,3층)
수강료: 30만원 (말과활아카데미 CMS회원 24만원)
문 의: 02-3144-3971 / word-bow@naver.com

❍ 〈낙인찍힌 몸-인권〉

- “인종은 없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한 말처럼 호모 사피엔스 단일 종 인류의 인종 분류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기 어려운 개념이며,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인종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일까?
- 이 강의에서는 흑인, 유대인,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이 어떻게 낙인찍히고 인종화되어 왔는지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함께 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 만연한 혐오, 차별 현상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1강 인종에 갇힌 몸들과 백인우월주의〉

〈2강 누가 ‘흑인’인가? - 다큐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 함께 보기〉

〈3강 여성 노예는 말할 수 있는가?: 교차성 페미니즘으로 읽는 흑인 여성의 몸〉

〈4강 ‘혐오스러운 몸’에서 ‘강인한 육체’로: 유대인과 인종주의〉

〈5강 베일 안과 밖, 그리고 문화정치 - 영화 〈페르세폴리스〉 함께 보기〉

〈6강 한국에서 다양한 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 다큐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함께 보기〉

강사소개: 염운옥

고려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며 역사 속의 몸, 몸의 이동으로서 이주, 몸과 인종주의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음.. 지은 책으로 《낙인찍힌 몸: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몸으로 역사를 읽다》(공저), 《대중독재와 여성》(공저) 등이 있음.

낙인찍힌 몸

낙인찍힌 몸을 넘어서: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읽기

"인종은 없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한 말처럼 호모 사피엔스 단일 종 인류의 인종 분류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기 어려운 개념이며,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인종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일까? 인종주의란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 타자를 측정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근대 인종주의는 눈에 보이는 '외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상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19세기 고전적 인종주의가 다양한 차이를 지닌 인간의 몸을 피부색과 두개골의 특징으로 환원해 분류하고 낙인찍고 지배하는 '생물학적 인종주의'였다면, 20세기 중반 등장한 '신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는 종교와 문화의 요인이 덧붙여진 개념이다. 이 강의에서는 흑인, 유대인, 무슬림, 이주민, 난민 등이 어떻게 낙인찍히고 인종화되어 왔는지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함께 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 만연한 혐오, 차별 현상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1강(오픈 특강) 인종에 갇힌 몸들과 백인우월주의
2강 누가 '흑인'인가? – 다큐 〈아이 엠 낫 유어 니그로〉 함께 보기 (7시 시작)
3강 여성 노예는 말할 수 있는가?: 교차성 페미니즘으로 읽는 흑인 여성의 몸
4강 '혐오스러운 몸'에서 '강인한 육체'로: 유대인과 인종주의
5강 베일 안과 밖, 그리고 문화정치 – 영화 〈페르세폴리스〉 함께 보기 (7시 시작)
6강 한국에서 다양한 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 다큐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함께 보기

강사: 염운옥

고려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며 역사 속의 몸, 몸의 이동으로서 이주, 몸과 인종주의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낙인찍힌 몸: 흑인에서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몸으로 역사를 읽다》(공저), 《대중독재와 여성》(공저) 등이 있다.

일시: 9.9-10.14 매주 월요일 저녁 7:30 (2강,5강은 7시)
장소: 말과활 아카데미 (마포구 성지길 36,3층)
수강료: 10만원 (말과활 아카데미 CMS회원 8만원)
문의: 02-3144-3971 / word-bow@naver.com

2) 임지원(연극), 이유경(영화), 이연제(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Drama Class - The Cloth of Dreams: using poetry〉

1. 운영기관 : 호주 NSW Department of Education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교육부)
2. 프로그램명 : Drama Class - The Cloth of Dreams : using poetry
   〈드라마 클래스 - 꿈의 옷장 : 시를 이용하기〉
3. 교육내용 :
   - ❍ 시를 기반으로 연극을 만들고, 발표하고, 감상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
     -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확장
     -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학의 요소를 다루게 됨
     - 움직임과 언어 능력의 강화와 확장을 보여주기
     - 문학을 통해 비판적으로 평가
     -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향상시킴
4. 교육목표
   - ❍ 다양한 예술 형태를 발견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움
   - ❍ 예술 수업을 통해 문화와 공동체에 대해 배우는 시간
5. 프로그램 특장점
   - ❍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대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6. 교육장르 : 연극
7. 교육대상 : 초등학생
8. 교육장소 : 초등학교
9. 교육기간 : 학교 수업 시간
10. 참고사이트 :
https://education.nsw.gov.au/teaching-and-learning/curriculum/key-learning-areas/creative-arts/creative-arts-es1-3/drama
11. 기관소개
   : 호주 NSW 교육부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학생들의 공교육을 운영하는 주정부 기관

12. 세부교육내용

❍ 호주 NSW(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가 초등·중등학교 의무교육기간이고, 11~12학년은 후기 중등 교육기간(대학진학 준비교육기간)임.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는 모든 교과목을 의무과목으로 시행하며, 7~10학년에서는 '기술'과 '창의예술' 등의 교과목에서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짐. [57]

교육과정 단계	학제	학년	교육과정명
Early Stage 1	유치원	K	Early Child
Stage 1	초등학교	1~2학년	Primary
Stage 2		3~4학년	
Stage 3		5~6학년	
Stage 4	고등학교	7~8학년	RoSA
Stage 5		9~10학년	
Stage 6		11~12학년	후기 중등 과정(HSC)

【표 17】 호주 NSW의 학제별 교육과정 및 단계

Grade / Subject	Kindergarten ~ Year 6 (Early Stage 1 ~ Stage 3)	Year 7 ~ Year 10 (Stage 4 ~ Stage 5)
English(영어)	English(영어)	
Math(수학)	Math(수학)	
Science(과학)	Science & Technology (과학 & 기술)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Technology (의무과목)
		Agricultural Technology(농업기술)
		Design and Technology(디자인&기술)
		Food Technology (식품공학)
		Graphics Technology (그래픽 기술)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
		Marine and Aquaculture Technology (해양 및 양식 기술)
		Textiles Technology (섬유 공학)
HSIE(Human Society and its Environment) (인간사회와 환경)	History(역사)	History(역사)
		Geography(지리)
	Geography(지리)	Aboriginal Studies(호주 원주민 역사)
		Commerce(상업)
		Work Education(직업교육)
Creative Arts (창의예술)	Creative Arts (창의예술)	Dance(무용)
		Drama(연극)
		Music(음악)
		Photographic & Digital Media (사진 & 디지털 미디어)
		Visual Arts(시각예술)
		Visual Design(디자인)
PDHPE (Personal Development,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인성개발, 보건과 체육)	PDHPE	
	-	Child Studies (아동학)
		Physical Activities and Sports Studies (체육활동 및 스포츠)
Languages(언어)	17 Foreign Languages (17개의 외국어)	

【표 18】 호주 NSW 공교육 과정에서 학년별 교과목

57) 교육부(20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손민호 외 4인, p.62~75.

❍ 사례조사에서 다룬 연극수업(Drama Class)은 호주 NSW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창의 예술(Creative Arts)' 수업의 하나임.

❍ '창의 예술' 수업은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시행되며,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는 1과목(의무과목), 7~10학년에는 6과목(선택과목)이 운영됨.

· 유치원~6학년 : 1과목 안에 4가지 장르 운영

Dance(무용), Drama(연극), Music(음악), Visual Arts(미술)

· 7학년~10학년 : 세부장르를 각각의 선택과목으로 운영 (6과목)

Dance(무용), Drama(연극), Music(음악), Photographic & Digital Media(사진 & 디지털 미디어), Visual Arts(미술), Visual Design(디자인)

❍ '창의 예술' 수업은 학생들이 중요한 문화 생산자 및 소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험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기술을 경험하고 개발하며, 자신감 있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됨. [58]

❍ '창의 예술' 수업은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표현형태, 아이디어, 가치관을 탐구하고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수업. 창작, 공연, 감상을 통해 예술세계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59]

❍ '창의 예술' 수업의 한 과목인 연극수업(Drama Class)은 제작(Making), 실연(Performing), 감상(Appreciating)의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연극에 대한 지식, 기술, 이해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됨. [60]

· 제작(Making) : 역할을 맡아 연극적 요소를 갖춘 상상적 상황을 만들어 내며,

· 실연(Perfroming) : 연극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연기하고.

· 감상(Appreciating) : 자신과 다른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경험.

❍ 제작(Making)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역할 놀이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줌. 여기에는 극적인 긴장, 대조, 상징, 시간, 공간, 초점과 무드

---

58)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홈페이지 Creative Arts 설명 페이지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wps/portal/nesa/k-10/learning-areas/creative-arts

59)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홈페이지 Creative Arts 브로슈어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wps/portal/nesa/k-10/learning-areas/creative-arts/creative-arts-k-6-syllabus

60)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홈페이지 Creative Arts 브로슈어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wps/portal/nesa/k-10/learning-areas/creative-arts/creative-arts-k-6-syllabus

의 요소를 다음의 극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

●즉흥연기(improvisation) ●동작(movement) ●마임(mime)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독자극장(reader's theatre)

●인형극(puppetry) ●가면(mask)

●비디오 드라마(video drama) ●연극 보여주기(play building)

❍ 실연(Performing)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또래와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실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줌.

❍ 감상(Appreciating)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보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생하고 극적인 작품들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

【 학습사례 : Stage 3 - The cloth of dreams 】

학생들은 시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W.B.예이츠의 '천국의 옷장'이라는 시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개발하고 선보인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예이츠의 "천국의 옷장"이라는 시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개발하고 선보이면서 그 시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시행한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

• 역할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확장
•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 요소 조작
• 이동 및 언어 기술의 통합 및 확장 표시
• 드라마를 비판적으로 평가

드라마를 통해 시의 이해와 감상 강화

드라마 형식 : • 즉흥 연주 • 독자의 극장

〈 학습자료 : W.B. Yeats (W.B.예이츠) - 하늘나라의 옷 (Cloths of Heaven) 〉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s,
Enwrought with golden and silver light,
The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s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light,
I would spread the cloths under your feet;
But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학습활동〉 (Learning activities)

〈시작하기〉 (Getting started)

1)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드라마 수업을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함께 테이프로 붙인 큰 차트 용지 시트, 알루미늄 호일, 금색 종이, 실, 페인트, 크레이프 종이 롤, 페인트, 접착제, 반짝이 등의 재료를 나누어 준다. 첫번째 그룹은 그들의 꿈의 천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천국의 천을 건설하는 것이다.

2) 그룹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시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한다. (예: 황금빛과 은빛으로 물든 천과 꿈의 천) 예술작품이 완성되면, 그 시를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읽어준다. 다시 읽으려면 몇 명의 학생을 선택한다.

3)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그 시의 의미를 논한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 작가가 왜 썼을까? 언제 쓰였을까?

〈상황에서의 역할 수행, 드라마 개발 및 공연〉
(Taking on roles in situations, developing drama & performing)

1)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시를 낭독할 인물을 만든다. 등장인물에 책임감을 부여해라.

2) 그룹은 캐릭터와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각 그룹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정지된 순간을 표현한다. 그룹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그 시의 말을 대본의 일부로 포함시키려고 한다.

3) 벽에 '하늘의 천'을 배경으로 핀을 꽂고, 꿈의 천을 각 그룹에게 차례로 건네 주어 함께 작업한다.

4. 각 그룹은 배경과 꿈의 천, 시를 이용하여 다른 반 학생들에게 즉흥 연주를 제시한다.

〈응답하기〉 (Responding)

그 시에 대한 각 그룹의 해석을 논하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드라마 저널에 쓰세요.

〈학생평가〉 (Assessment of students)

• 학생들의 드라마 작업과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관찰한다.
• 학생들의 구술 및 서면 논평과 드라마 작업에 대한 기타 반응을 분석한다.
• 학생들의 드라마 학습에 대한 다음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o 역할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소리와 제스처를 사용하여 역할을 특징짓고 전달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고 도전적인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o 학생들이 작품에서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 요소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들의 일에 있어서 기분, 집중력, 대비, 긴장감은 어떻게 발전되고 이용되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모색되고 있는가? 그들의 작품에서 기호의 사용이 어떻게 더 명백해지고 있는가?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o 어떤 움직임과 언어 능력이 수행함에 따라 통합되고 확장되고 있는가? 어떤 움직임과 언어 능력이 더 발전해야 하는가?

o 그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들은 드라마 경험을 통해 또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 기타 학습에 대한 다음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o 드라마 작업이 학생들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

〈연장활동〉 (Extension activities)

꿈의 천을 바탕으로 한 전 계급 이동 작업을 전개한다. 큰 천 조각으로 실험하여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고 조각의 상징과 초점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꿈에 대한 시를 쓴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학생들과 함께 즉흥연주, 동작, 독자의 극장을 통해 이러한 텍스트 주변의 공연 작품을 개발하십시오.

NSW Education Public Schools

Elements of drama

Atmosphere
The feeling or mood created by the dramatic action.

Audience Engagement
The actor-audience relationship.

Focus
The frame directing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 between performers. It is also the concentration and belief of the performer.

Language
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 on the stage.

Moment
The control & manipulation of tempo in the main dramatic moments.

Movement
Movement dictates situations, roles and relationships through physical action.

Place
Where the action occurs.

Rhythm
Manipulation of timing through pace and tempo.

Role & Character
Role: The point of view and values of a character. Character: Their personality, background & motivation.

Situation
The circumstances the characters are in.

Sound
Aural devices that enhance the performance by building tension.

Space
The shape of the stage/performance space & use of the spatial design between performers & the audience.

Structure
The framework the content is presented through.

Symbol
Meaning created through symbols via language, movement, gesture, objects, design and staging.

Tension
The force that engages the performers & the audience.

Time
The period in which the dramatic action occurs.

(2) 미국 텍사스 주 댈라스 : SPARK! Summer Camp Build It

1. 운영기관 : DALLAS CITY & SPARK! (비영리법인)
2. 프로그램명 : SPARK! Summer Camp Build It
3. 교육내용 :
   - ❍ 청소년들이 달라스의 건축물을 직접 체험하고 손으로 경험한 건축물을 만들어보는 교육
   - ❍ 청소년들이 문화 시설을 다양하게 즐기고, 각 주마다의 특성이나 특징이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해 지역을 알리는 프로그램
   - ❍ 청소년들이 달라스의 건축물(공원, 박물관, 레크레이션 센터, 도서관, 교회 등)을 관람한 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4. 교육목표
   - ❍ 모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아이들의 생각, 느낌을 각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표현방법 역량 강화
   - ❍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제고
   - ❍ 도시 내 보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환경 확장
5. 프로그램 특장점
   - ❍ 아이들의 창의성에 불을 붙이고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학습, 캠프, 방과후 프로그래밍, 주말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음.
   - ❍ 캠핑 참여자들은 팝 아트 조각상, 3D 동물을 만들고, 스트링 아트에 손을 대고 도시 전체를 짓는 체험을 하게 됨. 독립된 구조물을 설계해 보는 기회 제공
6. 교육장르 : 건축
7. 교육대상 : DALLAS에 거주하는 7~17세 청소년
8. 교육장소 : SPARK!
9. 교육기간 : 2018.08.06.~2018.08.16.
10. 참고사이트 :
    - ❍ https://dallascityoflearning.org/workshop-detail?id=42142
    - ❍ http://sparkdalla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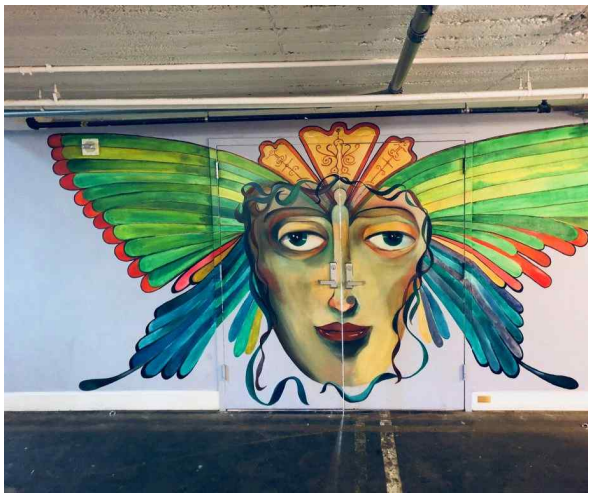
11. 기관소개

❍ ‘SPARK!’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이 창의력을 탐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임.

❍ 창의적인 프로그래밍과 결합하여 마음을 고무시키고 자신감을 형성하며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음.

12. 세부교육내용

❍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건축물을 직접 체험하고 손으로 경험한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시행



(3) 영국 브루넬 인스티튜트 〈SS Great Britain Trust's project〉

1. 운영기관 : Brunel Institute
2. 프로그램명 : SS Great Britain Trust's project
3. 교육내용 : 어린이와 가족이 지역 사회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교육목표
   - ❍ 어린이들이 배를 건조한 Brunel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배우고, 독창적인 천재가 된 Brunel의 기술과 속성을 탐구하는 기회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배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배의 건조와 사용역사에 대해 배우는 경험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
6. 교육장르 : 시각예술
7. 교육대상 : 어린이·청소년
8. 교육장소 : Great Western 조선소
9. 교육기간 : 상시 운영
10. 참고사이트 :

Brunel Institute : http://www.ssgreatbritain.org/brunel-institute/

11. 기관소개 : Brunel Institute [61]
   - ❍ 'SS 대영제국호'는 1843년에 브루넬에 의해 건조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 중의 하나임. 1855년에 퇴역했으며, 1937년에 침몰됨. 1970년에 선박을 인양하여 브리스톨 선착장으로 이동됨. 이후 선박 박물관으로서 명소가 됨.
   - ❍ 브루넬의 공학적 걸작인 'SS 대영제국호'와 함께 브루넬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해양 수집품 중 하나를 소장하고 있음. 브루넬 연구소는 'SS 그레이트브리튼 트러스트'와 브리스톨 대학교 사이의 협력사업으로 설립됨.
   - ❍ 브루넬 연구소를 찾은 방문객들은 보관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데이비드 맥그리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여기에는 저명한 해양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그리거의 컬렉션과 국립 브루넬 컬렉션이 포함됨.
   - ❍ 6,500권의 해양 서적, 선박 건조 계획 7,300건, 100척의 배 모형, 해상 사진 엽서 35,000장, 'SS 대영제국호'의 승객과 승무원들에 관한 일기와 친서, 50편이 넘는 역사적인 해양선박 영화, 기타 수백 점의 예술 작품 보유

61) 브루넬 인스티튜트 홈페이지 : http://www.ssgreatbritain.org/brunel-institute/about

12. 관련 사진

(4) 영국 The Spark Arts for Children 〈The Spark Arts for Children〉

1. 운영기관 : The Spark Arts for Children
2. 프로그램명 : The Spark Arts for Children
3. 교육내용 : 어린이를 위한 고품질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예술축제와 프로그램 제공
4. 교육목표
   - ❍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교육하는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작업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연례 축제, 문화 교육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의 발표 및 작품 제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기술, 열정 및 잠재력을 발견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 매년 열리는 축제, 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작품에서 청중, 참여자, 창조자로서 자신의 기술, 열정,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6. 교육장르 : 공연예술
7. 교육대상 : 어린이·청소년
8. 교육장소 : The Spark Arts for Children (비영리법인)
9. 교육기간 : 상시 운영
10. 참고사이트 : https://thesparkarts.co.uk/
11. 기관소개 : The Spark Arts for Children [62]
    - ❍ 영국 레스터시의 문화 구역 중심부에 위치한 LCB 디포(Leicester City Council for Creative Industries)에 기반을 둔 아동 예술 조직.
    - ❍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술, 열정,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 예술 축제를 조직하며, 레스터의 어린이들이 풍부하고 모험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활동을 수행함.

62) 더 스파크 아츠 홈페이지 : https://thesparkarts.co.uk/about

12. 관련 사진

2020 Festival Events

Type: - Type - Filter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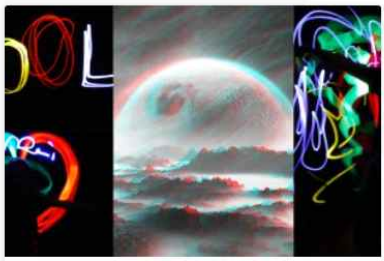
Raised Eyebrows Theatre presents...

Charmane

A story about acceptance, courage and learning how to find your inner ROAR!

Dates: Thu 13 Feb

Age: 5+ years



Workshop

Digital Art / 3D Art

Create digital art and make a 3D portrait.

Dates: Sat 15 Feb

Age: 8 - 15 years

Family Event

Drawn Together

A weekend of shape-based fun, drawing pictures, making sculptures and playing games.

Dates: Sat 15 & Sun 16 Feb

Age: See info

Family Event

Festival Family Takeovers

What happens when we hand over the Festival to the imagin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Find out at the Festival Takeovers.

Dates: Sat 15 Feb, Sun 16 Feb

Performance

Arun Ghosh group presents...

IndoJazz

A fantastic live experience of world-class music.

Dates: Sat 15 Feb

Age: 5+ years

Performance

Reckless Sleepers presents...

It's Hot, It's Not

A surreal and funny celebration of climatic elements.

Dates: Tue 11 & Wed 12 Feb

Age: 2 - 5 years

Workshop

Life Lines

A life drawing class with a difference.

Dates: Sun 16 Feb

Age: 5 - 11 years

Performance

The Underground Creatives present...

Mr Swing & the Beat Rangers

A musical journey through different cultures and genres of music.

Dates: Sat 15 Feb

Age: 6+ years

Workshop

Music Production / Turntablism

Learn how to mix music, spin turntables, and make loops to create your own beats and tracks.

Dates: Sat 15 Feb

Age: 8 - 15 years

3) 박정미(음악), 손서연(연극)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Looking for Changes〉

1. 운영기관 :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2. 프로그램명 :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Looking for Changes〉
3. 교육내용 :
   - ❍ 어린이들이 화랑을 방문하여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학교에서 흥미롭고 배움이 가득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이를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 ❍ 어린이들이 미술관의 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를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함.
   - ❍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을 설명하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도와줌.
4. 교육목표
   - ❍ 다양한 관점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스스로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 발현을 도움
5. 프로그램 특장점
   - ❍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6. 교육장르 : 미술
7. 교육대상 : 초등학교 학생
8. 교육장소 : 런던 시내 3개 초등학교 및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브루크 커뮤니티 초등학교(Brook Community School),
   버베이지 초등학교 (Burbage Primary School),
   복스홀 초등학교 (Vauxhall Primary School)
9. 교육기간 : 8주 (2006년 ~ 2009년에 시행함)
10. 참고사이트 :

한국교육개발원 : http://edzine.kedi.re.kr/2015/winter/article/world_02.jsp

테이트 모던 : http://www.tate.org.uk/about/projects/looking-change

11. 기관소개 [63]

❍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런던 템스강 근처에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현대미술관으로 꼽힘. 2000년 5월에 개관.

❍ 2층에서 4층까지 19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대미술과 실험미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위치 : 영국 SE1 9TG 런던 뱅크사이드(Bankside, London, SE1 9TG, England)

12. 세부교육내용

❍ 미술작품 이해를 통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함.

❍ 미술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를 알게 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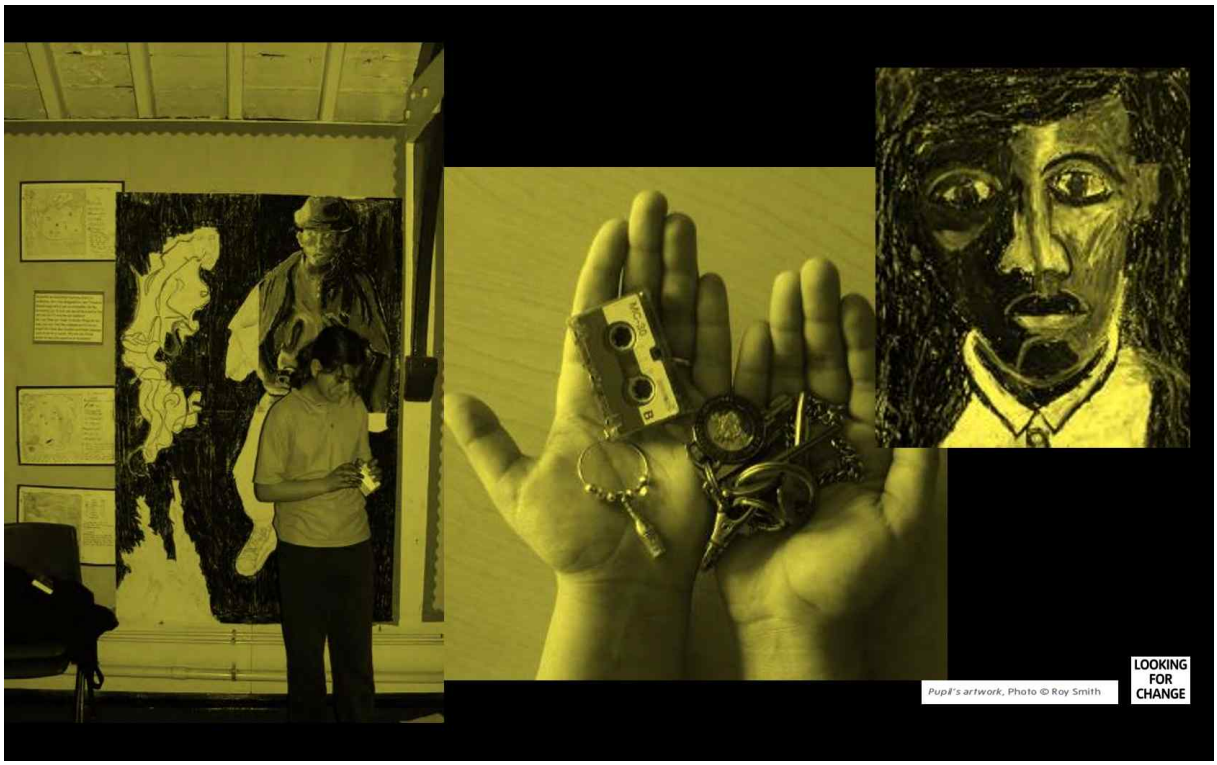
회차	장소	준비물	내용
1 회차	학교	스케치북, 연필, 참고자료	**〈주제에 대해 소개하기〉** 학교 방문 전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학생들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탐색하며 그들이 찾아온 이미지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한다. ☞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동물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며 주제를 설명한다. ☞ 고대 이집트에 관한 정보와 영화를 보고 우리가 봤던 것들에 대해 스케치를 한다. 이를 통해, 생각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들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격려한다. 다음 수업에 방문 할 미술관 대한 정보 및 안전 사항 등을 설명한다.
2 회차	테이트 모던	스케치북, 연필, 펜 (지우개 사용 금지)	**〈첫 갤러리 방문〉** - 학생들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이 갤러리를 둘러보며 정한 작품에 대한 스케치, 주변의 단어나 문장으로 작성하여 느낌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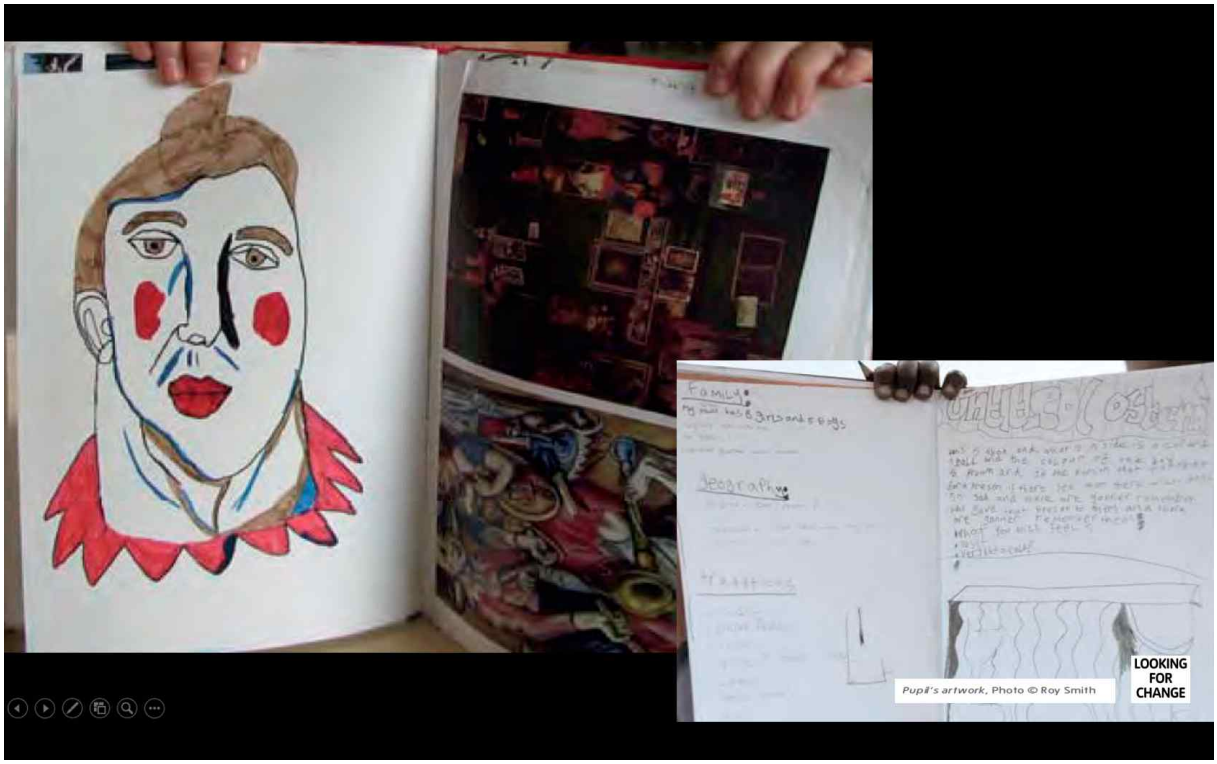
63) 테이트 모던 갤러리 홈페이지 : https://www.tate.org.uk/about-us

회차	장소	준비물	내용
			(관찰력, 판단력) - 학생들을 주제에 따라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게 한 뒤 각각의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향상시킨다. (창의력)
3 회차	학교		〈첫 갤러리 방문〉 - 학생들에게 고대 이집트 소지품과 같이 묻힌 미라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사진 안에 있는 물건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 학생들은 자신을 대표 할 상징을 결정하고 책에 스케치를 하게 한다.(표현력) - 고대 이집트인들이 스키마를 사용하여 그리는 방식을 보여준다. - 학생들이 이집트 *스키마를 그리는데 필요한 규칙을 사용하여 그 전에 선택한 자신만의 상징을 그리게 한다. - 학생들과 토론, 갤러리의 작품, 방향을 제시하게 하고 브레인 스토밍을 이용해 그들의 작품(그림)에 연결고리를 만들게 해서 결합을 도와준다. (연필, 펜, 수채화, 유화, 분필, 판화, 모노프린팅, 콜라주, 사진, 연속촬영사진 등 사용)
4 회차			
5 회차			
6 회차			
7 회차	테이트 모던	스케치북, 연필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신의 작품(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게 한다. ☞ 단어, 질감, 상징, 전과 후, 순서, 세부적인 사항, 감정, 목표, 큐레이션과 테마, 학생들의 초상화
8 회차	학교	스케치북, 연필	-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작품(그림)을 전시한다.

13. 관련 사진

Pupil's artwork, Photo © Roy Smith
LOOKING FOR CHANGE


Pupil's artwork, Photo © Roy Smith
LOOKING FOR CHANGE


Pupil's artwork, Photo © Roy Smith
LOOKING FOR CHANGE

4) 이예지(연극), 임지영(디자인), 정다슬(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64]

(1) 〈그림 속 오페라 2〉,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2〉,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1. 운영기관 : 예술의전당
2. 프로그램명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2〉,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3. 교육내용 :
   - ❍ 〈그림 속 오페라 2〉 : 유명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오페라를 함께 감상하며 해설
   - ❍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 2〉 : 로코코에서 후기 인상주의까지 미술 사조 해설
   - ❍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세계 해설
4. 교육목표
   -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그림 속 오페라 2〉 (수요일 오전)
     - 시대와 장르를 막론하고 뛰어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동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미술과 오페라를 교차 감상하면서 배워봄.
   -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목요일 오전)
     - 연대기적, 단편적인 미술사적 지식 그 너머를 배우는 과정으로, 하나의 예술사조가 어떤 동기와 배경을 수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줌.
   -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화요일 오전)
     - 미술사의 혁신을 일으키며 새로운 미술사를 만들어온 창조적인 예술가 100인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
5. 프로그램 특장점
   - ❍ 〈그림 속 오페라 2〉
     - 오페라가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상과 예술 사조 중 미술과의 관련성에 특히 주목하는 강의다. 각 강의마다 한 편의 그림과 한 편의 오페라를 선정해서 두 작품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는지, 두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에 어떤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 ❍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 예술과 철학, 논리학, 기호학, 언어학, 역사 등 다양한 인문분야를 넘나드는 해

64) 4번팀(이예지, 임지영, 정다슬)은 1번팀(이윤선, 김은호, 정민지)과 동일한 아이템을 조사함.

박한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서양예술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시도

❍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 주어진 시대의 예술적 과제와 거기에 대한 작가적 대응, 개인적인 삶, 예술세계의 독창성에 대해 집중 탐구

6. 교육장르 : 미술, 음악

7. 교육대상 : 일반 시민, 비전공자, 전공자, 대학생

8. 교육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

9. 교육기간 : 2019. 8. 24(토) ~ 12. 28(토) 주1회

10. 참고사이트 : http://www.sac.or.kr/SacHome/academy/

11. 기관소개 : 예술의전당은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12.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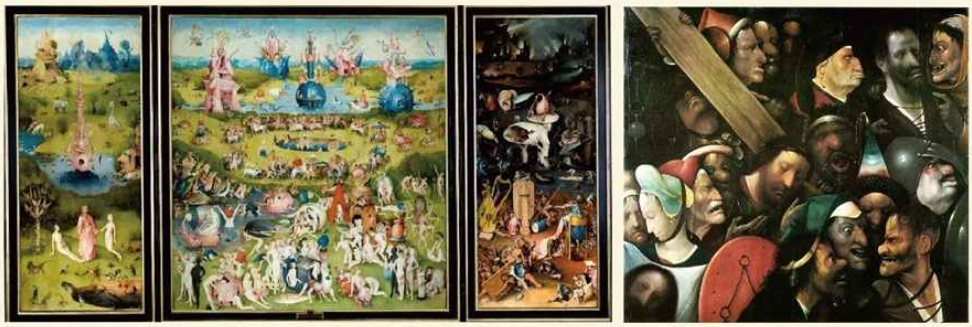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 〈그림 속 오페라 2〉 (수요일 오전)

회차	날짜	주제
1강	9/4	보쉬 '쾌락의 정원' vs 모차르트 '돈 조반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
2강	9/18	다 빈치 '모나리자' vs 구노 '파우스트': 영원한 구원
3강	9/25	뒤러 '자화상' vs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자아의 발견
4강	10/2	카라바조 '살로메' vs R.슈트라우스 '살로메': 치명적 유혹
5강	10/16	반다이크 '찰스 1세의 초상' vs 벨리니 '청교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6강	10/23	베르메르 '편지 쓰는 여자' vs 차이콥스키 '오네긴': 한없이 투명한 순수
7강	10/30	앵그르 '그랑 오달리스크' vs 비제 '진주 조개잡이': 환상 속의 낙원
8강	11/6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vs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혁명의 불길
9강	11/13	마네 '올랭피아' vs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길을 잘못 든 여인
10강	11/20	뭉크 '절규' vs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기괴한 이야기
11강	11/27	고갱 '이아 오라나 마리아' vs 푸치니 '투란도트': 먼 나라의 공주님
12강	12/4	클림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vs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장미향기 나는 종말

01 02 04 05

03 교육내용1
그림 속 오페라2 세부내용

1강 : 보쉬 '쾌락의 정원' vs 모차르트 '돈 조반니' :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



01 02 04 05

03 교육내용1
그림 속 오페라2 세부내용

2강 : 다 빈치 '모나리자' vs 구노 '파우스트' : 영원한 구원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 〈근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 2〉 (목요일 오전)

강좌	날짜	주제
1강	9/5	로코코Ⅰ; 정의
2강	9/9	로코코Ⅱ; 이념
3강	9/26	신고전주의; 혁명과 예술
4강	10/10	낭만주의Ⅰ; 파토스
5강	10/17	낭만주의Ⅱ; 이성과 감성
6강	10/24	사실주의Ⅰ; 실증주의
7강	10/31	사실주의Ⅱ; 이념의 죽음
8강	11/7	사실주의Ⅲ; 사진기의 문제
9강	11/14	인상주의Ⅰ; 주체의 소멸
10강	11/21	인상주의Ⅱ; 베르그송
11강	11/28	인상주의Ⅲ; 예술의 승리
12강	12/5	후기인상주의; 현대의 여명

강 사 : 조중걸

미국 예일대학원에서 서양예술사와 수리철학 공부.

시카고 대학 강사, 토론토대학 교수 역임.

저서 『열정적 고전읽기시리즈』(총 10권),『 형이상학적 해명 시리즈(총5권) -고대예술, 중세예술, 근대예술1,2(세종학술대상), 현대예술』비트겐슈타인 논고해제(한국출판문화상) 등

01 02 03 05

04 교육내용2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2 교육과정

1강 : 로코코 Ⅰ : 정의

교육내용

강의 中
'바로크 예술은 - 카라바조에서부터 바흐에 이르기까지 - 종교와 신화 등의 장려하고 기념비적인 주제를 다루었던데 반해, 로코코 예술은 부르주아 가정, 그들의 연회와 유희 등을 주제로 다루고 또한 그것을 밝고 빛나는 푸른색과 금빛을 사용해 묘사한다. 또한 거기에서는 에로스와 노골적인 관능이 때때로 묘사된다.'

1.. 용어
2. 특징
3. 작은 바로크

01 02 03 05

04 교육내용2

근대예술-형이상학적 해명2 교육과정

2강 : 로코코 Ⅱ : 이념

교육내용

이념 : 회의주의와 물질주의

1. 꾸며진 세계
2. 유물론과 로코코
3. 도덕의 문제
4. 로크
5. 데이비드 흄
6. 로코코 예술의 전개

❍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 :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4〉 (화요일 오전)

회차	날짜	주제
1강	8/27	고갱 - 작열하는 타히티의 태양아래서
2강	9/3	고흐 - 영원한 인간을 찾아서
3강	9/17	세잔 - 현대미술의 아버지
4강	10/1	구스타프 클림트/에곤 실레 -베니스의 노을
5강	10/8	알폰소 무하/브루벨 - 아르 누보 미술
6강	10/15	뭉크 - 상처 입은 인간의 절규
7강	10/29	마티스 - 사치, 고요, 쾌락
8강	11/5	피카소 - way of seeing
9강	11/12	칸딘스키/몬드리안 - 추상 미술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10강	11/26	말레비치/타틀린 -절대주의와 생산미학
11강	12/3	샤갈/모딜리아니 - 아방가르드의 대중화
12강	12/10	케테 콜비츠 -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강 사 : 이진숙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동대학원에서 루카치의 소설이론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대 미술사학부에서 말레비치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전 토털아트컴퍼니 '인터알리아'에서 아트 디렉터 역임.

저서 『아름다움에 기대다』, 『러시아미술사』, 『미술의 빅뱅』, 『시대를 훔친 미술』, 『위대한 미술책』, 『롤리타는 없다 1,2』 등

01 02 03 04

05 교육내용3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4 세부내용

1강 : 고갱 - 작열하는 타히티의 태양아래서

01 02 03 04

05 교육내용3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4 세부내용

2강 : 고흐 - 영원한 인간을 찾아서

교육내용

초기의 반 고흐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상황과 작가의 삶을 배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복권에 대한 환상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
먹을거리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보게."

5) 한명희(미술), 임하경(연극), 김아영(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EBS 인문학 특강 〈거인의 문학, 괴테〉

1. 운영기관 : EBS
2. 프로그램명 : EBS 인문학 특강 - 오순희 교수의 〈거인의 문학, 괴테〉
3. 교육내용 :
   - ❍ 괴테의 문학작품을 통해 그 시대 독일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았던 문학 작가의 고뇌를 살펴보는 내용
   - ❍ 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프로그램
4. 교육목표
   - ❍ '지식정보'의 단계에서 '인문적 사유방법'의 단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인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고 이해하는 기회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지식정보'로 변형된 인문학임.
   - ❍ 인문학 열풍을 '지식정보' 단계에서 '인문적 사유방법' 단계로 업그레이드 지향
   - ❍ 명강사, 명주제, 명관객이 어우러진 '인문적 사고'의 훈련장을 지향
6. 교육장르 : 문학
7. 교육대상 : 전국민, 전체 연령
8. 교육장소 : EBS 방송 (온라인)
9. 교육기간 : 2015.11.24.
10. 참고사이트 : http://www.ebs.co.kr
11. 프로그램 소개
   - ❍ 'EBS 인문학 특강'은 교육전문채널인 EBS에서 방영한 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 2013.02.28.부터 2016.03.29.까지 3년간 127화가 방영됨.
   - ❍ '인문적 사고'의 연구를 통해 인문학의 공통 주제인 '인간다움'을 바로 알고, 사고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부여하고자 기획되었음.
   - ❍ 'EBS 인문학 특강'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작되었음.
     1. 각 분야에 정통한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제작한다.
     2. 심도 깊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묵직하게 제작한다.
     3.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2. 세부내용

- 강의는 총 17분 분량으로 괴테의 〈시대의 대한 치열한 관심, 괴테의 생애와 문학, 괴테 문학이 전하는 삶의 의미〉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있음.
- 1강에서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독일에 끼친 영향과 그 시대 독일 트렌드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음.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슬픔을 소설 속 주인공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발현시켜 보여줌. 18세기 초반 독일 젊은이들의 문제의식을 대변한 책이며, 이 소설이 가졌던 파급력으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음.
- 베르테르의 열풍은 독일에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을 만들었고, 소설의 내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의 등장 및 패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후반의 독일의 모습을 살펴보면, 독일 동부의 소도시인 마이센에서는 유럽 최초로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베르테르의 모습을 새긴 도자기가 유행함.
- 또한 18세기 초반 궁정 사회의 패션을 모방한 시민계급들이 더는 귀족들의 의복을 흉내 내지 않겠다며 본인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 독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변화상, 다양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예술감상교육 사례_1

프로그램 내용 중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예술감상교육 사례_1

(2) 싱가포르 미술관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Think Contemporary!〉

1. 운영기관 : 싱가포르 미술관
2. 프로그램명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Think Contemporary!〉
3. 교육내용 :
   - ❍ 현대미술 전시를 바탕으로 한 전시연계교육
   - ❍ 싱가포르의 정체성인 다문화를 이해하는 수업
4. 교육목표
   - ❍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
   - ❍ 싱가포르의 정체성과 자랑거리를 찾기
5. 프로그램 특장점
   - ❍ 미술전시 감상과 더불어 싱가포르 학생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예술 창작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고,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인식하게 됨.
   - ❍ 미술관과 학교에서 창작하고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일련의 예술 창작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예술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예술가와 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됨.
6. 교육장르 : 미술
7. 교육대상 : 초등학생, 유치원생
8. 교육장소 : 싱가포르미술관 및 지정 학교
   (Geylang Methodist School, Haig Girls' School)
9. 교육기간 : 2019.10.01.~10.30
10. 참고사이트 :

http://www.singaporeartmuseum.sg/art-events/exhibitions/think-contemporary-2019

11. 기관소개 [65]

- ❍ 싱가포르 미술관(SAM)은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현대 미술작품을 다루고 있음.
- ❍ 19세기 미션 스쿨을 복원하여 세워진 싱가포르 미술관은 1996년에 싱가포르 최초의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음.
- ❍ SAM은 동남아시아 현대 미술품의 가장 중요한 공공 컬렉션을 만들었음.

65) 싱가포르 미술관 홈페이지 : https://www.singaporeartmuseum.sg/about#overview

❍ SAM은 2011년부터 싱가포르 비엔날레를 주최하고 있음.
(2011년, 2013년, 2016년, 2019년 시행)

12. 세부교육내용

❍ 인근 여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모집하여 진행 (3년째 진행되고 있음)

❍ 총 8강으로 이루어지고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활동지를 받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내게 됨.

❍ 싱가포르의 다문화사회를 주제로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8강마다 한 작품씩 감상한 후 강사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짐.

❍ 학생들은 교사와의 토론을 토대로 활동지를 작성한 뒤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각자가 이해한 방법들로 결과물을 발표하게 됨.

❍ 〈집〉, 〈커뮤니티〉, 〈정체성〉 등 큰 주제 속에 싱가포르의 문화유산, 이상적인 가정의 개념,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결과 소재들, 우리들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소주제와 질문들을 던지며, 활동지들을 채우며 그 속에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를 토론하기도 하고, 발표하며 예술적 창작활동을 진행하게 됨.

❍ 작품 감상 후 아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지를 작성하며,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참여한 아동들과 부모들을 초청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과 제작과정의 촬영물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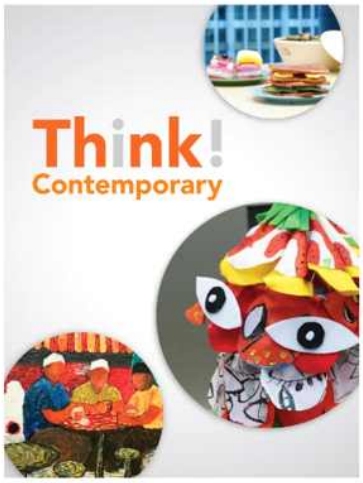
❍ 싱가포르에는 토론 수업이 발달되어 있음. 일차원적인 미술감상에서 벗어나 작품감상을 통해 싱가포르 학생들이 자국의 정체성을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예술창작의 소재로 다루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있음.

❍ 싱가포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다문화 교육의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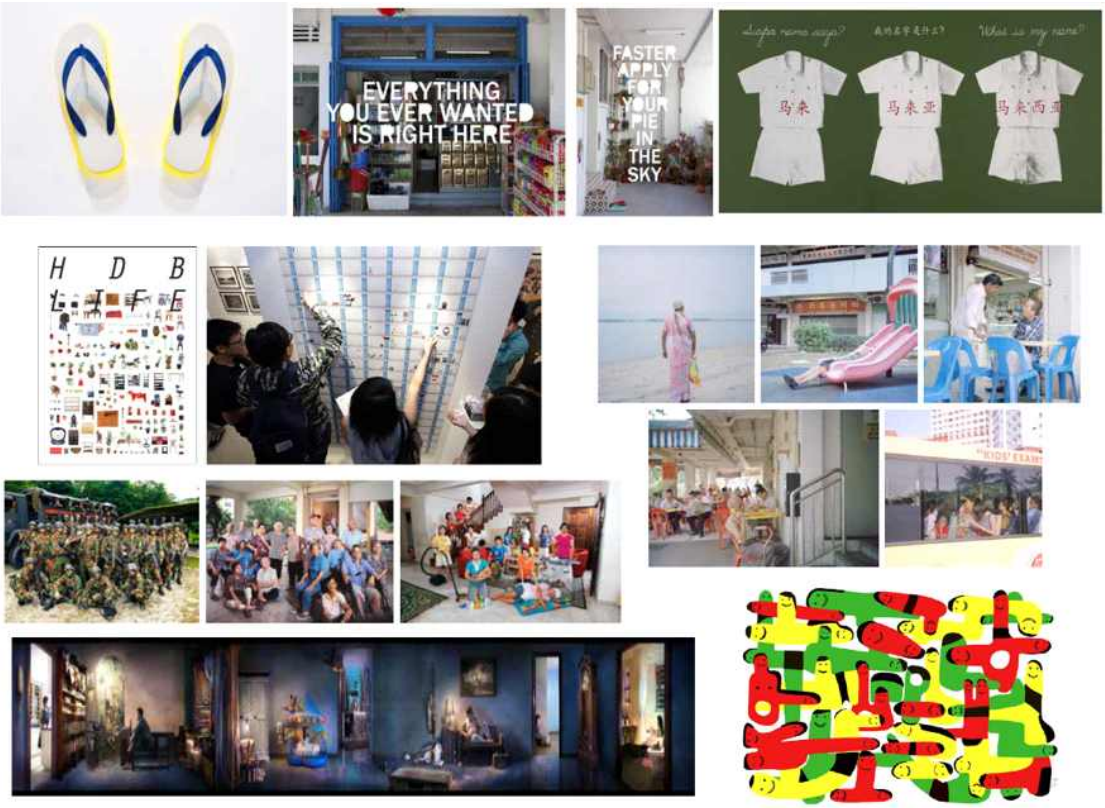
❍ 주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유치원생 아이들도 짧은 기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아이들은 지역 내 위치한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말레이시아 타운 등을 견학하고 싱가포르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비디오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배우게 됨.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다문화 사회'로 자연스레 인식하게 됨.

❍ 일련의 예술작품감상 및 창작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예술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예술가와 향유자로 성장하게 됨.

프로그램 소개



예술감상교육 사례_2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 이 작품은 중국인 · 유라시안 · 말레이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정체성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함.

예술감상교육 사례_2

활동 내용

[2 학생]은 “저희가 만든 이 음식을 보면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문화인 싱가포르처럼 이 음식에는 다양한 재료가 섞여 있어요. 하나의 볼 안에 여러 음식이 섞여 있죠.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현재 모습입니다”라고 말함.

Lesson Plan

Theme	Objectives	Strategies	SEL / CCE / NE	Artworks from Learning Gallery: *Once Upon This Island*
Home **Level / Duration** Primary 4 / 60 minutes in SAM Learning Gallery 1 **Topics / Text / Skills** **Social Studies** Places of heritage in Singapore **English** Use of writing and representing skills to convey meaning which reflects critical thinking **Art** Art discussion, interpretation and appreciation skills; Journalism	By the end of the lesson, pupils should be able to: • Appreciate the success of the HDB housing scheme in Singapore • Use vocabulary to describe and explain the concept of their ideal home • Discuss artwork using the inquiry-based approach • Rediscover everyday objects that have been often overlooked or taken for granted by observing and making connections between various aspects of the artwork • Understand that we meet our fundamental needs for shelter by alte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we live in (Progress in housing conditions)	By the end of the lesson, pupils should have been engaged in: • Collaborative learning • Inquiry-based learning • Basic comprehension practice • Dialogue about an artwork • Writing and representing • Critical thinking	**SEL** • Self-Awareness • Self-Management • Responsible Decision Making **CCE** • Resilience • Responsibility • Active Community Life •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NE** 1. Singapore is our homeland; this is where we belong. 2. We must ourselves defend Singapore.	Chun Kaifeng, *Not Much To See* **Resources** • Worksheet 1 (Art) • Worksheet 2 (Art) • Worksheet 3 (Eng)

[강의내용 1]

Step 1 / ART / 20 min / SAM Learning Gallery 1	Teacher to bring pupils to the artwork ***Not Much to See*** by Chun Kaifeng in Learning Gallery 1. **Activation of Background Schema** Teacher to engage pupils in an Art Discussion using the inquiry-based approach. Through this approach, pupils will be engaged in describing, analysing and interpreting the artwork. Pupils to jot down the points of discussion in their worksheet 1 (Art). During the discussion, teacher to: • Give wait time to pupils • Accept all pupils' responses Activity After the discussion, teacher to have pupils refer to their worksheet 2 (Art). Pupils are to think of 5 everyday objects that are often overlooked or taken for granted and draw them in the blank space provided. Teacher deepens the discussion by asking pupils to think of how the fast-paced lives of Singaporeans have led to many people taking everyday objects for granted. • "Does Singapore still look the same as it was in the 80s and 90s? What makes you say that?" • "Many everyday objects have been often overlooked in Singapore. What are some of them? What are their functions?" • "Why do you think lights are placed around this pair of Tat Sing slippers? Who do you think could have worn such slippers?" • In place of such footware, what do you wear these days?" • "What are some mundane objects in your hom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or forgotten?"	**Activation of background schema** is done to draw pupils into the museum lesson, preparing them mentally and helping them to focus on the lesson. **The use of the inquiry-based approach for Art Discussion** allows pupils to be engaged through discovering, noticing connections and being involved in critical thinking. **Wait time is given** to allow pupils to think critically and formulate their responses before contributing their ideas.	Worksheet 1 (Art) Worksheet 2 (Art)

[강의내용 2]

6) 김경빈(영화), 김인혜(연극), 주가현(미술)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영국 내셔널 갤러리 〈The Picture in Focus project〉

1. 운영기관 : 영국 내셔널 갤러리
2. 프로그램명 : The Picture in Focus project
   - 'Diana and Callisto' Schools Project
   : 역사적 회화가 현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3. 교육내용 : 역사적 회화를 통해 현대의 사회적 문제를 고찰해보는 프로그램
4. 교육목표 : 명화를 감상하고 이해하면서 그와 연관된 사회문제를 고찰함.
5. 프로그램 특장점
   - ❍ 시, 예술 및 디자인의 결과와 함께 창의적인 방식으로 Titian의 그림을 사용함.
   - ❍ 10대 임신 관련 자선 단체인 Straight Talking 및 PSHE 협회와 상의하여 회화의 중심에서 민감한 문제(동료와의 관계 및 계획되지 않은 임신)와 주제를 다룸.
   - ❍ 시대적 상황과 배경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미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거나 시대 흐름을 이해하도록 함.
6. 교육장르 : 미술
7. 교육대상 : 중고등학생
8. 교육장소 : 영국 내셔널 갤러리
9. 교육기간 : 주중
10. 참고사이트 :

내셔널 갤러리 :

https://www.nationalgallery.org.uk/learning/teachers-and-schools/diana-and-callisto-schools-project

스트레이트 토킹 : https://www.straighttalking.org/

PSHE Association (PSHE 협회) : https://www.pshe-association.org.uk/

11. 기관소개

1) Straight Talking (자선단체) [66]

❍ ‘스트레이트 토킹’은 10대 어머니들과 젊은 아버지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 청소년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교육하는 영국의 자선단체. 10대의 임신과 일찍 부모가 되어서 겪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영국의 높은 10대 임신율을 줄이고 젊은 부모들이 교육, 고용,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2) PSHE Association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67]

❍ PSHE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 협회.

❍ PSHE는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에 그들의 삶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속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학교 과목.

12. 세부교육내용 [68]

❍ 내셔널 갤러리는 회화를 학습의 촉매제로 사용하고 있음.

❍ 내셔널 갤러리는 작품 ‘Diana and Callisto’를 활용한 중고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영국의 10대 임신 관련 자선협회인 ‘Straight Talking’과 PSHE협회는 그림에 나타난 신화에서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내셔널 갤러리 프로젝트에 참여함.

❍ PSHE는 영국의 10대 학생들이 인생에 대해 공부하는 공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10대들이 가정과 밖에서 성장하며 겪는 문제들을 연극, 게임, 토론, 신체 활동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수업.

❍ 작품 ‘Diana and Callisto'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와 칼리스토에 관한 이야기이다. 순결을 중시하는 아르테미스가 아끼고 잘 따르던 요정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로 변신하여 칼리스토를 유인한 제우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강간인줄 모르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칼리스토를 오해한 아르테미스와 추종자들은 칼리스토를 추방하게 된다는 내용.

---

66) 스트레이트 토킹 홈페이지 : https://www.straighttalking.org/
67) PSHE 협회 홈페이지 : https://www.pshe-association.org.uk/
68) 영국 내셔널 갤러리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인용
https://www.nationalgallery.org.uk/learning/teachers-and-schools/diana-and-callisto-schools-project

❍ 내셔널갤러리의 아티스트 교육자 Marc Woodhead는 전국 10대의 어린 부모를 고용하는 자선단체 Straight Talking과 협력하고 있음. 그 중 Shannon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내셔널 갤러리에 방문함. 그림에 대해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Shannon은 칼리스토의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Marc Woodhead는 두 곳의 학교에서 각기 다른 예술 활동을 펼침.

❍ Walworth Academy에서 학생들은 갈등에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들어 인쇄하는 판화작업을 하였음.

❍ Kingsdale foundation School에서는 학생들이 임신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직물그림을 만들어 자수를 놓고 각자의 조각을 이어 이불을 만들었음. 학생들은 그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자신들의 인간관계와 더 나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토론하였고, 수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과 현재 자신의 삶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림 40 】 Titian의 'Diana and Callisto'(1556-1559),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

(2)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팀 - 찾아가는 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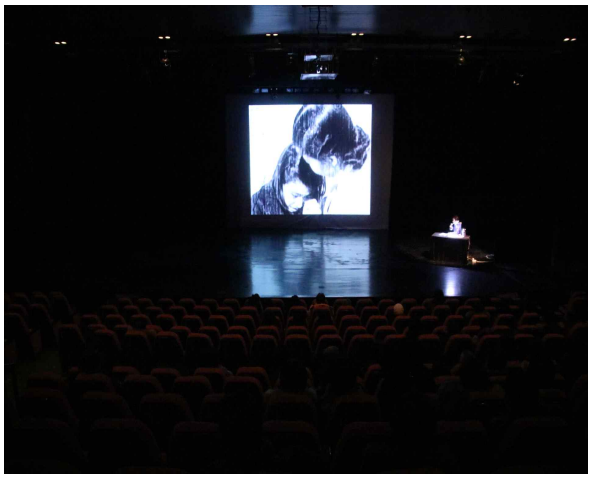
1. 운영기관 :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팀
2. 프로그램명 : 찾아가는 영화관
3. 교육내용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회 개최
4. 교육목표
   - ❍ 영화관 부재로 인한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 ❍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및 영상문화 융성
     (고전/최신영화, 독립영화 상영 및 연계 부대행사 진행)
5. 프로그램 특장점
   -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무료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영상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6. 교육장르 : 영화
7. 교육대상 :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위주 지역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군장병, 탈북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8. 교육장소 : 영화
9. 교육기간 : 주말, 주중
10. 참고사이트 : 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37
11. 기관소개
    - ❍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과 지역에 직접 찾아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평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
    - ❍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지자체 기관 및 지역 단체(지역 공동체)
      2.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 공공시설(학교, 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등)

12. 교육진행사진

【그림 41】 전북 김제 금구초등학교

【그림 42】 변사 프로그램

【그림 43】 강원도 태백



【그림 44】 강원도 정선

【그림 45】 경북 울릉 중학교

(3) 수원문화재단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1. 운영기관 : 수원문화재단
2. 프로그램명 :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3. 교육내용 : 이야기가 있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4. 교육목표
   - ❍ '우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다가 어느덧 우연히 발견하는 단어
   - ❍ '우리'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서로의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관계 맺기를 지향함.
5. 프로그램 특장점
   - ❍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기 문화 예술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 적절한 통합교육임.
   - ❍ 어린이들이 세계에 대한 조화롭고 올바른 생각주머니를 형성하도록 도움
   - ❍ 즐겁게 놀면서 느끼고 배우는 시간 제공 (Fun+Play+Enjoy=Edutainment)
6. 교육장르 : 연극
7. 교육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8. 교육장소 : 슬기샘어린이도서관
9. 교육기간 : 토요일
10. 참고사이트 : www.swcf.or.kr
11. 프로그램 소개
    - ❍ 수원문화재단에서 통합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12. 세부내용
    - ❍ 〈연극으로 살아나는 그림책 -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는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을 각색해 보는 연극 놀이프로그램
    - ❍ 연극 제작과정의 전체를 이해하면서 소규모 공연 발표를 통해 예술활동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무대 위에 서는 활동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활동
    - ❍ 단순히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독서 활동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하게 만듦. 연극놀이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협업의 경험을 누리게 됨.

❍ 이야기가 하나의 2차 창작물이 되기까지 사람들과 무엇을 의논하고 이야기의 어떤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고민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북돋우게 됨.

7) 김봉기(연극), 정유리(연극), 백선희(공예)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감상〉

1. 운영기관 : 서울시립미술관
2. 프로그램명 : 찾아가는 미술감상
3. 교육내용 :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하에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미술 교육을 운영
4. 교육목표
   - ❍ 시민의 미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 ❍ 미술관 홍보를 통하여 미래의 주 관람객이 될 초·중·고등학생들의 미술관 유입을 적극 도모
   - ❍ 문화소외시설을 직접 방문,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
   - ❍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로운 교육내용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편하고 즐겁고 친절한 교육- 어려운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문학,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를 반영한 감상 및 체험교육 진행

❍ 미술생태계에 활력을 더해주는 교육- 미술가를 강사로 채용, 참여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진행

6. 교육장르 : 미술
7. 교육대상 : 직장인, 어린이, 청소년
8. 교육장소 : 일반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
9. 교육기간 : 매년 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10. 참고사이트 : https://sema.seoul.go.kr/ee/fArtClss/GAG01/getEeCont
11. 기관 소개

❍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밖으로 관객을 찾아가는 소통과 참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학습 및 업무에 바쁜 초·중·고등학생 및 직장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과 소통하는 감상교육, 참여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12. 세부내용

❍ 직장감상교육

연 번	강좌명	내용
1	아트 마케팅 트렌드(신규)	본 강의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활용되었던 아트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아 문화 예술이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를 살펴보아 무분별한 아트 마케팅이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문화 예술의 가치와 아트 마케팅의 특수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삶과 예술 - 한국의 서양화가들(신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한 예술가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한국 초기 추상회화를 이끌어 간 김환기와 유영국,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이중섭과 장욱진. 그들의 삶과 예술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이루어낸 예술적 성취의 의미와 삶의 태도를 되짚어볼 것이다. 미술사적으로 미술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예술적 위상의 우위를 가려 비교 서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4인의 예술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독자적인 예술성의 특징을 발견하고, 비교 감상을 통해 한국 초기 서양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3	테마 별로 보는 드라마틱한 명화이야기	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정적으로 보이는 미술관 속 작품들이 간직한 역사 속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흥미진진한 작품의 배경이야기를 알아보면서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흥미로운 미술사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작품들을 역사적 드라마를 배경으로 더 생생하게 체험해 보고자 한다.
4	컨템포러리 미술의 이해(신규)	컨템퍼러리 미술과 그 미학적 특징, 감상의 키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컨템퍼러리 미술의 이해를 위해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틀 안에서 전지구화, 세계화된 오늘날의 미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징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유명 작가들과 작품을 살펴보고, 아울러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미술 개념의 변화와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관련된 미학적 개념들도 소개한다.
5	클래식 / 명곡과 함께 하는 미술 이야기	클래식 명곡과 명화를 함께 감상함으로서 음악과 미술이 함께 하는 신선하고 생생한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강좌이다. 작품의 키워드를 짚어보고 비슷한 시대와 사조에 바탕을 둔 작품들의 시대정신과 미학을 알아봄으로써 깊이 있는 작품 이해로 안내한다. 우리에

연 번	강좌명	내용
		게 익숙한 명화들을 새롭게 공명하는 음악과 함께 새롭게 즐길 수 있다.
6	TV / 대중문화로 현대 미술 읽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와 매체들 속에서 현대 미술 작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찾아본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통해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미술관 전시 및 주변의 현대 미술들에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재미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7	영화로 만나는 미술가와 명작들	미술 작품이나 미술가와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친숙하게 미술 작품에 접근하고, 미술 작품을 깊이 있게 읽어 내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들을 알아본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어떤 요소부터 시작할지, 접근 방법들은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영상물을 통해 미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힌트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8	여행에서 만나는 미술관	세계 곳곳의 유명 미술관과 그 안에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들여다보고 미술관의 유래,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을 살펴본다. 특히, 현대미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시간〉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작품의 특별한 의미를 찾아본다.
9	미술품의 숨겨진 매력과 일상에서 즐기기	누구나 쉽게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함부로 정의내릴 수 없는 미술품. 과연 미술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일까? 평소 친근하게 만나는 미술품에서 놓치기 쉬운 남다른 매력을 알아본다.
10	이것은 변기가 아닙니다. 예술작품입니다	전시장을 가면 작품처럼 보이지 않는 작품이 많다. 전시장에 놓인 낡은 그릇을 가져다 박박 닦아 제자리에 가져다둔 미술관 청소부의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언제부터 미술작품이 상식 밖의 그것이 되었을까. 변기를 전시에 출품한 마르셀 뒤샹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11	〈Sensation〉展 미술, 미술전시, 자본	1997년 영국 왕립예술원이 개최한 〈Sensation: Young British Artists from Saatchi Collection〉 전시를 통해 미술전시가 가진 자본적 속성과 문화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침체되었던 영국 현대미술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한 YBA의 탄생배경을 살펴본다.
12	미술로 읽는 창조경영의 지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미술품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국내외 다양한 현대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해본다.

❍ 어린이 미술감상 및 체험교실

- 미술 작품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주위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열린 사고와 관계 맺기 지향
- 감상과 연계된 창조적이고 참여적인 체험 수업
- 미술관 소장품 활용 강좌로 미술관 밖 소장품 감상교육 확대

연번	구분	강 좌 명
1	느껴봐요	**추상화로 오감 일깨우기**
		〈감상〉 일반적으로 추상화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이러한 작품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감상 〈체험〉 다양한 음악, 동영상, 이야기 등을 듣고 오감을 일깨워 아코디언 형식의 책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작품 제작
2	말해봐요	**소망하는 미술, 마음 그리기**
		〈감상〉 꿈, 소망 등을 담은 동서양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 〈체험〉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 그려보고, 마음이 담긴 글이나 미래의 꿈을 엽서에 표현
3	움직여봐요	**키네틱아트**
		〈감상〉 '움직임'을 요소로 하는 키네틱아트의 발상과 표현에 대해 이해 〈체험〉 투명 지퍼팩, 철사, 색종이 등을 이용해 자기만의 키네틱 아트를 제작
4	다르게 봐요	**낙서도 예술일까?**
		〈감상〉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키스헤링, 바스키아 작가 등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을 이해 〈체험〉 투명 아크릴 판에 네임펜으로 자기만의 낙서화를 제작
		물건의 변신
		〈감상〉 피카소의 〈황소머리〉, 뒤샹의 〈샘〉 등 일상 의 사물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을 감상 〈체험〉 다양한 사물의 사진을 콜라주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작품을 제작
		울퉁불퉁한 상상력
		〈감상〉 일상생활에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상상력을 부여해 새롭게 만든 작품들을 감상 〈체험〉 다양한 일상오브제와 폐품을 이용해 색다른 나만의 놀이터를 제작
5	SeMA 소장품을 봐요	**다양한 얼굴로 말하기**
		〈감상〉 미술관 소장품을 포함하여 동서고금의 다양한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을 감상하고, 그 배경과 특징을 이해 〈체험〉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기분과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을 표현

❍ 청소년 미술감상 및 체험교실

-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수업
-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연계된 탈장르, 융복합적 감상수업

연번	구분	강좌명
1	진로탐방 큐레이터	**큐레이터로 한 걸음 더!**
		〈감상〉 다양한 예술작품과 전시를 감상하며 큐레이터에 대한 의미와 역할,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체험〉 미술관 소장품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미니 미술 전시회를 기획 및 제작
2	진로탐방 -문화기획자	**놀이로 만나는 문화기획**
		〈감상〉 관객의 놀이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프로젝트, 공연 소개 〈체험〉 학생들에게 가상의 스토리를 주고 그 상황에 필요한 각자의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
3	청소년 미술감상 및 체험교실	**타이포그래피,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감상〉 글자를 소재로 한 작품 감상을 통해 '타이포그래피' 라는 장르에 대해 이해 〈체험〉 가슴에 담아 두고 있던 한 마디를 건네고 싶은 상대를 정해 자신만의 타이포그래피를 제작
4		**움직임 따라 그리기, 미래파와 애니메이션**
		〈감상〉 움직임과 역동성이 평면그림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들을 감상 〈체험〉 팀별로 협동하여 직접 움직임의 궤적을 만들어보고 간략히 상영해봄으로서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
5		**생각더하기 추상화란, (신규)**
		〈감상〉 사물을 다르게 보고, 변형시키며 작가의 생각과 상상을 작품을 감상하고 추상화를 이해 〈체험〉 종이 전개도 위에 작가의 표현기법을 응용하고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액자의 형태로 제작
6	청소년 미술감상 교실	**미술 속 동물 이야기**
		〈감상〉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을 주제로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본다.

연번	구분	강좌명
7	청소년 미술감상 교실	**예술은 어디에나 있지!**
		〈감상〉 현대미술의 주요 경향들을 통해 일상 속의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창의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느껴본다.
8		**테마 별로 보는 드라마틱한 명화이야기**
		〈감상〉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정적으로 보이는 미술관 속 작품들이 간직한 역사 속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9		**클래식 / 명곡과 함께 하는 미술 이야기**
		〈감상〉클래식 명곡과 명화를 함께 감상함으로서 음악과 미술이 함께 하는 신선하고 생생한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강좌이다.
10		**TV / 대중 문화로 현대 미술 읽기**
		〈감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 문화와 매체들 속에서 현대 미술 작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찾아본다.
11		**영화로 만나는 미술가와 명작들**
		〈감상〉 미술 작품이나 미술가와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친숙하게 미술 작품에 접근하고, 미술 작품을 깊이 있게 읽어 내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들을 알아본다.
12		**컨템포러리 미술의 이해(신규)**
		〈감상〉 컨템포러리 미술과 관련된 중 개념들을 정리하고 최근 미술의 변화와 동향을 주제별로 비교하면서 정리해본다. (고등학생, 직장인, 성인 대상)

8) 김환희(연극), 이기준(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수상한 미술관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1. 운영기관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2. 프로그램명 : 수상한 미술관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3. 교육내용 : 평면의 미술작품을 공간화하여 입체적인 바라보는 시작을 기를 수 있는 건축 미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4. 교육목표
   - ❍ 하나의 미술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까지 구현해보며 입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도록 함.
   - ❍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알아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나'와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 미술관과 지역문화공간을 탐방하며, 실질적인 학교 밖의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 건축과 미술을 통해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음.
   - ❍ 미술관이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방문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삶속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음.
   - ❍ 미술관의 전시 관람 및 재해석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양
   - ❍ 자신이 위치한 공간과 그 안의 자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음.
   - ❍ 자신만의 창작과 전시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
6. 교육장르 : 건축 & 미술
7. 교육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8세-10세)
8. 교육장소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경기 파주시 문발로 253)
9. 교육기간 : 2018년 4월- 2018년 11월 / 주말 (총8회차 / 3기수 운영)
10. 참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mimesis_art
    http://mimesisart.co.kr/

11. 기관소개 [69]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열린책들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 출판과 건축, 예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어진 미술관이며,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함.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대지 1,400평에 연면적 1,100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양한 크기의 여러개의 전시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함.
-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상업적인 전시공간으로 방문객을 유혹하는 것이 아닌, 건축 자체로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을 지향함.
-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라 카르마구 미술관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을 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은 개관 전부터 각종 해외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국내외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적극 소개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12. 세부교육내용

〈1회차 - 공간의 모양〉

첫 인사 나누기, 미술관 예절을 안내한다.

미술관 전시를 감상하고 내·외부 공간을 투어해 본다.

다양한 작품과 공간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보고, 미술관 속 〈나만의 작품〉을 걸고 싶은 공간을 찾아본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일부분을 모형으로 만들어본다.

〈2회차 - 납작한 그림〉

미술관 소장품 중 풍경을 그린 이혜승 작가의 작품 시리즈를 감상해본다.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야기를 나눈다.

회화 작품을 한가지 골라, 나만의 작품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그려본다.

---

69)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홈페이지
: http://mimesisart.co.kr/product/미메시스-아트-뮤지엄-소개/209/category/52/display/1/

〈3회차 - 볼록한 조각〉

내가 그린 평면 작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해본다.

나만의 입체작품을 만들어본다.

〈4회차 - 동네 한바퀴1〉

디자인 대안 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를 방문하여,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작업 공간을 실제로 만나본다.

〈5회차 - 동네 한바퀴2〉

책과 문화의 도시, 파주 출판도시 지역을 소개한다.

도시 속 예술가들의 공간을 탐방해 본다.

〈6회차 - 비밀지도 그리기〉

5회차에 방문한 문화 공간을 표시하여 비밀지도로 표현해본다.

각자 만들 비밀지도를 합쳐 하나의 큰 마을지도를 만들어본다.

〈7회차 - 마을 만들기〉

비밀지도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다 함께 만든 파주출판단지 비밀지도를 입체작품으로 만들어본다.

〈8회차 - 꿈꾸는 미술관〉

내가 만든 작품들을 미술관에 전시해본다.

직접 작품을 전시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초대해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교육 현장 - 2주차 : 납작한 그림 (1기수)

미술관의 소장품 회화 작품을 나만의 작품으로 그려보는 〈납작한 그림〉 시간!

미술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이혜승 작가의 작품 4개를 관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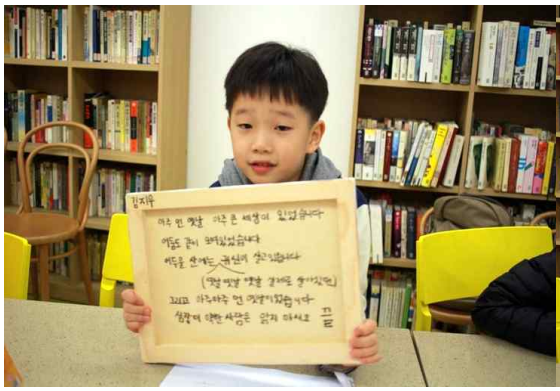
어린이 건축가들은 네 가지 그림 중에 직접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고, 그림 속의 공간이 어떤 장소일지 상상해보고 활동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이제 납작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내가 재해석한 화가의 그림 속 공간을 나만의 캔버스에 그리고 색칠하여 표현한다.

캔버스 뒤에는 그림을 그린 스토리를 적는다.

아래 사진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읽지 말라는 한 어린이 건축가의 스토리.



9) 김배정(연극), 이현주(연극), 박소영(연극)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서울문화재단 - 관객참여형 어린이 연극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

1. 운영기관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2. 프로그램명 : 관객참여형 어린이 연극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
3. 교육내용 :
   - ❍ 어린이들이 연극의 참여자가 되어 직접 극을 이끌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 ❍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의 줄거리는 친구가 없어 외로운 아이 '밤이'가 남긴 단서를 '낮이'와 어린이 관객들이 함께 풀어가며 호기심 물류센터에서 '밤이'가 남긴 '밤의 선물'을 찾게 되는 내용
   - ❍ 어린이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빛 풍선이 가득한 빛 상자와 터널을 통과하며 다양한 촉각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풀벌레 소리와 시계 소리 등을 들으면서 극에 빠져들게 됨.
   - ❍ 공연시간은 60분이며, 1회 공연 관람객은 20명 여명 내외로 운영됨.
4. 교육목표
   - ❍ 연극참여를 통해 예술가가 되는 체험 기회 제공
5. 프로그램 특장점
   - ❍ 공연 후 교육 워크숍으로 아이들이 직접 예술가가 되어 공연 속에서 느꼈던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창작활동
   - ❍ 어린이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작품으로, 이 공연에서 아이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가 됨.
6. 교육장르 : 연극
7.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
8. 교육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
9. 교육기간 : 2015.8.7.~8.28
10. 참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i_sfac/220456834094

11. 세부교육내용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 상자들이 가득 차 있고 상자가 하나 떨어지면 '밤이'가 얼굴을 내밀면서 나의 아지트로 들와서 함께 놀 것을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학생들만 공연장에 들어 갈 수 있다.

'밤이'의 아지트로 들어온 아이들은 택배 상자들로 가득해 발 디딜 공간이 없어서 서 있게 된다. 여기서 '밤이'는 '우리가 놀 공간이 없네... 어쩌지?' 라고 얘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택배 상자를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어 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정리된 공간에서 ‘밤이’와 아이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관객들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된다. 아이들은 ‘밤이’와 지금까지 함께 한 순간 속에서 ‘밤이’와 신뢰관계가 쌓이게 된다. 이제 ‘밤이’는 남이 아닌, 우리들의 친구가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는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내 친구 밤이가 상처를 받았어. 어쩌지?’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이 순간 어린이들은 ‘밤이의 친구’로서 속상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인공 이었던 '밤이'가 상처받고 어디론가 사라지자, 어린이들은 별자리 지도를 따라 '밤이'를 찾아 나선다. 그 순간 어린이들은 가출한 '밤이'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된다. 어린이들은 이 작품에서 '밤이'를 찾아내야 하는 중요 인물, 곧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극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려고 왔던 아이들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잘 구성된 어린이 관객참여연극은 대부분 관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관객참여형 공연은 아이들에게 재미와 몰입감, 그리고 성취감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까지 경험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관객참여 공연〉의 특징이다.

10) 신진아(연극), 오지현(디자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아르떼 노르말 〈리더와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1. 운영기관 : (주)H&K컨설팅
2. 프로그램명 : 아르떼 노르말 〈리더와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3. 교육내용 :
   - ❍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성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명의 리더가 발휘하는 감성 리더십을 고찰하여 현업에서의 적용 포인트를 실습해보는 교육
4. 교육목표
   - ❍ 리더로서 감성 역량을 왜 갖추어야 하는지와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프로그램 특장점
   - ❍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감상하며 영화 속 리더들의 진정성,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감성 리더십 역량 및 영향력을 직접 관찰하며 감상하고, 성찰하며, 공감함으로 더욱 재미있고 감동까지 배가됨.
6. 교육장르 : 강의와 예술활동이 접목된 예술교육프로그램 (HRD프로그램)
7. 교육대상 : 직장인
8. 교육장소 : 일반 직장
9. 교육기간 : 상시
10. 참고사이트 : http://artenuevo.co.kr/category/arteNormal
11. 기관소개 [70]
    - ❍ ㈜H&K컨설팅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고 기업의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 · 개발하고자 설립된 법인
    - ❍ 아르떼 누에보(Arte Nuevo)
      -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고 기업의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기획 · 개발하는 프로그램 체계

70) 아르떼 누에보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 - http://artenuevo.co.kr/category/arteNormal

- 다양한 이벤트와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정과 패러다임을 문화예술적 방법론을 통해 교육 장면으로 압축화하여 진행함으로써, 조직이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Mental Model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형상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조직개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감성적인 문화예술 기반에 논리적인 액션 러닝을 조화롭게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 기법을 활용하여 마음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인 기법으로 이성을 설득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프로그램

❍ 3가지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아르떼 노르말 (Arte Normal)	아르떼 콘시에르토 (Arte Concierto)	아르떼 발로 (Arte Valor)
강의형 프로그램 - 예술/미학 - 문화일반 - 인문학 체험형 프로그램 - 음악 - 미술 - 연극 - 무용 - 디자인/공예 - 영상 - 인문/교양 - 요가/명상 - 푸드(Food)	기획형 프로그램 - 기획목적 - 운영프로세스 - 운영 예시 관람형 프로그램 - 댄스 - 타악 퍼포먼스 - 음악 - 클래식 - Showing 퍼포먼스	프로그램 - 행복, 긍정 토크 콘서트 - 큐비즘으로 바로보기 - 나의 그림, 조직의 그림 - 버려진 조각에서 피어난 꽃

12. 세부교육내용

❍ 아르떼 노말(Arte Normal) : 강의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 강의와 예술 활동이 접목된 예술교육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자료를 통해 예술의 힘을 일깨워주고 현장 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강의를 지향함.
- 프로그램은 예술과 인문학의 살아 움직이는 즐겁고 유쾌한 강의와 예술체험을 기업교육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새로움과 재미 그리고 조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문학 등을 연계한 강의형과 예술의 각 장르별로 구성된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르떼 콘시에르토(Arte Concierto)

- 기업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담긴 프로젝트형 기획 공연 & 전시 콘텐츠
- 문화예술이 주는 감동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돌아봄으로써 구성원에게는 삶의 치유와 희망을, 조직에게는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유도와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기대하는 프로그램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된 양방향 컨텐츠를 제공하는 맞춤 기획형 공연과 수준 높은 아티스트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관람형 공연으로 구성
- 바쁜 일상으로 지쳐있는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신선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HRD 서비스의 깊이를 더하고 폭을 확장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 클래식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용, 타악 퍼포먼스, 샌드아트, DJ 퍼포먼스, 뮤지컬 등 다양한 아티스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아르떼 발로(Arte Valor)

- HRD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더한 전략적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단순히 일회성 체험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를 통해 기업이 구성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조직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에 대해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감성적 솔루션을 제공
- 문화예술교육은 자기 이해의 교육임. 인간 삶의 총체적 이해의 틀로서 자기 성취적 교육과 다양성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문화와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간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자기성찰의 틀을 습득하는 자기 성찰적 교육을 제공
- 21세기 기업교육은 지능지수(IQ) 중심의 시키고 받는 타율적 의미로의 교육훈련(Training & Teaching)에서 감성지능(EQ)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성찰하며 현업에서 실행을 통해 성과를 지향하는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감성지능(EQ)을 향상시켜 현재의 문제를 자각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과정 속에서 감성적 앎이 생활 속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는 자기주도적 문화예술 융합 감성학습 프로그램

(2)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 〈유럽 사람들 그림으로 톺아보다〉

1. 운영기관 : 한양대학교 박물관
2. 프로그램명 : 한양 뮤지엄 아카데미 〈유럽 사람들 그림으로 톺아보다〉
3. 교육내용 :
   - ❍ 그리스 · 로마에서부터 르네상스 · 바로크,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유럽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당시 예술작품을 통해 알아보는 교육
   - ❍ 그림 속에 담긴 유럽 사람들의 생활, 풍속, 정치, 종교, 예술을 살펴보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
4. 교육목표
   - ❍ 명화를 통해 유럽 사람들의 역사, 정치, 예술, 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
5. 프로그램 특장점
   - ❍ 감상의 폭을 넓히고, 그림 속에 담긴 유럽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공감할 수 있음
6. 교육장르 : 미술
7. 교육대상 : 역사, 문화에 관심있는 한양대 재학생, 일반시민, 대학(원)생 등
8. 교육장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9. 교육기간 : 2019.09.24. ~ 2019.11.19.
10. 참고사이트 : https://museumuf.hanyang.ac.kr
11. 기관소개 : 한양대학교 박물관
    - ❍ 1979년 개관.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관
    - ❍ 2003년 이후 매년 2회의 특별전 개최, 문화체험 및 박물관 교육 사업 수행
    - ❍ 지역사회의 문화적 핵심기관이자 한양 가족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지향
    - ❍ 한국과 세계적 문화유산의 완벽한 보존 지향
12. 세부내용
    - ❍ 9월 24일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인간을 조각하다
    - ❍ 10월 1일 – 중세시대 종교미술을 통해 본 삶과 죽음
    - ❍ 10월 8일 –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
    - ❍ 10월 15일 – 바로크시대와 인간의 발견
    - ❍ 10월 22일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답사

❍ 10월 29일 – 북유럽 미술작품에 담긴 일상생활-아동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 11월 5일 – 근대여성의 딜레마 〈사회와 불화하는 재녀〉

❍ 11월 12일 – 프랑스 혁명 〈영웅의 뒷모습〉

❍ 11월 19일 – 파리의 도시문화와 개인의 탄생

11) 이은주(연극), 최운정(연극), 최은혜(영화)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 리터러시수업 〈모던 타임즈 - 기술과 문명〉

1. 운영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지원사업)
2. 프로그램명 : 영화리터러시 수업 〈모던 타임즈 - 기술과 문명〉
3. 교육내용 :
   - ❍ 영화를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상과 작품의 의미를 함께 토론해 보는 내용
4. 교육목표
   - ❍ 영상문화를 통한 올바른 향유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표현능력과 창의력 향상
5. 프로그램 특장점
   - ❍ 수업목표와 수업의 주안점을 제시한다.
   - ❍ 영화를 통해 당대의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한다.
   - ❍ 영화의 주제를 통해 나의 현재 삶을 돌아본다.
   - ❍ 영화가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기술, 정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
6. 교육장르 : 영화
7. 교육대상 : 어린이, 청소년 (초등학생 및 중학생)
8. 교육장소 : 학교 교실
9. 교육기간 : 2009년
10. 참고사이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50581.html#csidxde238510e32c32ca8f5148fd63b850

11. 세부내용
   - ❍ 영화를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상과 작품의 의미를 함께 토론해 보는 내용

Ⅴ. 시민문화교육 관련 사례조사

1. 국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1)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흐름 [71]

○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0년 문화의집과 연계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시작됨.
- 학교와 취약계층에 편중된 학습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거점 공간 등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 2011년,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별별 솔루션'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함.
- 2012년, 읍 · 면 · 동 등 생활권 단위의 공간(마을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카페, 공방 등)과 연계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이 진행됨.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을 지원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콘텐츠보다는 주체를 중점 지원했다는 점으로, 콘텐츠 개발 등 사업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전략개발비, 전담인력 인건비,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민간주체가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음.

○ 시민주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문화예술 전문 단체에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주체(전문가, 예술가, 일반시민)가 자발적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 예산 활용까지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고, 조직과 활동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원함.
- 프로그램 뱅크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예산 중 최대 30%는 예비비로 책정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

71) 김재순(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7년의 시도와 고민', 「2016 인천문화예술교육 토론회 부.탁.해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65.

- ‘시시콜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접근이 어려웠던 공동육아 조직, 소수자모임, 청년 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조직이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지원받게 됨.

발아기	2010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공급형)
		▼	
실험기	2011~ 2013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지원	
		사회적기업, 시민문화공간 대상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외, 공간 리모델링, 연구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및 홍보 활동 등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 자생 가능한 모델 개발
		▼	
전환기	2014년~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시시콜콜)	
		주민조직, 청년단체, 협동조합 등 생활권 단위 새로운 주체 발굴, 성장 지원	2011~2013년 모델 개발 사업 토대로 지원주체 확대 및 지원방식 다각화

* 2015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과 연구 中 요약 발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림 11】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흐름

2.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례조사결과

1) 국내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례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사업 ‘시시콜콜’ 72)

① 시시콜콜 사업개요 (2014~2016년 시행)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4~2016년 (3년간)
참여대상/지원대상	일반시민 / 전문가·비전문가 통합조직
사업내용	조직·공간·프로그램 운영비 통합 지원
사업규모	3년간 총 88개 사업 지원 (매년 25~30개 단체 지원 / 단체 당 500만 원~3000만 원 지원)

【표 10】 시시콜콜 사업개요

○ 시시콜콜은 시간(時)과 장소(市)에 구애받지 않는 교류(call)와 협업(collaboration)을 의미함. 2014년에 시작하여 3년간 총 88개 사업을 지원하였음.

- 2014년에 27개 단체, 2015년에는 33개 단체, 2016년은 28개 단체로, 매년 25~30개 단체를 지원해왔으며, 단체 당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 시시콜콜의 지원대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통합한 조직임.

- 일상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이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의 문턱을 낮춤.
- ‘시작기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공모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진행함.

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구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시작기	"기존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성장기
지원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이디어 실험, 파일럿 운영이 필요한 단계 지원	• 기존 활동 경험, 실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 지원
신청 조건	• 운영 조직 형성 초기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 * 조직 구성이 오래되었고, 타 문화 예술교육 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라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는 시작기에 해당	• 운영 조직 확장 단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전 단계 * 본 사업 신청 전, 기존에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 또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성장기를 신청
중점 지원 내용	• 조직 형성 및 역량 강화 활동비 • 프로그램 개발 및 파일럿 운영비	• 조직 확장 및 역량 강화 활동비 •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규모	• 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000만 원

【그림 12】 시시콜콜 신청유형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3.

○ 시시콜콜의 예산은 조직, 프로그램, 공간 등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반조성비로 활용가능함.

지원항목	세부내용
조직운영	내부인력 역량 교육, 활동가 활동비, 네트워크 활동 등
프로그램운영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실험(파일럿) 운영 등
공간운영	공간 기능 개선(리모델링, 기기구입 등)
기타	홍보, 마케팅,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축제, 세미나 등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자율 제안 가능
프로그램뱅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가능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3.

【그림 13】 시시콜콜 지원내용

② 시시콜콜 사업배경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복지기관, 특수기관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대상에게 전문가(단체, 강사)가 기획한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사업과 예산 규모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관과 시설이 아닌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의 빈틈은 곳곳에 존재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이러한 공급형·하향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향식 지원방식을 통해 일상 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활동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시민들이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음.

- 시시콜콜은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로서 현장의 자율성을 보조하고 지원하여, 자발적인 활동의 촉매제와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함.
-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의 문턱을 낮추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③ 시시콜콜 선정사업 73)

㉠ 토끼똥공부방

○ 지역주민들의 자치공간이자 공동체인 '민중의 집'은 토끼똥공부방을 운영

- 토끼똥공부방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휴식을 취하며 또래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움

7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토끼똥공부방
프로그램 지역	서울시 마포구
프로그램 내용	길고양이를 위한 화장실 제작 및 길고양이와 관련된 단편영화 제작
홈페이지	http://blog.daum.net/tokkiddongblog

【표 11】 토끼똥 공부방 사업개요

○ 아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길냥이 돌봄이' 동아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됨.

○ 토끼똥공부방 아이들은 길냥이 돌봄이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시시콜콜에 '묘한 동네에서 공존하기' 프로젝트를 제안함.

- 민중의 집 오현주 공동대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시콜콜 사업 공모를 본 오현주 대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토끼똥공부방의 활동 중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시시콜콜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 길냥이 돌봄이 활동은 시시콜콜을 통해 '묘한 동네에서 공존하기'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길냥이 돌봄이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동물보호교육을 받고, 길고양이를 관찰하며 그린 그림으로 엽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 주민들이 길냥이 돌봄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배설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길고양이들을 위한 화장실도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였음.
- 또한 아이들이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출연하는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결과공유회를 상영하였음.

【그림 14】 길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모습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41)

【그림 15】 단편영화를 촬영하는 모습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43)

㉡ 세손가락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세손가락
프로그램 지역	강원도 강릉시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콘텐츠 제작 및 페스티벌 개최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3songarak

【표 12】 세손가락 사업개요

○ 세손가락은 운영진과 참여자로 이루어져 있음.

- 운영진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감.

○ 고정적인 지원이나 후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시시콜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시시콜콜 지원사업으로 라디오방송,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축제까지 개최함.

【그림 16】 세손가락 내부모습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55.)

【그림 17】 세손가락의 활동 결과물 '방구석 내원고'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57.

㉢ 달꽃창작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달꽃창작소
프로그램 지역	서울시 용산구
프로그램 내용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연극
홈페이지	https://dalggott.blog.me

【표 13】 달꽃창작소 사업개요

○ 2016년에도 계속된 달놀이 꽃연극은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4가지 수업으로 구성됨. '쉬운 움직임', '말로 쓰는 희곡', '보고.하는.연극', '보이스 플레잉' 등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그 과정에 더 집중하는 수업임. 남산 주위의 학교 수에 비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적은 편임.

○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남산으로 이사 온 최규성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동네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다 적절한 놀이터와 배움터의 필

요성을 체감하고 예술교육에 관심이 생김.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예술학교 달꽃창작소를 열게 됨.

○ 달꽃창작소는 시시콜콜에 선정되기 전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영역에 걸친 교육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오다 연극수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시콜콜에 지원하게 됨.

- 달꽃창작소는 시시콜콜을 통해 전문위원이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강사진 구성과 수업 방향 등 프로그램 연구개발 기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움.

○ 달놀이 꽃연극 프로그램은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연구개발 기간 동안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수업 방안을 고민한 것은 프로그램 진행에 큰 도움이 됨.
- 본래 '교육연극'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참여자들을 교육하는 주체인 성인과 그 혜택을 받는 청소년으로 나누어버릴 우려가 있어 '연극놀이'로 접근법을 바꿈.
- 2015년에 첫 발을 내디딘 달놀이 꽃연극에서 참여자들은 자기표현에 집중하는 연극과 연기를 경험했음.
- 12주 동안 진행한 달놀이 꽃연극의 활동을 '가지가지 하자'라는 발표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그림 18】 보이스 플레잉 수업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77.)

㉣ 감성노리 협동조합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감성노리 협동조합
프로그램 지역	강원도 춘천시
프로그램 내용	춘천지역 청년들의 생활문화 공동체 마련
홈페이지	https://business.facebook.com/ksnor2/

【표 14】 감성노리 협동조합 사업개요

○ 2013년 12월, 협동조합은 자기만의 삶을 사는 청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5명의 청년 모임으로 발전했음.

- 이때부터 카페에서 글쓰기 모임, 낭독 프로그램, 미술과 사진을 매개로 한 소소한 문화 예술 활동과 모임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시작됨.
-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진을 찍고 사진집을 만드는 사진소통모임 '찍다', 주제에 따른 그림을 그리고 일상 미술전시회를 여는 미술소통모임 '그리다' 등 사람과 소통하는 예술 소모임도 탄생했음.
- 2015년, 새롭게 재정비된 인문학 카페 36.5°의 운영진 6명이 수많은 문화 행사와 강연회, 모임을 기획하여 진행한 결과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성공함.

○ 감성노리 협동조합은 시시콜콜을 통해 그동안 해 왔던 문화예술 행사를 2015, 2016년 2년에 걸쳐 '온통 PROJECT : 따뜻하게 통하다', '춘천꼬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화두 '페미니즘'를 던짐.

- 프로젝트 '온통'과 '춘천꼬뮨'의 본질은 '진실한 소통'을 지향하고, 춘천지역 청년들의 대안학교 '우주대학'을 통해 생활예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인문학 강연회를 진행했음.
- 예술을 통한 일상의 재발견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독립출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내고자 운영진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음.

○ 2015년 시시콜콜 지원사업 '온통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독립잡지 〈계간진지〉를 비롯해 약 7종의 출판물을 만들면서 독립출판강연회를 열어 운영진을 비롯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 출판에 관해 공부하고 운영진은 책 만들기에 필요한 개인 역량을 키움.

- 〈계간진지〉는 '꼰대'와 같은 남다른 주제선정으로 주목받았음.
- '꼰대'라는 주제로 책을 단순히 엮은 것이 아닌 '꼰대 콘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사연을 수집했음.
- SNS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한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창조경제센터'는 센터장이 직접 연락을 해 '꼰대 콘테스트'를 크라우드펀딩에 올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음.

○ 인문학 카페 36.5°는 시시콜콜 사업으로 카운터 뒤에 있는 약 5평의 창고를 사무실 겸 소모임 공간으로 탈바꿈시킴.

【그림 19】 독립출판의 결과물들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97.)

ⓜ 생활연극네트워크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생활연극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	서울시 서초구
프로그램 내용	시민들을 위한 연극특강 및 연극관련 서적 출간
홈페이지	http://www.생활연극.org

【표 15】 생활연극네트워크 사업개요

○ 생활연극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연극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연극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진행하는 '원바이원' 프로그램에서는 차례대로한 명씩 창작자가 되자는 뜻인 그 이름처럼 직접 만든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음.

- '원바이원'의 활동은 단 3시간 안에 끝나는데, 각자 생업을 가진 이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임.
- 학생 중 한 명이 참여자 전원이 출연할 수 있는 짧은 대본을 써오면 그것을 활동 당일에 읽고 캐스팅한 후 대사를 외워 무대에 올림.
- 1년 동안 3학기를 이수하고 작은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동문 극단 '생동씨어터'에 입단할 수 있음.

○ 시시콜콜을 통해 생활연극네트워크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했음.

-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어보는 특강, 연극창작 과정을 책으로 엮어내거나 '찾아가는 생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샨티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했음.
- 시시콜콜을 통해 대본집도 만들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활연극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쓴 대본이 약 200여 편 책으로 만들어졌음.

【그림 20】 원바이원 활동 사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15.)

㉥ 일곡품앗이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
프로그램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프로그램 내용	주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마을품앗이

【표 16】 일곡품앗이 사업개요

○ 광주 일곡동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품앗이를 생각해냄.

- 광주 북구 일곡동과 삼각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일곡마을은 30~40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신도심이며,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 한새봉 두레, 생활협동조합 등 여러 주민 활동이 활발한 곳임.
- 1년에 한두 번 주민단체가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일곡마을 회의에서는 주민의 화합을 위해 품앗이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옴.

○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은 일곡마을에서 방과 후 육아교실이 생기길 바라는 엄마들이 모여 만들었음.

- 원룸을 빌려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차에 마을기업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마을기업이 된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은 아이들을 돌보고 간식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인 ‘에코맘 간식카페’를 만들었음.
- 에코맘 간식카페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던 중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은 시시콜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유기농 간식카페는 주민들의 배움터이자 품으로 거래하거나 무료 나눔을 할 수 있는 주고받기 센터로 재탄생했음.
- 1년 후, 단체보다는 여러 단체가 같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시시콜콜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곡품앗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됨.

○ 품앗이를 진행하기 위해 시시콜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체인 ‘꿈꾸는 엄마들 협동조합’이 주관을 맡음.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시시콜콜은 일곡마을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과 방향이 일치했음.
- 서로 일을 거들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의 전통적인 노동 교환 방식은 현대에서 물품과 교육재능을 교환하는 ‘일곡품앗이’로 새롭게 탄생함.
-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품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터와 축제를 개최함.

○ 일곡마을 품앗이는 자신이 보유한 노동과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임.

- 시시콜콜을 시작한 첫 해,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품앗이에 관해 공부하다가 지역화폐를 활용한 품앗이를 기획함.
- 대전 한밭레츠 등 지역품앗이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품 통장 등 품앗이를 하는 방법을 배운 결과 일곡마을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통해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 제도인 ‘일곡마을 품앗이’가 탄생했음.
- 일곡품앗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사람들끼리 일상적으로 하는 일대일 거래는 ‘품앗이 통장’을 통해 할 수 있음.
- 거래되는 물품과 노동의 가격은 회원의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함.

○ 일곡품앗이는 생활의 기술학교를 통해 품 거래를 활성화시킴.

- 생활의 기술학교는 일곡마을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품앗이 배움로, 자신이 가진 재능이라면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음.
- 마을 공방의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뜨개질, 목공예, 꽃꽂이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두 달에 한 번씩 공원에서 열리는 품앗이 장터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를 진행함.

- 품앗이 장터는 완성된 제품보다는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재능을 판매하는 장터임.
- 품앗이 장터는 아이들도 참여하며, 본인의 재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뽐낼 수 있는 공연 또한 진행됨.

【그림 21】 일곡마을 품앗이 장터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31.)

㉦ 세월모꼬지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세월모꼬지
프로그램 지역	경기도 양평군
프로그램 내용	마을 내 생활예술가 발굴 및 생활동아리 구성

【표 17】 세월모꼬지 사업개요

○ ‘세월모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마을에는 작은 시골학교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임.

- 세월초등학교는 강상초등학교 분교 시절을 합하면 60년이 넘은 역사를 지녔지만, 마을 젊은이들이 서울로 떠나면서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유입되지도 않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의 위기를 맞았음.
- 2008년에 세월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뜻을 모은 교사, 예술가, 기획자, 주민, 그리고 동문이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재구성했음.
- 1년 동안 마을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세월초등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열린교육을 시행하는 초등학교로 유명해지면서 3년 뒤 50여 명이었던 전교생이 130명까지 늘어남.
- 그러나 학생의 80%가 이주민 자녀들로 구성되자 외지인이 늘어나고 학교 분위기가 생소해졌다는 이유로 마을 분위기가 달리짐.
- 세월초 교사 2명과 학부모 3명, 마을 예술가 1명, 그리고 2008년부터 세월마을학교 축제를 함께 만들며 인연을 맺었던 문화 코디네이터 김지연(현 세월모꼬지 대표)이 모여 해결책을 강구함.
- 2013년, 마을과 학교를 위한 문화기획 모임 ‘세월모꼬지’가 탄생함.

○ 존폐 위기에 직면한 2008년부터 세월초등학교는 마을과 학교의 공동체적 상생을 지향하며 ‘마을학교축제’를 개최함.

○ 2009년에는 ‘마을 달인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마을 어르신을 강사로 모시고 마을 이야기를 듣거나 공예 작품을 배우기도 함.

【그림 22】 세월모꼬지의 활동 공간 '세월문화사랑방'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53.)

○ 마을회관 2층을 고쳐 '문화사랑방'으로 꾸미고 활동을 개시한 세월모꼬지기획단은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세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함께 만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2~3달 간격으로 모두 7번의 '세월달시장'을 개최함.

- 달시장을 연 목표는 강상면의 문화예술가와 전문작가는 아니지만 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하는 생활예술가를 발굴, 소개하면서 지역인의 문화예술 잠재력을 살리고, 더불어 지역민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이 외에도 세월모꼬지는 어린이들과 마을 어른들의 참여를 높이고, 세대 간 교류, 지역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 주민과 썰매장 만들기, 외부 강사 초빙 특강, 현장탐방 등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함.

○ 세월모꼬지의 첫 행사였던 세월달시장은 시시콜콜 사업을 계기로 학부모를 주축으로 한 '세월 시시콜콜 기획단'을 구성함.

- 요리 교실, 소품 만들기 모임, 우쿨렐레 연주 활동으로 워밍업을 마친 기획단은 이듬해 봄부터 우쿨렐레 동아리를 만들고, 2015년에 총 4번의 달시장을 개최함.

- 기획단은 우선 세월마을이 문화예술 마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장 프로젝트2'를 기획함. 세월리가 속한 강상면에 사는 생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DIY 생활용품 만들기, 요리교실, 재봉틀 수업, 도자기 수업 등 다양한 동아리를 결성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펼침.

【그림 23】 세월리 임경재 할아버지의 짚풀공예 시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61.

◎ 문화기획달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문화기획달
프로그램 장소	전북 남원시(살롱드마고)
프로그램 내용	페미니즘을 결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mooncult.blog.me

【표 18】 문화기획달 사업개요

○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달은 도시에서 온 여성과 농촌마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단체임.

- 문화기획달의 운영진은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들임.

- 남원시 산내면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농촌마을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주제와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음.
- 산내면의 단체 중 하나인 문화기획달도 처음부터 여성단체를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문화기획달의 사업에 참여하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건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기획달은 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음.
- 문화기획달은 '삶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주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리산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문화기획달에게 시시콜콜를 통해 여성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 문화기획달은 시시콜콜 사업을 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음.
- 문화예술과 페미니즘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음.
- 2016년 상반기에는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퉁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마을 여성들과 함께 성차별과 성폭력 경험을 나누는 토크파티를 열었음.
- 하반기에는 지역 의제를 공유하는 '산내포럼'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음.
- 문화기획달은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의 생활밀착형 B급 교양문예지 '지글스', 다른 지역에서 글을 쓰는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독립출판물 만드는 여자들의 지리산 네트워크 파티', 예술로 페미니즘을 풀어나가는 '페미니즘 아트스쿨'과 '페미니즘 액션스쿨', '지글스'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타 지역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시시콜콜 사업의 총체적 문화마당 '지역 여성 글쓰기 포럼' 등의 활동을 함.

○ 살롱드마고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거나 교육을 하는 작가와 화가가 몇 달간 머물거나 문화기획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됨.
- 살롱드마고의 시설은 생활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미비했으나 시시콜콜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음.
- 문화 활동에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살롱드마고는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 많은 이용 문의를 받고 있음.

【그림 24】 페미니즘 아트스쿨이 만든 '2017 페미니즘 캘린더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79.)

【그림 25】 페미니즘 액션스쿨 참여자들의 공연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183.)

㉦ 소자모 바람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체	소자모 바람
프로그램 지역	전북 군산시
프로그램 내용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표 19】 미술공감 채움 사업개요

○ 미술공감 채움은 군산 지역의 소수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커뮤니티 소수자를 위한 자발적 모임(소자모) '바람'을 구성함.

- '미술공감 채움'은 소수자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치유와 궁극적인 자립을 꿈꾸는 문화예술단체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선후배 작가들과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복지사 등 뜻을 같이한 지인들이 모여 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소수자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줄 '소수자를 위한 자발적 모임(소자모)'을 만들었음.

○ 2014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시콜콜'을 통해 규모를 늘리고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 가장 먼저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자이자 시인인 전병조, 전북소아암부모회장인 조혜란 회원처럼 자신이 소수자이면서 소자모 '바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들을 영입함.
-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작업실 공간 한편에 마음건강책방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카페 공간도 만들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소수자들과 바람 회원들이 일일 카페를 운영해 수입을 창출했음.
- 소수자와 바람 회원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벽면에 전시해 소수자 문화예술공간으로써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소자모 바람은 소수자 및 시민 동아리 모임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저마다의 감정을 종이에 담아내는 '꼼지락미술동아리', 알콜 중독이라는 삶의 무게를 예술 활동으로 소소하게 풀어내는 '단희모임',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지켜주는 '맛있는 미술

이야기', 아이들의 마음건강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의 모임인 '해피맘', 수송동 미래경로당 미술동아리 '꽃 손' 등이 있다.

- 소자모 바람은 소수자들의 작품 활동을 통한 자연스런 치유와 자립을 꿈꾸어 왔던 만큼 문화예술을 통해 소수자들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에는 월명동에 공간 '따숨'을 오픈해 지속가능한 소수자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다양한 예술가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 따숨은 재능기부, 아트상품 개발 및 홍보, 소수자 활동 공간의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면서 소수자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내고 있음.

○ 미술공감 채움과 소자모 바람은 소수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함.

○ 마음건강시민강좌, 마음건강 캠페인 등 시민들이 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수자와 일반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만지는 감각책 만들기, 지역아이들을 위한 동화구연 등 '마음건강책방'을 특화하려는 노력도 함.

【그림 26】 소수자들이 제작한 물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 '따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201.)

【그림 27】 소수자를 위한 '감각책'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p.205.)

나. 성미산마을 74)

구분	내용
사업 주체	성미산마을공동체
사업 장소	서울시 마포구
사업 내용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문화예술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sungmisantheater.cafe

【표 20】 성미산마을 사업개요

㉠ 성미산마을 배경

○ 2007년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추후 동아리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음.

-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예술활동이 있으면 함께할 주민을 모아서 신청하면 교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결과 축제 이후 몇 개의 동아리가 형성됨.
- 2008년 축제 또한 같은 형식을 반복하면서 대여섯 개의 동아리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강사를 초대하고 연습할 장소를 구하고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됨.

㉡ 성미산마을 내용

○ 마을 주민들이 만든 주민 풍물패 '성미산풍물패'는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좋은 강사를 초대해 함께 활동하고 있음.

- 성미산풍물패는 매년 가을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정기공연을 하고 있음.

○ 성미산마을축제는 매해 봄에 열리는 마을축제로, 주민들이 준비하고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임.

- 평상시에는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이웃들과 어울려 문화예술동아리를 참여하고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성미산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성미산마을축제는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영방식을 취함.

- 이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주민 조직의 대표자들이 모여 축제를 하자고 결정하면 각 모임에서 축제를 준비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모아 축제 프로그램과 홍보 등 여러가지를 준비했음.

7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39-44.

- 2007년부터는 축제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는데, 매년 초에 주민 모임 게시판을 통해 축제를 준비하고 싶은 주민들이 모여 축제준비팀(축제집행위원회)을 조직함.
- 축제준비팀에서 축제의 날짜와 대략의 공간(마을의 골목길과 마을극장 등)을 정하고 축제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함.

○ 성미산마을극장은 성미산마을주민들과 마을로 이주한 시민단체 '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만든 시민공간임
- 80석 규모의 마을극장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발표회, 졸업식, 전시회, 영화 상영, 회의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짐.

다. 마을극장 수유리 75)

구분	내용
사업 주체	강북 마을공동체, 진동극단
사업 장소	서울시 강북구
사업 내용	시민들을 위한 마을극장

【표 21】 마을극장 수유리 사업개요

㉠ 마을극장 수유리 배경

○ 강북구 내 마을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2013년 '강북마을연극축제'를 개최함.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을 중심에 둔 마을에서는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한 모임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 당시 강북구는 지역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지역단체들과 마을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을 위한 상설 공연장은 부족했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85개의 공공시설 공연장과 민간공연장이 있고 강북구에는 3개의 공연장(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청소년 수련시설 난나극장, 여성보육정보센터 극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곳은 주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극장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대관 절차가 복잡하거나, 대관 일자가 확보되지 않는 등 일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 시설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었음.

7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71-79.

- 모임들은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1차원적인 만족에서 발전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시회 및 공연들을 계획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발생하게 됨.

○ 강북마을연극축제를 진행하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고, 마을극장을 위한 모임이 결성됨.
-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장을 대관하고 극장 공간을 사용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사람들은 커뮤니티 마을극장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음.
- 함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모임들이 모여 재미난 커뮤니티 마을극장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음.
- 커뮤니티 마을극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극장의 모습을 도출해냄.

㉡ 마을극장 수유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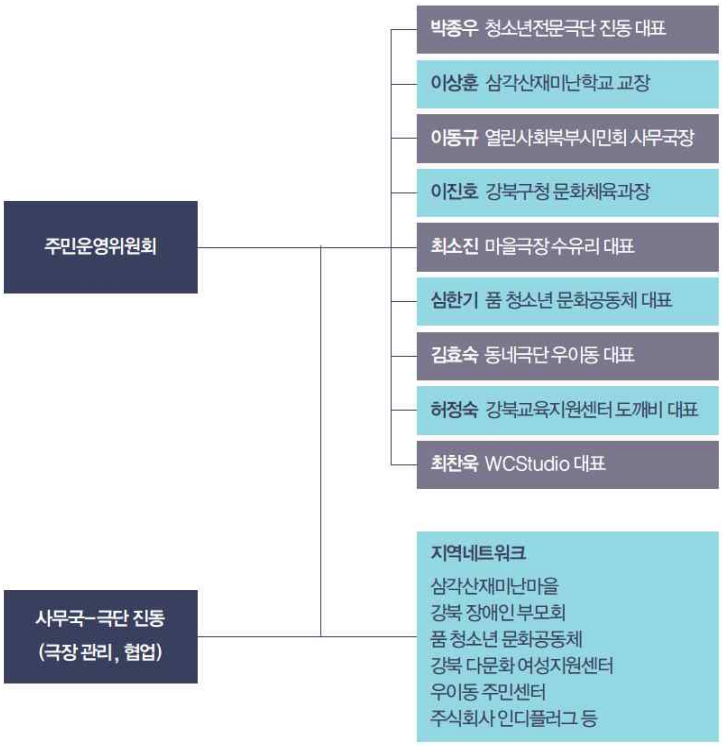
○ 마을 안에서 예술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진동의 공간을 커뮤니티 마을 극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강북주민 및 주민 모임과 극단 진동의 공간을 공유하기로 결정함.

○ 마을 안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 운영위원회를 조직함.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 마을 전문가가 직접 연출하고, 마을 목수가 무대를 만들고, 마을 디자이너가 의상을 만들고, 마을 작곡가가 노래를 만드는 방식임.

○ 마을극장 수유리의 주요 활동은 주민이 만드는 생활 예술 활동임.
- 일반적인 극장처럼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기보다는 주민들, 동아리들,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만나는 축제를 기획함.

○ 마을극장 수유리는 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의 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예술인들이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면서 경쟁적이며 상업적인 승자독식의 문화예술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건강한 예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예술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 마을극장 수유리는 공연 발표를 위한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임.
- 연극, 콘서트, 영화 등 발표만을 위한 일회적인 공간을 넘어 지역, 예술, 사람, 문화가 일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린이 연극교실’, ‘이주다문화여성극단’ 등의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함.



【그림 28】 마을극장 수유리 조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76)

【그림 29】 마을극장 수유리 프로그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78)

라. 신포살롱[76]

구분	내용
사업 명	신포살롱
사업 주체	신포살롱
사업 장소	인천시 중구

【표 22】 신포살롱 사업개요

㉠ 신포살롱 배경

○ 신포살롱은 인천의 청년 문화와 청년 자립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함.

- 신포살롱은 공연, 프리마켓, 문화예술 프로그램, 스터디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시작함.
- 이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함.
- 청년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거치면서 주거, 일자리, 문화 영역에서 지역과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거점을 기반으로 문화 기획, 사회적 경제,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신포살롱 내용

○ 신포살롱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청풍상회'는 강화풍물시장에 있는 유휴 공간에서 청년들이 피자 장사를 해가며 자립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시장을 주제로 랩도 만들고, 축제도 기획하고, 지역을 고민하는 소셜다이닝을 만드는 등 강화 지역과 시장에서 청년 주체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
-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시장 상인들이 청년들을 인큐베이팅해 주었는데, 아침밥을 챙겨주고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 프로그램 '동네탐구생활'은 청년 및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해보고 싶은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임.

7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81-87.

- 최소한의 시드머니(Seed Money: 초기 투자에 활용할 종잣돈) 마련 방법과 다른 여러 사례를 공부하는 워크숍을 통해 협동하는 등의 문화 활동의 경험하게 함.
- 여고생들의 버스킹, 프리마켓, 그림 연구모임, 독립 출판 도서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프로그램 이름	내용
끼룩끼룩갈매기여관, 아삭아삭순무여관	지역 내 유휴 공간이나 적당한 공간을 발굴하여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청년, 주민, 예술가, 관광객 등이 교류하고 협업하고 거주하며 게스트하우스로 이용.
청풍상회, 부평로터리마켓	지하상가, 시장 등과 결합하여 청년의 자립 가능성과 세대 간 교류를 만들어 나감.
좋아요 인천 페스티벌	지역의 청년, 예술가, 상인, 주민들과 같이 축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문화활동 인큐베이팅 및 청년 활동 네트워크 구축.
빌리지디자인스쿨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그룹들이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
동네탐구생활	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고 찾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나감.

【그림 30】 신포살롱 프로그램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84.)

【그림 31】 신포살롱과 인천 청년들이 같이 만든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문화행사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87.)

마. 우리동네 하하발전소[77]

구분	내용
사업 주체	우리동네 하하발전소
사업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사업 내용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표 23】 우리동네 하하발전소 사업개요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 배경

○ 울산시 북구 중산동은 울산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은 마을에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음.[78]

- 2010년 개관한 중산문화센터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센터가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함.

○ 중산문화센터는 2012년 시작한 시민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하하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예산,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마을의 문화예술 리더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고, 결과 지역이 처한 현실 속에 있는 주민,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오신 중장년층 주민들을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키는 주체로 세움.

○ 중산문화센터에 하하발전소(하하! 웃음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을 짓고 '마을의 다양한 대상이 즐길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마을의 주체를 발굴하여 지역 재생', '문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간 재생'을 세 가지 중심 운영 키워드로 삼음.

7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99-107.
78) arte365(2013.12.19.), "잊혀진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http://arte365.kr/?p=17175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커뮤니티 거점을 만드는 사업으로 기존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개인의 취미, 기술 습득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중심을 둠.
- 하하발전소는 4개월동안 '수요밤마실'마을 프로젝트, '우리가족 OST' 등의 프로그램과 예술축제를 진행함.
- 시즌1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의향, 원하는 시간대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하하발전소 시즌2를 기획함.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 내용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의 시발점은 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임.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는 마을 내 엄마들이 모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한 '수요밤마실', '감성카페', '컬쳐살롱' 등의 활동으로 시작됨.
- 마을 엄마들이 모여 기획한 '우리마을 예술버스'는 숨어있는 우리 마을의 문화자원을 찾아내고, 그곳을 예술정거장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꺼리를 제공하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프로젝트임.
- 마을의 숨은 곳을 찾아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염색, 두부 만들기, 역사공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서부터 직접 진행하기 위한 콘티와 시연까지 마을주민인 엄마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했음.

○ 우리동네 하하발전소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구성하여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문화생산자, 서로 나누는 문화소비자를 지향함.

- 동네에서 재주 많은 마을 주민들을 찾고, 마을극단', '마을밴드', '마을목공소', '마을미디어' 등 24개의 마을 강좌를 기획함.
- 마을강좌는 재주를 가진 주민들이 직접 수업을 기획하고, 선생님이 되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재미를 알려주는 과정임.
- '작은 도서관 문화예술네트워크'는 도서관이 마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봉사자 및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책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임.
- '마을대학', '하하아카데미'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예술축제' 또한 직접 기확하고 진행함.

【그림 32】 우리마을 예술버스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102)

바. 빈가게[79]

구분	내용
사업 주체	빈가게
사업 지역	서울시 용산구
사업 내용	청년들의 생활소통 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빈집 활용
홈페이지	http://binzib.net/xe/

【표 24】 빈가게 사업개요

㉠ 해방촌 빈가게 배경[80]

○ 2008년 주거문제를 고민하던 청년들이 '빈집'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함.

- 해방촌은 해방 이후 월남한 사람들과 6.25전쟁 피란민들이 자리 잡아 살았던 비탈

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p.109-
80) arte365(2013.12.19.), "잊혀진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http://arte365.kr/?p=17175

마을이자 한때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미개발 다세대 서민 주택 지역이었던 마을로, 마을엔 주민 센터 하나 뿐,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커녕 생활시설과 교육기관도 부족한 곳임.

- 2008년 주거문제를 고민하던 청년들이 해방촌에 모여 집을 구해 '빈집'이라 이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함.

○ 빈집의 청년들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생활소통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로 함.

- 해방촌 중심 거리 1층에 위치한 '빈가게'는 마을의 카페, 생협, 북카페, 공연장, 동아리방 등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과 청년이 일상에서 쉽게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
- 인문학 공동체, 동네 어머니와 아이들의 사랑방인 '종점수다방', 육아교육모임 '아이책읽기'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동체가 생겨남.
- 빈가게의 영향으로 '신흥시장 상인회, 동사무소, 부녀회, 봉사단' 등 그동안 쇠락하거나 활동이 부진했던 공동체들 또한 활동을 재개함.

○ 빈가게는 '빈연구소'로 확장하여 마을 주민과 만나 적극적으로 해방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음.

- 마을의 공공 공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공동체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현재에서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해방촌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빈연구소의 목표임.

㉡ 해방촌 빈가게 내용

○ 빈가게는 영업공간이자 문화공간임.

- 빈가게는 음식, 생협물품의 판매처이기도 하고, 각종 강연, 세미나, 회의를 위한 대관처를 제안하거나 주민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문화공간이기도 함.

공간	구조
영업하는 카페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채식 음식 식당과 베이커리	공식출범은 여전히 준비 중
늦게까지 하는 술집	출자금과 공동체은행에서 보증금을 이용하는 공유공간
편하게 가는 밥집	주 4일 이상 일하는 상근마스터와 주 2일 이하로 일하는 활동마스터로 구성
각종 강연, 세미나, 회의를 위한 대관처	누구나 마스터로 지원 가능
공연, 영화 상영, 전시회를 제안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수평적 의사 결정(마스터 회의)
생협물품 판매처	때때로 조합원 총회
주민들의 수공예품 판매처	
해방화폐 환전소	
각종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곳	

【그림 33】 빈가게 운영방식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110.)

【그림 34】 동네 벼룩시장 '쪽장
(출처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p.111.)

2) 해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례

(1) 독일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81], '마더센터'[82]

①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

○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는 베를린 연방주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문화의 대중성과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현실화함.

- 베를린 시내 50개 학교와 30개 예술단체, 25개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감 자극 색깔 체험프로그램 '붓으로 그리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아벤토이어 뮤제움', '신나는 즉흥연주', '오페라와 연극의 밤'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다문화, 멀티문화 시대에 차별 없이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이 모토임.

○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는 도시의 주요 프로젝트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조직, 계획하고 박물관과 다른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행사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방면의 넓은 범위를 보조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설립 이후로 예술과 문화의 대중화와 관계된 여러 이슈들에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음.
- 문화 교육을 위한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 사무실은 2007년에 베를린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음.
-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는 1월 transmediale 08 페스티벌과 함께 시작되었고, 8월에 20주년 댄스 페스티벌과 샤우부데 베를린 극장 1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음.

○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는 수백 개의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 확장된 학교와 예술을 위한 스폰서십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음.

-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는 예술교육 소외대상인 이주자들의 교육문제 개선에도 열의를 띄고 있는데, 담당자인 안네테 리히터-하쉬카는 "청소년들에게 수업 후에 차별

81) 유유진(2019),「창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pp.17~20.
82)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5.09.07.), "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http://saesayon.org/2015/09/07/17473/

없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주민 자녀들은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함.

② 마더센터

○ 독일의 마더센터, 엄마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 독일의 마더센터(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초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음.
-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의 열의와 참여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다듬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이름을 달게 됨.

○ '마더센터' 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 곳으로 시작해 마더센터 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독일 사회에서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복지 체계와 전문가주의의 벽이 매우 공고했지만, 마더센터센터의 창립 회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만나는 등 다년간 끊임없이 요구하고 설득하면서 장벽들을 허물 수 있었음.
- 이는 독일 안에서는 물론 유럽,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번진 '마을 안 여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마더센터는 전 세계 25개국에 걸쳐 1000여 곳 이상 설치되어, 각 나라마다 현지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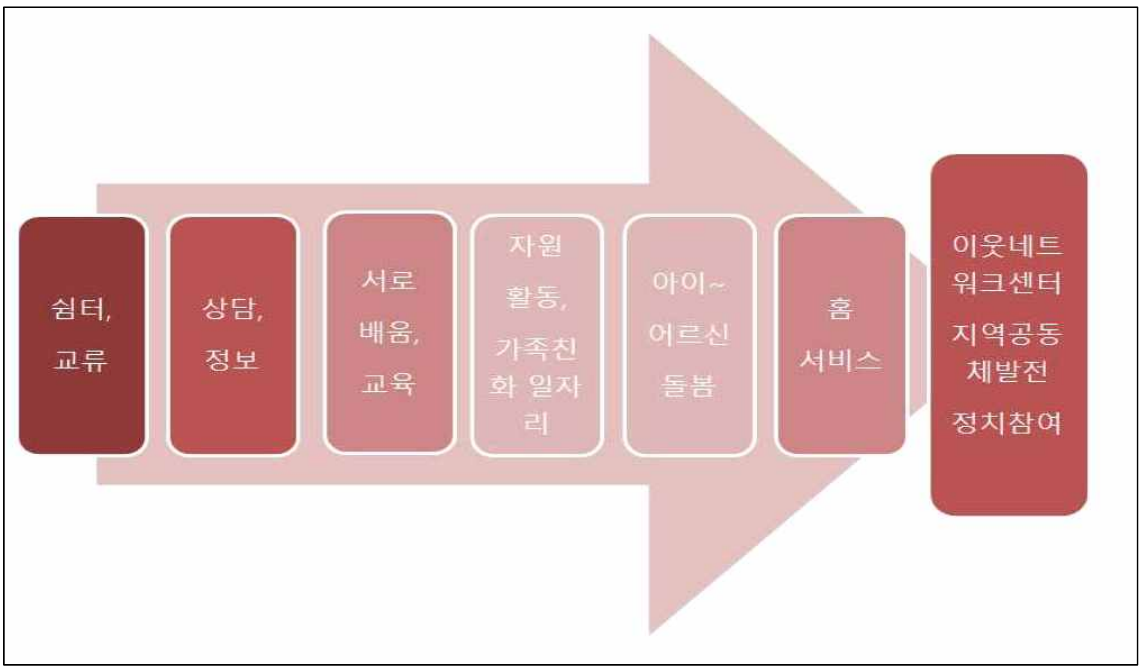
시작	발전	기회의 시장
• 후원자 발굴 • 재정지원 • 운영구조 • 제6법칙(운영진 꾸리기, 모일 장소, 정보수집과 시와 연대, 법적 관리체계, 컨셉, 파트너와 연대)	• 지역공동체서비 • 정치참여 • 맞춤형아이돌봄 • 전문가 협력 • 협력자로서의 부모 • 생활전문가 정의 • 국제화	• 중고할인매장 • 기업인 배출 • 긴급서비스 • 동료배움 • 정보나눔 • 점심테이블 • 바느질 모임 • 수선가게

【표 25】 독일 마더센터 내용

(출처: MINE, "mothers in center, moter centers", 2002, 여기서는 최정은(2015),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p.2 재인용)

【그림 35】 마더센터의 주요발전
(출처: 최정은(2015),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p.5)

【그림 36】 마더센터 운영철학
(출처: 최정은(2015),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p.3)



【그림 37】 마더센터 활동과 발전 방향
(출처: 최정은(2015),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p.5)

(2)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83]

① 아난딸로 아트센터

○ 핀란드는 1999년 이후 기본교육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있음.[84]

- 핀란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점 방향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전통성을 심어주고자 함.
- 핀란드가 이처럼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변 열강들의 침입에 시달려온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되었음.
- 핀란드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어려운 시기에도 문화예술교육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이는 지금의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음.

83) 임고보다 청춘(2017), “핀란드, 영국의 보편적 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 제시”, 「2017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탐사보고서」, pp.12~20.
84) 김설아(2017), 「방문형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와서울지역 방문형 학교문화예술교육 사례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원

○ 핀란드의 예술교육은 지역예술센터인 '타이카람푸'간 네트워킹 중심임.

- 타이카람푸(Taikalamppu)란 '알라딘의 램프'라는 뜻으로 지역예술기관을 지칭함.
- 핀란드 전역에 걸친 11개의 대표적인 타이카람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핀란드에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교육센터가 800개나 되는데, 각 기관은 국가차원의 교육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각 지역 간, 국가 간(스웨덴)의 새로운 예술교육 협력을 도모함.
- 그 중에서도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간 50개가 동시에 운영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

○ 아난딸로 아트센터는 타이카람푸 중 한 기관으로 전문예술가 양성이 아닌 학생들이 전문예술가와 같은 수준의 환경과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은 삶의 질적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모토아래 운영되고 있음.

- 아난딸로 아트센터는 어린이집과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방과 후 예술 활동'과 '학교 정규과정 내 예체능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
- 헬싱키 시민들에게 창작공간이며, 무대이고, 가족단위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아난딸로 아트센터는 약 50명의 현직예술가가 프리랜서로 각자 맞는 시간에 커리큘럼을 개설함.

- 아난딸로 아트센토는 예술가들에게 자격증이나 교육을 요구하지 않음.

○ 아난딸로 아트센터가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로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것'
- 둘째로 '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교사로 모시는 것'
- 셋째로 ' 예술 창작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임.

○ 아난딸로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5x2 프로그램은 학교협업 프로그램이며, 초등학교에 5주동안 2시간의 미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학교에서 한 주에 2시간씩 5주 동안 수영수업을 받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예술교육에 적용하였음.

【 그림 38 】아난딸로 아트센터 전경
(출처: 임고보다 청춘(2017), “핀란드, 영국의 보편적 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 제시”, 「2017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탐사보고서」, p.14.)

○ 아난딸로 아트센터의 문화강좌는 헬싱키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임.

- 미술교육기관, 헬싱키시 교육청과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음.
- 주제는 사랑, 시민의식, 두려움 등을 포함하며 매년 1000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아난딸로 아트센터의 강점은 학교와 분리된 예술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과 그 속의 전문적인 예술 장비와 시설이 있다는 것임.

- 아이들을 위한 사진, 영상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곳에는 암실과 사진과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음.
- 미술작업실에도 전문적인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판화실에는 각종 프레스기 밑 다양한 판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있음.
- 직접 무대를 꾸미고 연출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연극실과, 아이들이 연극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 가득한 의상실, 전문적인 스튜디오와 같은 녹음시설 또한 구비되어 있음,

【 그림 39 】아난딸로 아트센터 내 미술 작업실

출처: 임고보다 청춘(2017), “핀란드, 영국의 보편적 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 제시”, 「2017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탐사보고서」, p.18.

3. 인천 지역 시민 문화예술교육 시행기관 목록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천 내 도서관은 55개, 문화회관 10개, 공연장 18개, 소극장 10개, 박물관 28개로, 총 121개임.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천 내 평생학습관은 15개임.

○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6개임.

(1) 도서관

○ 인천 내 도서관은 55개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http://www.yspubliclib.go.kr/
검암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20(검암동)	http://www.issl.go.kr/main/index.do
영종하늘도서관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중앙로 132 영종하늘도서관	http://www.michuhollib.go.kr/hanul
청라국제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24(연희동 786-6)	http://www.michuhollib.go.kr/gugje
청라호수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59(경서동 947-2)	http://www.michuhollib.go.kr/hosu
송암점자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http://songam.net
부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 3,4층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청천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만수2동 1116-2)	http://namdonglib.go.kr
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00-15(솔샘로 146)	www.yspubliclib.go.kr
이랑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78번길 7 (주안동 1465-13)	http://hnrl.namgu.incheon.kr
꿈벗도서관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32(송학동 3가 6-5)	http://gblib.icjg.go.kr/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동 558-1)	http://www.namdonglib.go.kr/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삼산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부평북로 445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논현동 739-4)	http://www.namdonglib.go.kr/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 (석남동 169-2)	http://www.issl.go.kr/main/index.do
영흥도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02-3	
송림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72 (재능대학 입구)	http://songlimlib.icdonggu.go.kr
간석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간석동)	http://www.namdonglib.go.kr
대청도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134-1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http://www.yspubliclib.go.kr
갈산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74-19(주부토로 254)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부개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59-9 (동수로 166)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인천광역시립 율목도서관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42-15	http://www.ymlib.or.kr
작전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908	http://www.gygl.go.kr/
내가도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797-1	
장사래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190-4	http://hnrl.namgu.incheon.kr/
주안1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 266-1 주안1동주민센터 3층	http://hnrl.namgu.incheon.kr/
도림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도림동 669-18, 19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31 (심곡로 31)	http://www.issl.go.kr/main/index.do
동양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651-2	http://www.gygl.go.kr/
쑥골 어린이 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202번길 49 (도화동 805)	http://hnrl.namgu.incheon.kr
숭의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4(숭의동 129-7)	http://hnrl.namgu.incheon.kr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관교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2(관교동 13-1) 3층	http://hnrl.namgu.incheon.kr
독정골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71번길 1 (용현동 146-442) 2,3	http://hnrl.namgu.incheon.kr
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57-2(배수지길 19)	https://lib.ice.go.kr/yeonsu/index.do
계양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고뒷길 65	https://lib.ice.go.kr/gyeyang/index.do
서구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골1길 89	https://lib.ice.go.kr/seogu/index.do
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길 246(화수동 140-60)	https://lib.ice.go.kr/hwadojin/index.do
주안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 공원길 105	https://lib.ice.go.kr/juan/index.do
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로 891 (십정동 186-454)	https://lib.ice.go.kr/bupyeong/index.do
중앙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9번지	https://lib.ice.go.kr/jungang/index.do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관길 19	https://lib.ice.go.kr/bukgu/index.do
서운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55-055	http://www.gygl.go.kr
효성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65-11외 4필지	http://www.gygl.go.kr/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	http://www.issl.go.kr/main/index.do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산 147 검단복지회관 내	http://www.issl.go.kr/main/index.do
연수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http://www.yschildlib.go.kr
학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44(학익동 4-16)	http://hnrl.namgu.incheon.kr
부평기적의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9-1	https://www.bppl.or.kr/bplib/index.do
백령 공공도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689-4	
강화군립도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01-2 (북문길 42번지 5번길)	http://www.ghlib.net/
인천광역시립 수봉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97-126	http://www.slib.or.kr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인천광역시립 영종도서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9-1	http://www.ylib.or.kr
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610-4 (선인원길 49)	http://www.michuhollib.go.kr/

(2) 문화회관

○ 인천 내 문화회관은 10개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미추홀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전동)	www.mchart.co.kr
국악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숭의동, 문화회관 별관)	www.kukakhall.co.kr
남동소래아트홀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	http://www.namdongarts.kr
중구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 (신흥동3가)	http://artcenter.icjg.go.kr
부평아트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http://www.bpart.kr/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http://art.incheon.go.kr
강화문예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39	http://www.ghss.or.kr/
서구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가정동)	http://www.issi.or.kr
계양문화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1	http://www.gysiseol.or.kr/
수봉문화회관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숭의4동)	http://www.artin.or.kr

(3) 공연장[85]

○ 인천 내 공연장은 18개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스퀘어원 문화홀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10	http://www.square1.co.kr/
트라이보울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송도동 24-6)	http://www.tribowl.kr/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 서구 원창로 92	http://www.issi.or.kr/youth/
검단복지회관	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 18	http://www.issi.or.kr/welfare/design/index.asp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 계양구 방축로 21(방축동 108-1)	http://www.icsmuseum.go.kr/
계양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 11	http://seniors.or.kr
계양문화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1	http://www.gysiseol.or.kr
레미어린이극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59-52번지	
부평아트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186-22번지)	
인천대공원 야외공연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http://grandpark.incheon.go.kr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42(청소년 수련관)	http://www.insiseol.net/institution_guidance/youth1/index.asp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1408)	http://art.incheon.go.kr
동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1.2동 56-1	http://www.youth7942.or.kr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종 5번지	http://www.iecs.go.kr
계양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183번지	http://www.gysiseol.or.kr
인천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길 82(장수동 471번지)	http://www.insiseol.net/
한중문화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1-2번지	http://www.hanjung.go.kr
인천국악회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4동 7-4	http://www.kukakhall.co.kr

85)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분류에 따름.

(4) 소극장

○ 인천 내 소극장은 10개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뉴코아인천점 소극장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구월동)	http://www.eghall.co.kr/
리어카소극장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26	http://cafe.naver.com/gagrearcar
문학시어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618	http://blog.daum.net/munhaktheater
다락소극장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3	http://cafe.daum.net/theatre-dalak
인천학산소극장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81-1 구)용현4동사무소 4층	http://www.haksanculture.or.kr/
돌체소극장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8-17	http://www.clownmime.co.kr
풍물패잔치마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572번지	http://www.janchimadang.com
시민교육연극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181-2	http://cafe.naver.com/ciyuncen/
부개문화사랑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57-6 주민센터3층	
부평문화사랑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365-1 갈산2동주민센터3층	http://www.bpcl.or.kr

(5) 박물관

○ 인천 내 박물관은 28개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영종역사관	인천 중구 구읍로 63(우)22410	www.icig.go.kr/tour/yjhisory01
인천근대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16(선린동)	http://cafe.daum.net/modernmus
재미난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90	http://www.funkr.com
짜장면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http://www.icjgss.or.kr/jajangmyeon/
초연다구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8-1	http://blog.naver.com/choyeondagu
강화자연사박물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33	http://www.ganghwa.go.kr
인천학생6.25참전관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72번길 3-4	
강화전쟁박물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 1366번길 18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war/
혜명단청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15번길 48	http://cafe.daum.net/TraditionalMuseum
한국전통음식박물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71 (운연동 2)	http://blog.naver.com/kfoodmuseum
한국선교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93	http://www.cmmk.or.kr
인천어린이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618	http://www.enjoymuseum.org/
옥토끼우주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http://www.oktokki.com/
애보박물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71	http://www.aebo.co.kr/
범패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70번길 11-13	http://www.nunghwa.org/xe/
국제성서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4번길 16	http://www.biblemuseum.or.kr/
가천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http://www.gcmuseum.org/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http://www.inhamuseum.kr/
강화역사박물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녹청자박물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54	http://www.nokcheongja.or.kr/

(5) 평생학습관

○ 인천 내 평생학습관은 15개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동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동구청소년수련관	http://www.youth7942.or.kr/
연수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	http://www.yeonsu.or.kr/
성 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로 40	http://www.migael.net/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311	http://www.ywcaici.com/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	http://www.namgucenter.or.kr/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50 주암프라자	http://www.sgwomen.or.kr/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http://www.bpy.or.kr/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9-2	http://www.incheonkace.or.kr/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http://www.yeonsu.go.kr/main/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http://www.icbp.go.kr/open_content/main/
미추홀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http://michu.incheon.kr/home/index.asp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http://www.namdong.go.kr/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http://www.gyeyang.go.kr/open_content/main/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YWCA 4층)	http://www.damoa.incheon.kr/main.do

(6) 인천문화재단 운영 공간

○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인천아트플랫폼, 송도 트라이보울, 한국근대문학관,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우리미술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으로, 총 6개임.

시설 명	주소	홈페이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www.inartplatform.kr/
트라이보울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송도동 24-6)	http://www.tribowl.kr/
한국근대문학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15번길 76	lit.ifac.or.kr/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20-24	www.ifac.or.kr/ifac_facility/performance.php
우리미술관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186번길 10 만석동 희망키움터	www.wooriart.co.kr/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ttp://www.ifac.or.kr/7tong/

[부록]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

○ 행 사 명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분과 오픈포럼

○ 행사일시 : 2019년 12월 02일(월) 15:0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H동 다목적실

○ 진행내용

- 사회 및 진행 : 전승용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분과위원)

구 분	진 행 시 간	주 제	발제자
사례 발표	15:00~15:10	예술감상교육 사례발표 1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김은호, 이윤선, 정민지)
	15:10~15:20	예술감상교육 사례발표 2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이연제, 이유경, 임지원)
	15:20~15:30	예술감상교육 사례발표 3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박정미)
주제 발표	15:30~15:50	예술감상교육의 운영방향	윤종필 (CCS525 대표)
	15:50~16:10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DBAE 교육이념의 활용	김상원 (인하대학교 교수)
휴 식 (20분)			
토론	16:30~17:30	지정토론	김재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장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토론	

【 발제 1 : 예술감상교육의 운영방향 】

윤종필 | CCS525 대표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인천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우선 인천문화예술교육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인천문화예술교육 기본 계획에 적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교육으로써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천문화예술교육의 의제로 부각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이행해야 하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총 17개의 목표와 그에 따른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빈곤 종식, 굶주림 종결, 건강과 웰빙, 질적인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시후 행동, 수중 생물, 육지 생물,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등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문화예술교육 기본 계획에는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모든 항목을 지금 당장 연구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연구 가능한 항목부터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행의 단계로 실천을 해 나가기로 논의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실천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래교육이자 세계 시민교육으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이 높고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천 시민의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측면에서 논의 되었던 다른 한 축이 문화교육으로써의 예술감상교육이다.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단어는 임의로 붙여 사용하는 말이다. 사전에도 ‘미술감상교육’ 이라는 말은 존재해도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감상교육의 뜻을 “(미술)예술 활동에 관련된 교육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론적인 접근은 물론 실천적인 접근 모두가 포함된다.” 라고 이르고 있어 미술이라는 용어를 예술이라는 용어와 등치시켜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예술감상교육’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에는 미술을 포함하여 타 장르의 다양한 예술분야들이 참여하고 있어 ‘미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기에 예술감상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 인천 시민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기초적인 교육의 방법론을 문화교육으로써의 ‘예술감상교육’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제시되어 논의 된 교육이론은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인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학문기초미술교육) 다.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활동하였던 미술교육 사조인 ‘이해 중심 미술교육’에서 활용활용을 하였다. 이 미술교육 사조에는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와 미적교육, 사회 중심 미술교육, 미술치료, 보람 있는 여가를 위한 미술교육, 우뇌 계발을 강조하는 미술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등이 포함된다.

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학문기초미술교육)는 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술교육으로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표현의 네 영역에 기초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에 접근한다. 그리고 DBAE의 목적은 생활환경 속에서 미술 작품을 만들고 보고 감상하는 시각적 능력을 키워 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며 미술의 본질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즉, 학습을 통하여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세련된 교양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양인은 미술작품의 질을 높이고 자연현상을 즐기며, 주변환경을 잘 인지하여 환경을 자신에 맞게 적절히 이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한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DBAE가 지향하는 목적에 있다. 이는 곧 문화교육으로써의 예술감상교육이자 시민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논의였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하자면, 필자가 기획 운영하였던 꾸물꾸물문화학교 동네예술대학의 개설 교과목 중에는 한신대 공주형 교수가 강의하는 〈명화의 사회사〉라는 과목이 있다. 이 강의는 공주형 교수가 미술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한 강의 프로그램이다. 다시말해 미술 문외한이 들어도 이애 가능한 수업 내용이라는 뜻이다. 꾸물꾸물문화학교 동네예술대학에서도 일반인들이 수강 대상이었다. 강의의 내용은 고대부터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명화 혹은 명작들을 중심으로 여성, 결혼, 광고 등 다양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각 사회

상을 읽어 보는 작업들이다. 각 시대별로 예술 혹은 미술작품을 보고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읽어 내는 행위는 “미술감상”에 속 한다. 그러나 〈명화의 사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각 시대의 수많은 예술작품들 중에 우리가 소위 ‘명화’나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명화나 명작에는 그 시대상이나 시대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술작품이 가지는 조형성, 제작기법과 원리, 이미지와 상징을 읽는 미술감상을 넘어 시대를 읽어 내는 키워드들을 통해 사회사를 읽어 내는 작업이 겸행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명화의 사회사〉는 ‘명화’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사’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목이나,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의”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예술감상교육을 통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한 방식이겠다는 가설적 논의를 한 것이다. 꾸물꾸물문화학교 동네예술대학에서 진행 된 〈명화의 사회사〉는 수업 이후 참여자들과 함께 종종 토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보통의 미술사 수업들은 대부분 강의자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강의가 진행 되고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질문이나 토론 없이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 수업은 그렇지 않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해외여행에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8년부터 한국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요즘에는 연휴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긴다.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해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교과서 속 명화나 명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전문 강사에 의해서 환등기 속 슬라이드 이미지로만 보고 듣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명화와 작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 된 것이 논의에 던졌을 때는 경험에 의해 할 이야기가 이전보다는 많아졌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과 경험이 이렇게 일반인의 눈높이와 감상의 질을 올려놓았고, 이러한 상태가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술사 강의가 미술사 강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의 추억이 단지 추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충분히 예술감상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구되고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는 인천문화재단과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 관·학 협력으로 우선 이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였다. 향후 예정이기는 하나,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연구팀을 꾸려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감상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할 예정이다. 그 전에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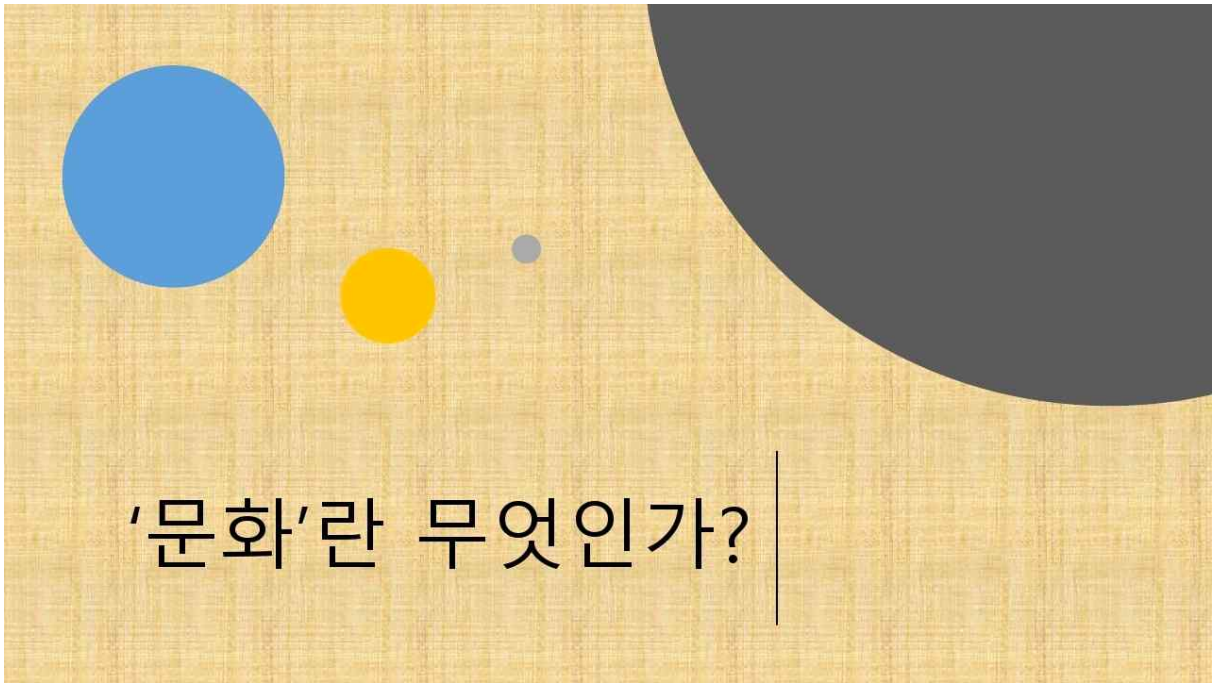
예술감상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는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 〈문화예술교육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과제의 형식으로 제시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인하대와 더불어 출강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문화예술교육 개론〉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과제가 제시 되었다. 그 결과 앞선 사례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에서 2개 팀,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1개 팀이 최종 발표를 하게 되었다.

많은 수강생들이 장르를 위주로 한 예술교육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가 이 과제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학습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의견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개론 과목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과 문화교육으로써의 문화예술교육을 균형감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의 명칭이 '예술감상교육'이다보니 이 용어에서 오는 오해가 존재한 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하였듯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는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시민문화교육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예술감상교육'은 본격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개론〉 과목에서 과제로 다루는 것은 사례수집에도 유효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비 문화예술교육육사들의 학습에 효과적이기도 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올해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교육 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인천문화예술교육의 의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예술감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작은 한 걸음 떼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긴 호흡의 지속성과 집중이 필요하다. 인천의 혹은 인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연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논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발제 2 :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DBAE 교육이념의 활용】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경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What is "culture"?

문화(Culture) vs. 자연(Nature)

문화는 공유된 믿음, 태도, 규범, 그리고 가치를 포함한다!

"가치는 문화에 따라 규정된다!" (Vinson,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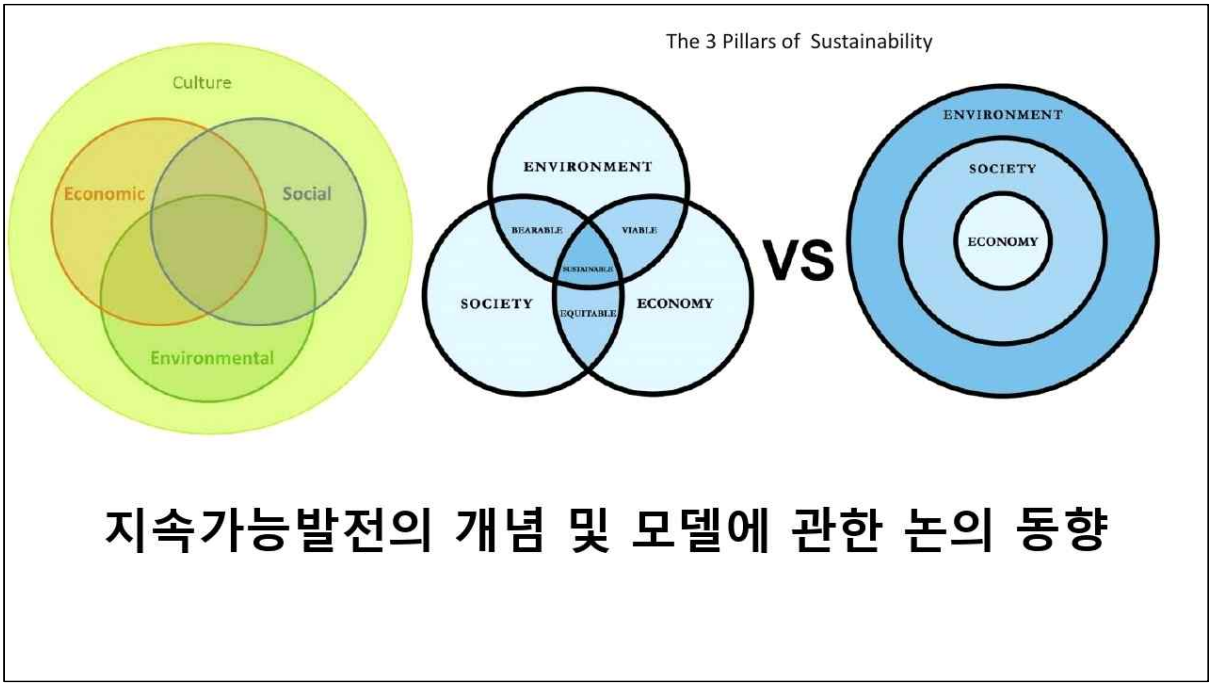
가치의 상대성

- **상대적(relative) 가치와 절대적(absolute) 가치**

궁극적 가치의 문화화

- **가치(Value)? :** "최종적 존재상태가 **다른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지속적 신념" (Rokeach, 1973)
- **가치체계(Value system)? :**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속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 (문화교육, 문화화)
- **가치의 유형:**
  - 궁극적 가치: 존재의 바람직한 최종 상태
  - 도구적 가치: 행동의 바람직한 상태. 행동의 최종 상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
- **바람직한 가치(The desirable) vs. 바라는 가치(The desired)**
  - 바람직한 가치: 욕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 생활지침
  - 바라는 가치: 실제로 갈망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선호하는 행동양식
- **가치체계에서의 "가치의 우선순위 (Value, order of its priority)"?**

궁극적 가치
Sustainable Development
5Ps
PEOPLE
End poverty and hunger in all forms and ensure dignity and equality
PLANET
Protect our planet's natural resources and climate for future gener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ROSPERITY
Ensure prosperous and fulfilling lives in harmony with nature
PARTNERSHIP
Implement the agenda through a solid global partnership
PEACE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The 3 Pillars of Sustainability
Cultur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VIRONMENT
BEARABLE
VIABLE
SUSTAINABLE
SOCIETY
EQUITABLE
ECONOMY
VS
ENVIRONMENT
SOCIETY
ECONOMY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모델에 관한 논의 동향

Culture 21의 목적	• **시민권,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 **달성가능**하며 **측정가능**한 행위와 약속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 아젠다 21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 2004년에 채용된 "문화를 위한 의제 21"을 **보완하기 위해**
	• 시민과 함께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발전시킬 때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 2015년 UN에서 **문화의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과 정의에 기여하기 위해**
	• **the Agenda 21 for Culture, approved in 2004 by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nshrine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sustainabilit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reating conditions for peace; the political declaration 'Cultur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in Mexico City in 2010; and Culture 21 Actions, approved in Bilbao in March 2015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UCLG Culture Summit.** (http://www.agenda21culture.net/who-we-are/committee-on-culture)
	•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 (Agenda 21 for culture):**
	  • 지역문화정책의 강화를 제안
	  • 지역발전모델의 기초 단위로서의 문화통합을 제안
	  • 지역문화정책: 공공기획에서 필수
	  • **2015년 70차 유엔총회**: "우리는 문화가 포함된 미래"라는 공동 **성명서**로 발표

지속가능한 문화와 문화정책은 가능한가?

- "지속 가능한 문화" 또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작동함.
- "지속 가능한 문화"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맞추어야 함을 의미함.
- 문화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조직된 우리의 삶의 조직으로 이해됨.
- 예술적 활동, 생산 그리고 그것의 수용이 문화의 핵심임.
- 예술과 문화가 "**생태학적 지향"의 문제**를 다루는 지 여부는 **각각의 예술가**와 **각각의 예술적 행위**에 달려있음.
- 문화정책은 예술적 생산과 수용의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음.

문화적 과제

- 생태학적으로 책임 있는 생활 방식,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지속 가능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구조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문화적 과제임.
- 생태지향적 문화 정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
  - 첫째, 문화정책은 생태적 사고방식을 이끌어 내는데 민감하게 기여함,
  - 둘째, 합리적이고, **좋은 삶**에 관한 질적인 **토론을 유도**하는데 기여함,
  - 셋째, **문화적 실천**에서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지향하는데 기여함. (Bernd Wagner, 34-37)
- 문화정책은 양적 성공에 앞서 질적인 목표를 설정 해야함.
- 도시, 기관, 개인의 축제와 이벤트들의 목적은 이에 해당됨.

21세기의 새로운 과제

- 시민사회영역과 시민들의 자율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함**
- 침해 받는 문화적 권리를 **국가의 개입으로 구제함**
- 문화권의 정립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함
- 문화적 권리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사안임
- 문화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영역에 해당되면서도 인간의 **의사와 활동, 표현, 일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
- **인간의 감성과 표현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데 있어 필요함
- 인권 분야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사회의 인권발전의 선진성, 국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됨**
- 문화권은 **다른 개인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와 신념의 자유, 결사와 교육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문화는 왜 필요한가?

- Man braucht Kultur, um ein ganzer Mensch zu werden.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문화가 필요하다.)

Von Hilmar Hoffmann (* 25. August 1925 in Bremen; † 1. Juni 2018 in Frankfurt am Main) war ein deutscher Kulturpolitiker und -funktionär.)

독일에서의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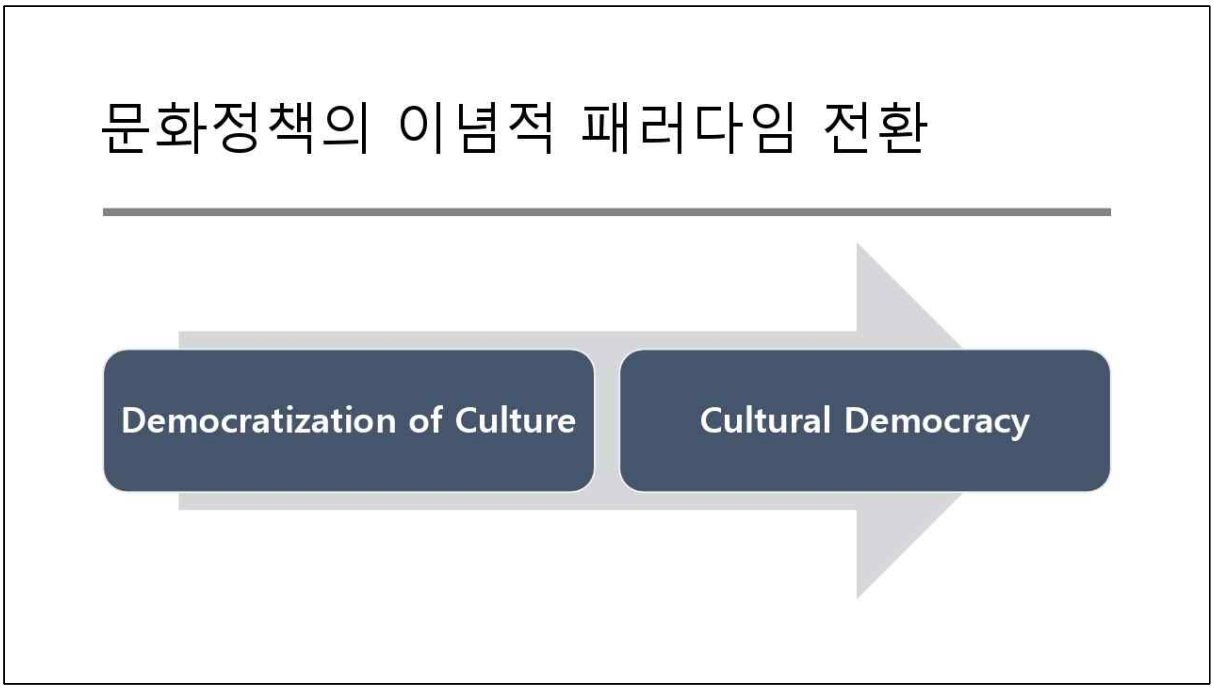
- 예술과 문화는 인간 존재의 표현임.
- 예술과 문화는 자유와 다양성에서
  -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에 기여**하고,
  - **비판적 담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함
- 문화는 인간 **존엄성, 자유, 정의와 연대**의 기본 가치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및 유대적 엠보싱, 계몽주의와 휴머니즘에 기반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
- 예술과 문화의 생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공존을 풍부**하게 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발전을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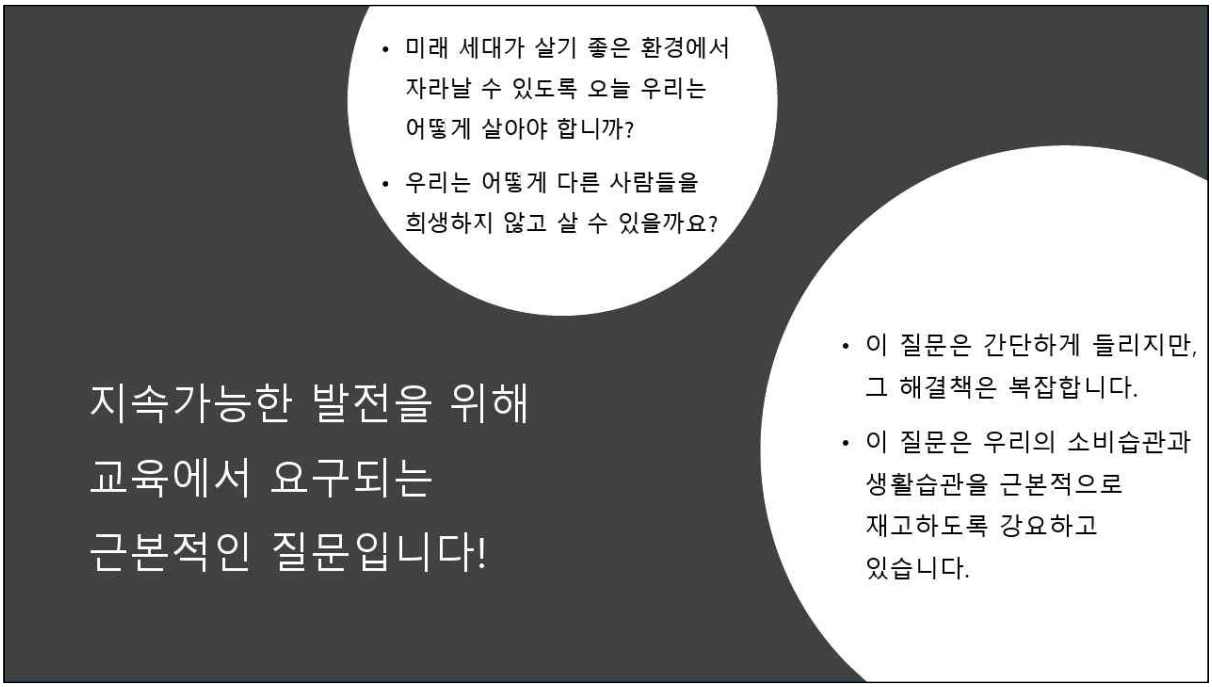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 Agenda für Kultur und Zukunft mit Ländern Kommuner und Zivilgesellschaft. S. 166.

Kultur für alle

- 예술과 문화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는 독일 사회 통합의 기본 요소이자 이민 사회를 통합시키는 엔진이다.
- 연방 정부는 박물관, 도서관 또는 극장을 가끔 방문하거나, 거의 방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및 기관의 문화 교육 사업을 홍보한다.
- **문화부 장관은 문화 교육을 위한 기관 및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이념적 패러다임 전환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 이 질문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해결책은 복잡합니다.
• 이 질문은 우리의 소비습관과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 정치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배달문화? 목욕문화? 소비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의 참여문화?
SD 지표에 대한 재고? 등등등!

독일에서의 정치교육

- 정치교육 활성화 단체: 정당관련재단, 정부 각 부처와 부속기관, 의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회, 노조,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
- 독일의 정치교육은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됨(학교교육, 직업교육, 학교외 교육 등)
- 정치교육은 지식습득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험 유도
- 학교와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연계성 기반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실시
- 시민들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 Friedrich Ebert 대통령: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독재체제의 역사적 경험으로 독일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각
-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를 동시대인과 후손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교육시키는데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을 기울임**
- 정치교육은 이 역사적 결론을 체제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자각시켜
-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연방정치교육원 중심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가의 개입없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노력
- **주정치교육원**은 주마다 상이한 설립조건은 물론 문화정책상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다양한 정치교육 자료 발간,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기본사업으로 추진
- 주정치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비디오, 정치풍자극, 음악회, 전시회 등의 형식을 빌어** 새로운 사유의 장과 무대를 개발하고 정치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또한 정치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에 식상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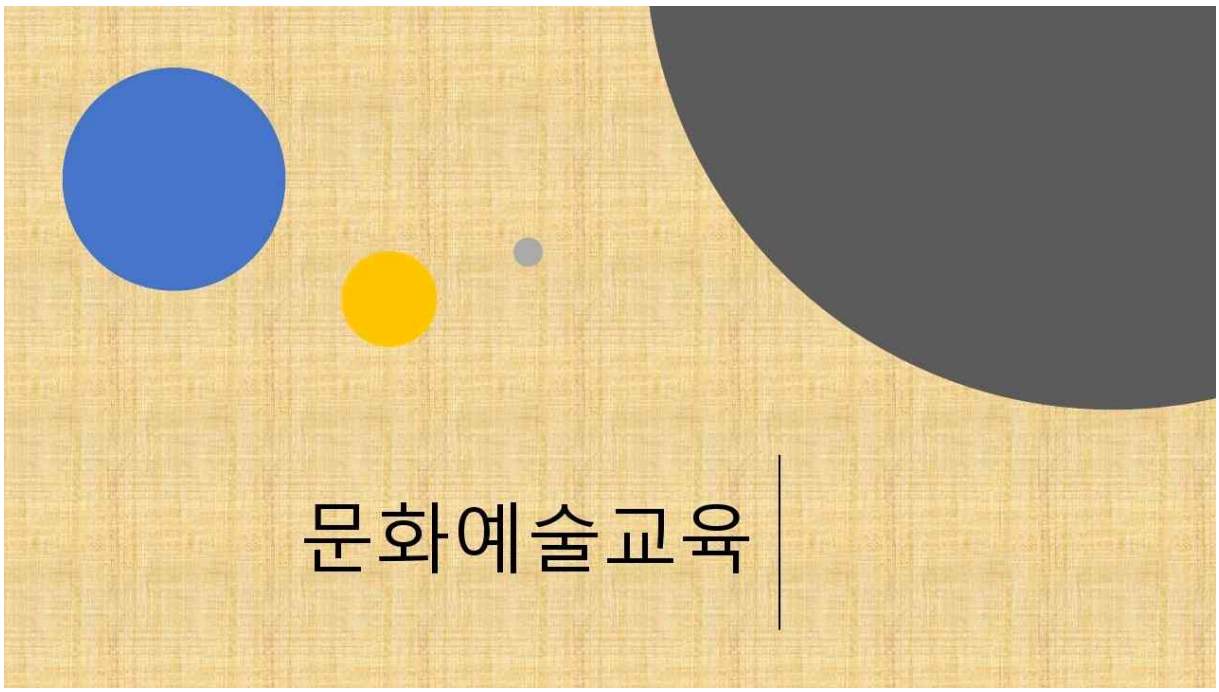
-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
  -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 조직, 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
-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
  - 청소년 및 성인이 정치 및 사회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든 교육시설의 조치를 가리키는 집합명칭
-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목표
  - 전쟁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설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Schiele)
  -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정치. 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 건전한 시민육성
  - 정신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정체성 확립

사회정책으로서의 독일 문화정책

-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세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과제로서의 문화정책
- 문화정책 결정의 세 가지 논점
  - 공공성: 부족한 재정에도 문화기관과 문화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
  - 시민성: 시민으로부터 근거한다.
  - 경제성: 공적 재원의 효과적 경제와 일자리 관점에서 문화를 파악한다.(Dieter Kramer 1996)
- 문화정책은 경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적 행위는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이다.(Scheytt 2003)
- 문화정책 수립은 먼저 사회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 문화정책의 4K
  - Kommunikation(소통), Kooperation(협업), Koordination(조정), Konsensfindung(합의)

환경과 문화교육

- BUND와 독일 문화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ESD)의 맥락에서 **환경 및 문화 교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
- 환경 교육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문화 교육에 중점
- BUND, BUNDjugend 및 독일 문화위원회는 환경 교육 및 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 미래에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
-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 **토론을 자극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
- **문화 교육 및 환경 교육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 및 홍보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현



예술교육의 중요성 (Edmund Burke Feldman)

- Arts education has always been a contested area.
- 예술교육은 예술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함
- 예술 교육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만드는 일,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문명화 된 삶이 계속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심오한 감각이라는 만족감을 부여 할 수 있음.
- **"이제는 예술 교육이 도구화 되어 있다."** (학교 커리큘럼의 나머지 부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을 지원하는 수단, 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수단, 좋은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 수단,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개발하는 수단)
- 예술은 학습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의 핵심
- 예술이 전통적으로 교육받는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예술교육의 필요성(Ernst Cassirer)

- '과학은 우리에게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덕은 행동에 질서를 부여한다.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것, 들리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
-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예술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훌륭한 예술교육은 위대한 문학(novels, poetry and short stories, plays), 댄스, 시각 예술, 음악, 영화 등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많은 형식의 예술을 소개한다.'

Discipline-based arts education(DBAE)

-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의 예술교육자들의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을 제안
- 기존의 'self-expression' and 'child-centred learning' 방식을 거부
- DBAE의 4가지 통합 영역: skills and making, historical knowledge, aesthetic understanding and critical judgement
- 목적: 학생들이 예술가와 예술비평가와 같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
- 시각예술 커리큘럼의 목적:
  - 선, 색상, 질감, 형태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 기술과 기법의 개발과 경험을 위해 구조화,
  - 기술적인 기술이 아닌, 미적 관점에서의 보는 법과 표현하는 기술 습득
  - 시각예술 형식의 역사 및 문화적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 예술을 예술적으로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
  - 판단을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 예술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철학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개발

예술감상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이란?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치로 다가오는 공연감상을 토요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또래집단과 함께하며 문화향유 방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공연관람을 통해 공연보기의 즐거움을 알려줍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이란?

본 교육은 지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를 통한 감상방법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수봉문화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이란?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재)경기도문화의전당

History of DBAE

- 1980년에 학문 기반 미술 교육 (DBAE) 구성됨
- DBAE 목표: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J. Paul Getty Center에서 미국으로 확대(Alison and Hausman, 1998).
  - 숙달 및 인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 개발
  - 다양한 사고 방식을 촉발
  - 경험이 불완전한 교사의 프로그램을 설계 용이(DBAE 구조를 사용하여) (Stewart and Walker, 2005).
- 커리큘럼 4 가지 항목: 미술사 취득을 위한 미술사, 미술 비평, 미학, 미술 제작
- DBAE의 기여:
  - 학생들이 일반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
  - 결과적으로 DBAE는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개선 (Greene, 2001).
  - 학문 기반 미술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시각 예술의 이해임 (Gilbert et al., 1989).
  - 미술 교육을 위한 많은 모델이 있지만, DBAE 접근법은 미술의 내용을 동시에 통합(Johnson, 1990).

Curriculum Units for DBAE at J. Paul Getty Center

©1991,2001 The J. Paul Getty Trust

I. Art Touches the People in Our Lives
II. Spaces and Places
III. Many Ways of Seeing
IV. Celebration!
V. The Word as Image
VI. Art Exploration—A Global Approach
VII. The Artistic Heritage of Clay: Survival and Revival of Traditions
VIII. Experiencing Original Works of Art in a Museum

Lesson outline of DBAE at Getty Center

	CONCEPT (OBJECTIVE)	TEACHER WILL	STUDENTS WILL	EVALUATION
Criticism	• 유물의 특성 학습 • 역사 및 문화 개발 연구에서 도자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이슈에 내재 된 정보를 평가	• 문화와 유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토론) •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세라믹 물건에 내재 된 인공물의 품질 확인 요청 • 학생들이 개인 환경에서 도자기를 알 수 있도록 숙제를 배정	• 유물과 예술의 차이점 생각하기 • 할당 된 워크 시트를 완성하여 가정의 도자 개체가 인공물로 가질 수 있는 자질에 대해 추측	• 워크 시트 질문은 학생들의 "예술", "유물"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데 사용 • 수업 토론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인 • 수업 종료 시 퀴즈는 옵션
Aesthetics	• 아름다움과 기능 그리고 문화적 인공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 인공물이 문화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 • "예술"과 "인공물"개념을 조사	•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도자기와 다른 물건에 적용되는 개인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정의하도록 도와 주기 •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가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 개념에 적용될 때 다양한 용도를 설명하기	• 학급 또는 그룹 담화에 참여하여 세라믹 인공물에 적용되는 용어 "아름다움"에 관한 합의를 공식화하기 • 유물은 언제 예술로 간주될까?	• 워크 시트에서 학생들의 답을 평가 • 자신의 개념을 개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 학생들에게 세라믹 물건을 예술이나 유물로 분류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쓰기
History	• 도자기를 통해 역사가들이 문화적인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배우기 • 고고학 유적지의 연대결정 방법과 도자기 유물에서 수집 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 워크 시트 항목에 대한 가이드 토론 • 도자기 유물의 유용한 품질과 유물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지식을 강화 • 학생들이 도자기 공예품을 통해 문화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도움주기	• 수업 토론에서 워크 시트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 과제를 진행할 때 개인 유물을 검사하면서 정보를 적용하기	• 워크 시트 및 과제를 토대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식별 • 토론식 수업은 지식을 개인 생활로 접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Production	• 주변에서 세라믹 물체의 샘플을 그리고 그것을 현대 문화의 공예품으로 간주하기 • 토론을 위한 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산 기술의 가능성을 식별하기	• 과제 부여하기 • 세라믹 유물을 연구 할 때 고고학자가 만든 스케치를 보여주기 •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 된 건축 기법을 검토하기	•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 샘플을 그리기 • 선택한 세라믹 물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공 기법을 결정하기	• 학생의 그림과 수업 참여는 이해 수준을 보여줄 것임

THE FOUR DISCIPLINES:

THE DBAE HANDBOOK BY STEPHEN MARK DOBBS DEFINES THE FOUR DISCIPLINES AS:

- **Art Production- To make art:**
  - 제작의 경험 중시(숙련도 향상)
  - 작품제작의 이유: 우주, 자신 및 타인을 발견하고 디자인과 개별 표현능력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
- **Art Criticism- To respond and judge the properties and qualities that are in visual forms:**
  - 작품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향상에 기여. 시각 세계 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한 이야기에 사용되는 어휘도 포함됨.
  - 스튜어트 앤 워커 (2005)에 따르면 미술 비평은 학생들이 예술과 판단의 개념을 해석 할 뿐만 아니라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을 정의하도록 요구함.
- **Art History- To acquire knowledge of artist, art and their contribution to culture and society:**
  - 미술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예술 연구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통시적 변화를 탐구.
  - 예술이 장소에 따라 만들어지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Mittler and Ragans, 2004).
  - 예술사 (Art History)는 구색, 연대기, 기술 및 정신적 아이디어를 말하며,
  -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전에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만든 예술가에 대해 학습(Stewart and Walker, 2005).
  - 1979 년에 스튜디오 아트를 예술사와 결합시키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시작
  - 미국의 학생들의 경제 회복과 유럽 여행의 증가를 통해 스튜디오 아트를 예술사와 결합하는 것이 용이해짐
  - 미술사 연구는 우수한 미술 커리큘럼의 필수 부분입니다 (Frankston, 1967).
  - Frankston은 미술사 연구는 예술을 이해하는 능력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모든 수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 **Aesthetics- Understanding how people justify their judgments about art.**
  - 미학은 예술의 본질과 가치와 관련된 철학의 지점
  - 미학적 견해는 예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사고하는 훈련장임 (Mittler and Ragans, 2004).
  - Stewart and Walker (2005)는 미학이 예술의 주제, 구성 및 내용, 가치 및 자연과의 관련성 주장

A FULL DBAE IMPLEMENTATION OF DBAE REQUIRES:

- **District- Wide Adoption-**
  - 광역 지역 내에서의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예술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장
  - 학군 내 모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
- **Regular Instruction-**
  - 한 주에 최소 1~2시간의 수업 필수
- **Administrative Support-**
  - 예술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
  - 필요한 용품과 자원제공
  - 지역 내 예술교육 확산
- **Art Education Expertise-**
  - 예술전문 지식을 지닌 인력, 직원, 컨설턴트, 커리큘럼 감독 및 직원 개발
- **Evaluation-**
  - 교사의 지도, 학생의 성취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필수
- **Community Recourses-**
  - 미술관, 아트센터,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레지던시 등과 DBAE 교육과정 연계

Feldman 법칙의 문제

- 작품의 외형만을 파악하는데 만 기여
  -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즉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종교는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인지 알아야 함
  - 미술을 표현주의적 자아표현으로 정의함
  - 표현주의의 배경은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임
  - 휴머니즘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켜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문제가 있음
  - Feldman 법칙은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함 (한 학생의 행동을 자신의 타고난 독특성의 개인적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행동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듬)
  - Feldman 법칙은 하나의 미술작품이 생산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 DBAE는 미술작품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함
- 포스트모던 철학을 배경으로 한 구성주의는 상호작용을 중시

HISTORY OF DBAE: EARLY VS. CONTEMPORARY DBAE

	Early	Contemporary
The Art Disciplines	• 개념적 구조 : 기본 아이디어, 원칙 및 질문 프로세스가 포함 • 각 법칙은 서로 분리되어 있음	• 다양한 관점을 포함 • 커리큘럼에 규율을 포함할 필요는 없음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초 규율
Selection of Imagery	• 유명하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작업 • 서양예술 중심	• 어디에서나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음 • 다른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Curriculum Content and Pedagogy	• 전문가에 의해 규정된 실습 • 커리큘럼은이 규정에 따라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으로 구성됨 • 교과 과정은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 작품에 접근하기위한 다른 모델들은 사회학, 인류학 및 물질 문화 연구를 포함 • 게티 센터는 미술 교사가 예술, 사회 및 다문화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의 교수 방식을 통합하도록 권장 • 아동 중심 및 내용 중심 교과 과정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음
Children's Art	• 어린 시절 표현은 창조적이지 않다. • David Lowenfeld의 방법은 배제됨(어린이는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제정하여 어린이의 감각적 인식을 활성화시킨다.)	• 유아들은 자신 만의 심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장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협업

- 사업명:
  - 인천예술감상교육?
  - 인천사회문화예술교육?
  - 인천 DBAE 문화예술교육?
  - 인천시민문화교육?
  - 인천 예술로 문화교육?
  - Etc.

【 토론 1 : 예술감상교육의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 】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주셨다. 발제문에 덧붙여 2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키고 싶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천문화예술교육의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발제자도 지적했다시피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과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학교나 지역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일컬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S)이라고 명명한다. 2005년에 수립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이행계획(DESD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에 따르면 EDS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86] 그리고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실무작업단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의로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상호관련성, 세대간 형평성, 지구적 정의를 인식하고 현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교육"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87]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주제교육과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88] 지속가능발전목표가 17가지 영역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도 환경, 사회, 경제 전

86) UNESCO(2004).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1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UNESCO.
87) 정우탁 외(2010). DESD 후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추진방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8) Wals, A.(2009).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DESD, 2005-2014):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반에 걸쳐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은 유사하되 문화예술을 도구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일까?

<표 1> 지속가능발전교육(EDS) 개요

구분	내용
정의	◦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상호관련성, 세대간 형평성, 지구적 정의를 인식하고 현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교육
형식	◦ 정규교육으로 지칭되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 포함.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능력 증진
내용	◦ 환경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의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주제교육과 서로 긴밀히 연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영역별 전개 현황	◦ 학교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교사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고등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직업교육훈련(TVET)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시민사회(NGO)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민간영역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전문센터(REC)와 지속가능발전교육 ◦ 대중인식과 지속가능발전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출처 : 이선경 외(2014),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예술감상교육?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교육?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는 '예술감상'에만 집중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인천시의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술감상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이 단지 예술적 기량과 표현능력을 갈고 닦거나 향유능력을 키우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 학교교육만이 아닌 학교 밖 시민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신체적·사회적·인지

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오히려 '예술' 보다는 '문화'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이나 문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가로질러)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중앙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시행되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주도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용어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내용, 방식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예술 교육	예술을 위한 교육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예술 장르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 감각, 기능을 양성하며, 창조성, 상상력, 미적 체험을 통해 자신을 성취하는 과정	미적체험 통한 성취
	예술을 통한 교육	◦ 인간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정의하며 예술교육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고 성취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집단의 유기적 통일과 조화된 개인 양성을 지향	사회적으로 조화된 개인
문화 교육	문화를 통한 교육	◦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상상력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학교와 교과 중심의 교육과 달리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 포함	전인적 발달
	문화에 대한 교육	◦ 고급문화에 한정된 문화관이 아니라 대중문화, 외국문화, 특정 집단의 하위문화, 전통문화, 제3세계 문화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다양한 문화 이해
문화 예술 교육	예술교육의 문화교육적 재구성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인간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예술적 표현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교육과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문화교육이 포괄된 교육으로 소수에 의해 전유되는 폐쇄적인 예술교육이 아닌 모든 사람의 예술적 향유와 문화 역량의 극대화 추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연계
	문화·예술의 경계를 초월한 통섭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의 통섭이며 융합으로 지식과 경험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의 통합을 넘어서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추구함. 또한 예술교육과 사회 전반의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문화예술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	문화·예술·교육의 융복합 추구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 토론 2 :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DBAE 교육이념의 활용 】

김재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장)

김상원 선생님께서는 앞서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와 문화정책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 시민사회영역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권리 보장의 요구와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의 문화정책과 문화적 과제,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문화정책은 정치·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이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안해주신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발제해주신 내용에 대해 토론자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문화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고민해야 할 사항은 어떤 부분일지, 마지막으로, 광역 및 기초단위의 정책 실행 주체들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발제내용 중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예술감상교육을 소개해 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자기 표현력을 강화시키는 사례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주 5일 수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발제해 주신 내용 중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주 5일 수업제로 운영이 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문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를 보면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여가시간에 문화시설 방문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반면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 식사나 휴식 등 필수시간을 확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례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일반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방식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정책사업들이 제안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앞으로 문화정책 및 관련 사업 설계 시 '훈련기반 예술교육(DBAE)'의 관점을 적용하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정책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했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단위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단위에서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책의 이념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정책이 제안되고 구현되는 현장은 많은 변수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표 1 인천지역 생활문화동아리 및 예술동아리 지원내용 등>

구분	재단 내 운영팀	지원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예술동아리	문화교육팀	강사비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팀	홍보비, 대관비	지역문화정책과

표 1 은 올해 인천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및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소관부서 및 예산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동아리가 강사비를 지원받으려면 예술동아리 공모에 지원하고, 홍보비나 대관비를 지원받기를 원한다면 생활문화동아리 공모에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립된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지원을 받는 동아리 입장에서는 강사비를 받느냐 홍보비·대관비를 받느냐의 차이정도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제문 중 문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공성, 시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정책이 인권이나 환경 등의 이슈와 결합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갈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공공성 및 시민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지향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연계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실행영역에서 사업영역간의 구분이 모호한 지점들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측면에서 인천문화재단 등 광역재단의 역할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국17개 시도에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광역단위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혜자와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기기 위해서 기초단위 또는 생활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천문화재단과 같은 광역단위의 주체는 어떤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참 고 문 헌 】

1.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8),「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4).「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상열·정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조현성, 박영정, 김세훈, 장호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연계 사업성과 분석 연구」, 강인애, 이광준, 이영범, 장대철

2. 자료집

국회문화관광위원회(2005),「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검토보고서」, 김문희

문화관광부(2007),「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p.4.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5),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새사연 이슈진단」, 최정은

이화여자대학교(2017), “핀란드, 영국의 보편적 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 제시”,「2017 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탐사보고서」, 임고보다 청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사례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2016 인천문화예술교육 토론회 부.탁.해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3년의 이야기;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발맞추어 걷다 사례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1994, 문화연대, 강정숙(독일 뮌헨 교육연구소 정책조정실장) 초청 문화연대 간담회, 2003. 10. 9.

Culture21,「Cultur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e21,「Agenda 21 for Culture」

3. 연구논문

김설아(2017), 「방문형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와서울지역 방문형 학교문화예술교육 사례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원.

민경훈(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예술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유유진(2019),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홍애령·송미숙(2015),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한국무용연구』, 33권 1호.

4. 단행본

김화임(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임연철·박정배(2013), 『예술경영』, 커뮤니케이션북스

환경부(20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C. Joseph Clawson & Donald E. Vinson(1978), 『Human Values: a Historical and Interdisciplinary Analysis』

Castells Manuel(마뉴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Rise of the Network Society)』

Herbert Read(허버트 리드)(1943),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Milton Rokeach(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5. 보도자료

문화관광부(2007.6.28.), 보도자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02.11.),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4.8.28.), 「우리나라,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arte365(2013.12.19.), 「잊혀진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5.09.07.), “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http://saesayon.org/2015/09/07/17473/

6. 인터넷 사이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www.assembly.go.kr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 https://educationstandards.nsw.edu.au

댈라스시(市) : https://dallascityoflearning.org/workshop-detail?id=42142

말과활 : http://wordnbow.net/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http://mimesisart.co.kr/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imesis_art

브루넬 인스티튜트 : http://www.ssgreatbritain.org/brunel-institute/about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_sfac/220456834094

서울시립미술관 : https://sema.seoul.go.kr/ee/fArtClss/GAG01/getEeCont

수원문화재단 : http://www.swcf.or.kr

스파크!(SPARK!) : http://sparkdallas.org/

스파크 아츠 : https://thesparkarts.co.uk/about

스트레이트 토킹 : https://www.straighttalking.org/

싱가포르 미술관 :
http://www.singaporeartmuseum.sg/art-events/exhibitions/think-contemporary-2019

아르떼 노르말 : http://artenuevo.co.kr/category/arteNormal

아르떼(arte) 라이브러리 : http://lib.arte.or.kr/index.do

아트앤스터디 : http://www.artnstudy.com/

영국 내셔널 갤러리 :
https://www.nationalgallery.org.uk/learning/teachers-and-schools/diana-and-callisto-schools-project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
http://www.sac.or.kr/SacHome/academy/academy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블로그 : http://blog.unesco.or.kr/220377377180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index.do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 http://www.ilec.go.kr/

인천문화재단 : http://www.ifac.or.kr/

정부 지속가능발전 사이트 : http://www.ncsd.go.kr

테이트 모던 미술관 : http://www.tate.org.uk/about/projects/looking-change

한국교육개발원 : http://edzine.kedi.re.kr/2015/winter/article/world_02.jsp

한국영상자료원 : https://www.koreafilm.or.kr/pages/PC_00000037

한양대학교 뮤지엄 아카데미 : https://museumuf.hanyang.ac.kr

Culture21 : http://www.agenda21culture.net

EBS 인문학특강 : http://www.ebs.co.kr

PSHE Association (PSHE 협회) : https://www.pshe-association.org.uk/

UN 새천년개발목표 사이트 : http://www.un.org/millenniumgolas

【 부록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6호, 2019. 1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2. 2. 17., 2014. 1. 21.,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삭제 〈2015. 5. 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5. 5. 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18.〉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5. 18.〉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5. 1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 5. 1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5. 5. 18.]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시·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 2. 17.〉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27조의3(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목개정 2019. 12. 3.]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17.〉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2. 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2. 17.]

제33조(권한의 위임 ·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2. 17.]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9. 12. 3.]

【 2019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 기획·연구과제 2 】

인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 예술감상교육과 시민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및 사례조사 -

발 행 인 최 병 국

발 행 일 2019년 12월 27일

발 행 처 (재)인천문화재단

22313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항동 5가 13)

전화 032-455-7100 홈페이지 www.ifac.or.kr

ⓒ (재)인천문화재단 2019

※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인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사전 연구

비매품/무료
93600
9 788992 678506
ISBN 978-89-92678-50-6